

**제6차 OECD통계위원회 및 제57차  
UNECD 통계기관장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9. 7

**기 획 조 정 관  
국제협력담당관**

# 목 차

I 개 요 .....	1
1. 회 의 명 .....	1
2. 참가목적 .....	1
3. 출장기간 .....	1
4. 출장지역 .....	1
5. 대표단 구성 .....	1
II. 회의의제 및 일정 .....	2
1. 제 6차 OECD통계위원회 .....	2
2. 제57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 .....	3
III. 주요활동 .....	4
1. 국제통계 협력활동 .....	4
2. 주요 회의참석 .....	5
IV. 주요의제요약 및 검토의견 .....	27
V. 회의자료(번역) .....	87
1. 제 6차 OECD통계위원회 .....	87
2. 제57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 .....	186

## 1. 회의명

- 제6차 OECD통계위원회  
(6th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 제57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  
(57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 2. 참가목적

- 국제 통계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이슈를 파악
-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들과 교류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국가 활동 및 OECD세계포럼 홍보 등

## 3. 출장기간 : 2009. 6. 8(월) ~ 6. 13(토)(4박6일)

- 윤연옥 OECD파견과장 6. 7(일) ~ 6. 12(금)(5박 6일)

## 4. 출장지역 :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

## 5. 대표단 구성

- 대표단장 : 이인실 통계청장
- 대표단원 : 박경애 국제협력담당관, 윤연옥 OECD파견 과장, 김철주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주OECD대표부 서원석주재관

※ 한국은행 정영택 국민소득팀장 OECD 통계위원회 참석

## II. 회의의제 및 일정

### 1. 제6차 OECD 통계위원회

날짜	시간	조항	의 제	문서번호 STC/CSTAT /(2009)~
6. 10(수) 오후	14:30~14:45	1	안전 승인 전차회의 회의록 채택 사후조치 요약 안내방송	A1 M1 RD1
	14:45~17:00 (휴식포함)	2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통계의 역할	1 2
	17:00~17:45	3	정부개관	3
6.11(수)	09:30~10:30	4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 Stiglitz위원회의 권고안	4 5
	10:30~12:00 (휴식포함)	5	환경통계: OECD 안전	6
	<b>12:00~12:30</b>	<b>6</b>	<b>사회진보측정 글로벌프로젝트</b>	<b>7</b>
	12:30~14:30		중식	
	14:30~15:00	7	인적자본측정	8
	15:00~16:45	8	통합 세계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방향 : OECD의 역할	9 10
	16:45~17:30	9	아동복지측정 : OECD보고서 교훈	11
			정보 요소 1. 혁신전략 2. 워크샵 보고 3. 품질관리 검토 - 자료수집보고서 - 품질관리 검토보고서 4. OECD생산성 데이터베이스 5. OECD 확대 및 통계 : 진척보고서 6. 통계국 업무계획 보고 - 프로그램 실행보고 상태: 2007-2008 - 2009년 예산과 재정관리 개혁: 업무계획 이행에 관한 새 보고 사항	INNOV1 RD2  RD3 RD4 RD5 ACS6  RD6 RD7

## 2. 제57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

날짜	시간	조항	주 제	문서번호 ECE/CES/~
6.8(월)	09:30~09:45	1	개회 및 안건 채택	75, Add.1
	09:45-10:00	2	CES 상위기구 회의 - UNSC 2009년 회의(2009. 2) - ECE 2009년 회의(2009. 4)	43
	10:05~11:10	3	정책자료생산 권한과 책임간의 조화 세미나 세션1 : 통계인과 정책결정자와의 관계 - 수요는 제기하지만 독립적 관계 유지	21, 20, 42, 22, 23, 38, 40
	11:30-12:30		세션2 : 공식통계의 작성을 넘어 - 갈등을 피하면서 시너지효과 창출	24, 25, 19, 39
	14:30-15:45		세션3 : 예산이상의 책임성 - 공공의 기대 측정과 해결	26, 27, 28
	16:05-17:30		세션4 : 일반토의 및 결론	
6.9(화)	09:30~11:00	4	사업체 통계의 전략적 과제 세미나 세션1 : 응답부담경감	13~15, 29~31, 35~37
	11:30~15:50		세션2 : 사업체 통계의 신규분야, 새로운 개발과 사용자 요구	16~18, 32~34, 41
	16:25~17:30	5	UNECE지역의 국제통계활동 협력 1. 채택된 주제에 관한 심층검토	4, Add.1, 5, 6
6.10(수)	09:30~10:20	5	UNECE지역의 국제통계활동 협력(계속) 통계 보급, 소통 및 발간에 대한 심층검토	7
	10:20-10:40	6	2. 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사생활 보호 원칙	3 and ADD.1
	10:40-11:00	7	3. 이민통계자료의 사용과 보급 지침	10, Add.1&2, 11
	11:10-11:20	8	4. 범죄피해자조사 매뉴얼	12, ADD.1&2
	11:40-11:55	9	5. 진척보고서 - UNECE 통계 프로그램: '08보고, '09계획 - CES 의장단 회의 보고서, 전문가팀 진척보고	44 1, 2 & Add.1
	11:55-12:00	10	6. 2010년 정기총회 세미나 주제 선정	45
	12:00-12:05	11	7. 2009-2011회기 CES 의장단 선출	8
	12:05-12:10	12	기타 안건	9
	12:10-12:30	13	보고서 채택 및 회의 종료	초안



## 주요활동

### 1. 국제통계 협력활동

- OECD 통계국장(Enrico Giovanini)과 제3차 OECD세계 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World Bank 지원금 실행방안 협의
  -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년 10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UNDP, ILO, Wordbank 등 국제기구, 외국주재 한국대사, TV 등 언론매체, 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협조 및 참여유도
    - 주요 인사(예, 스페인총리, 요르단여왕 등) 참여유도
  -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되는 World Bank의 40만불 실행방안 모색
    - 회의참가를 위한 여행경비지원, 훈련 및 연구수행 등
  
- OECD대표부 대사(김중수) 및 제네바대표부 대사(이성주)와 면담
  -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의 통계 인프라 강화 방안 논의
  - 통계의 품질개선 및 정책기반으로써의 중요성 논의
  
- 호주,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각국 청장들과의 면담
  - 사회적 여건 및 통계의 발전방향 논의
  - 양국간 통계적 국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 특히 프랑스와는 경제분석 관련 협력방안 논의. 우리 청 직원 파견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 공감

## □ OECD의장단 회의 참석

- "한눈에 본 정부"의 발간과 관련하여 통계적 관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품질을 개선하도록 노력

## 2. 주요 회의참석

### 1) 제6차 OECD통계위원회

#### □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의 역할

-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드러난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
-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통계개발(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분기계정개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 실시 확대 등), 시의성 있는 기존자료 수집 및 집계, 행정자료의 사용 등 필요
- OECD는 2010 Factbook에서 “경제위기” 특별호를 발간하고 단기경제지표 확대 및 신속성 증대를 위해 노력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에서는 실행가능성, 통계의 시의성과 품질에 대하여 논의
- IMF가 설립하여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와 금융통계에 관한 기구간 그룹”(Inter-Agency Group)은 금융부문, 비금융 부문의 수지균형자료, 주택가격과 주택관련자료 그리고 최종 위험/신용 이전방법의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 특히 이 그룹은 주요 경제와 금융 통계표를 제공하고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각 국의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통계청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웹사이트 신설.

- 사무국은 각 국 통계청과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글로벌 위기의 통계적 의미에 대한 OECD 실행안 초안을 발표. 통계청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은
  - 제도 부문별 자산 가격과 대차대조표에 대한 광범위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
  - 제도 부문별 분기계정 개발
  - 가구수입과 자산 관련 시의성 있는 조사 집계
  - 빈곤에 관한 다양한 정의와 측정방법 개발
  - 약간 지연된 관련정책에 관한 주요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듈 접근을 위해 사회조사 재구성 가능성 탐구
- OECD의 제안에 관하여 사무국은 OECD내에 노력 조정을 확실하게 할 “통계수평그룹”(Horizontal Group on Statistics)의 설치에 대해 공지. 그룹이 생각하는 활동은 기존 자료의 배포와 교류를 향상시키는 한편 분기 국민계정 특히 가계부문에서 주요 집계의 수집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 배포 측면에서 OECD 통계국은 위기 관련 자료의 공표를 촉진하는 것에 동의. 추가로 OECD 통계정책그룹(Statistical Policy Group)은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통계를 제시하는 2010년 팩트북(Factbook) 특집을 고려중.
- 의장은 먼저 각 국 통계청을 위한 OECD 제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 몇몇 회원국은 사무국 보고서의 질 특히 위의 상이한 양상과 영향을 보여주는 표1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 모든 국가는 통계청에 대한 권고에 동의하지만 각 국 통계청이 자원이 한정된 상황 따라서 권고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지적. 많은 경우에 표1에 필요한 자료는 이미 존재하고 그 자료는 더욱 시의성 있는 추계를 위해서 보다 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각 국은 동의. 동시에 몇몇 국가는 주요 이용자가 시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정확성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보다 일반적으로 통계위원회 회원국들은 정책 수립자와의 의사

소통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들의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 몇몇 회원국은 SDMX의 사용을 통해 자료가 신속하게 공표되고 비교성이 확보되는 것을 지적.

- 소수의 회원국은 사회통계의 수집을 확대하라는 제안에 이 자료가 수집하기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 기존의 계속적인 조사가 기타 부상하는 정책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 회원국들은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은 바른 결론 전달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에 동의.
- 회원국들은 국제기구가 각 국 통계청에 대한 노력의 중복과 그들 간의 경쟁을 피하면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공통의 행동에 합의해야 함에 동의하면서 IMF 발표와 국제기구에 대한 OECD의 제안을 토의. 회원국들은 특히 주요 글로벌지표(Principal Global Indicators) 웹사이트 신설을 환영하면서 기구간 그룹(Inter-Agency Group)이 행한 협력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시. 그들은 OECD가 가계 소득과 자산통계를 개발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 더욱이 그들은 아래 사무국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
  - 관련 통계 공표의 촉진
  - 주요 경제 지표의 세계집합 개발
  - OECD Factbook의 2010년 특별판 발간
  - 모델로 표1을 사용하여 상이한 위기 단계를 알기 위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OECD 웹사이트에 새 웹페이지 신설
  - 관련공표자료의 전달 강화
-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수정된 보고서가 통계위원회 권고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되는 것에 동의. 의장은 위원회가 2010년 6월 제7차 OECD통계위원회에서 여러 조치들을 평가할 것을 제안.

## □ “한 눈에 본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측정 과제

- OECD사무국은 2009년에 간행물을 발간하여 정부활동을 수량화하여 비교하고자 하나 각 국은 처한 상황이 달라서 각국정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움을 토의함
- 공공부문이외의 민간부분은 특히 상황이 달라서 주석을 달아주거나 각 국가와 상당 기간의 협의기간을 거쳐야함을 주장
- 올해 10월에 발간되는 간행물의 95%자료는 이미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몇 차례 검토를 거친 후에 발간할 예정임
- 사무국은 좋은 정부와 능률적인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요 지표셀을 제공할 새 OECD간행물 초안을 제출. 이런 시도의 목적은 각국 정부가 그들의 관행과 성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비교하도록 돕고 개별 국가들이 공통의 분석 단위를 이용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업무담당자 간에 체계적인 대화를 촉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 사무국은 전자 자문을 거쳐 이미 통계위원회 회원국에 제출된 간행물 초안 내용을 설명. 또한 정부활동의 범주를 정의하고 국제적 비교측면에서 투입, 산출 및 성과의 양과 질의 지표를 측정하고 구분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방법론적인 과제도 설명. 이런 과제는 2011년으로 예정된 2판 준비과정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한 눈에 본 정부”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한 지지를 표명. 동시에 회원국들은 몇몇 사용 자료 비교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표시. 그들은 또한 공공부문에 쓰이는 확장된 정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간행물 서문에서 방법론적 활동은 시험적이고 자료비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방법론의 국가별 개발을 위해 의장은 아래와 같이 제안.
  - 금융통계 실무작업반과 공동으로 공공부문의 범주와 활동에 관한

측정과제 해결을 국민계정 실무작업반에게 요청할 것

- 기타 측정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위원회(PGC)와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할 것
- 회원국들은 이 제안을 환영. 반면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가능한 조속하게 늦어도 7월말까지 간행물의 현재 초안에 대한 중요 기술적인 의견을 사무국에 보낼 것을 요청. 사무국은 자료의 비교성에 관한 몇 가지 경고를 포함하기 위해 서문을 고쳐 쓸 것으로 예정. 서문 초안은 의견 요청을 위해 통계위원회 의장단에게 송부될 예정.

#### ☞ 이 인실 통계청장의 발언 요지

- 통계결과는 다양한 관심그룹에 의하여 잘못 해석 될 수 있어 측정결과의 해석 시 주의경고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 □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 : Stiglitz 위원회의 권고안

- 전통적 경제측정 지표인 GDP는 국민의 삶의 질 및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
- 측정방법은 전통적 경제지표 "GDP", "삶의 질"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로 분류하고 "삶의 질"은 건강, 교육, 여가활동, 정치적 자유, 환경조건 등과 같이 다차원적인 지표를 포함. "지속가능발전"은 웰빙의 동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웰빙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환경문제 등을 포함
- 프랑스 공동 의장은 초안 요약이 시민사회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웹(<http://www.stiglitz-sen-fitoussi.fr/en/>)에 게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위원회의 주요 메시지를 발표. 위원회 활동은 전통적 GDP 문제, 삶의 질 측정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측정에 초점. 보고서의 몇 가지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 가계조정 순 가처분 소득(Household adjusted net disposable income)이 GDP보다 경제적 복지를 잘 측정
  - 정부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수단 필요
  - 평균소득에 추가하여 중간소득 측정의 중요성
  - 복지 개념에 초점을 둘 필요성. 그러므로 통계청이 실시하는 표준 조사에서 주관적 복지에 관한 통합설문 필요성 존재.
  -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부가지표셀을 가진 하이브리드 (hybrid) “순조정저축(Net adjusted Savings)”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성
- 사무국은 특히 국민계정분야에서의 시도를 강조하면서 OECD 활동과의 관련성을 발표. OECD는 현재 GDP와 함께 몇 가지 국민계정 지표를 제시할 “한 눈에 본 국민계정” 새 간행물을 개발 중임. 보건과 교육 측정에 관한 핸드북 또한 완성됨. 사무국은 가계 자산과 부채의 분포, 시간활용 자료 그리고 부채를 포함한 금융자산에 관하여 OECD내 다른 국과 협력하여 계획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언급. 더 일반적으로 사회 진보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인 지속가능한 공평한 복지의 광의개념에 역점을 두기 위해 OECD의 다른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주요 권고안을 OECD 활동과 통합하자는 제안을 환영. 회원국들은 기타 국제기구와 진보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OECD내 다른 계획과의 중복을 피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촉구. 부의 배분, 무임노동, 위성계정, 분배/불균형을 포함하는 측정 우선순위에 관해 회원국들이 표시한 여러 의견에 뒤이어 공평과 지속가능한 복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
- 의장은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국이 의장단에 그 결과를 통보 하면서 복지 측정에 관한 합동 작업반이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가능성을 다른 국과 연구할 것을 제안. 사무국은 복지의 여러 요소 측정에 관한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다룰 도표를 준비해야 함.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을 추진

## □ 환경통계-OECD 의제

- 사무국은 자원과 환경 그리고 환경 상태에 관한 설문정보 OECD시스템을 포함한 환경통계에 관한 OECD의 활동을 발표. 사무국은 자료 수집 수단을 통합하고 기존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회원국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도록 장려. 또한 회원국들의 환경자료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자료수집, 처리 및 배포 노력의 기초가 되는 틀과 과정의 비용 효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환경품질자료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의 목적을 강조.
- 위원회는 보고서를 환영하고 사무국의 환경통계에서의 활동을 축하. 실행계획에 대해 회원국은 특히 자료 접근과 품질 향상 노력 지지. 회원국들은 그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통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 □ 사회진보측정 글로벌 프로젝트

- 사무국은 프로젝트의 2009년 활동 프로그램 주요부분과 2010-2011기간의 활동프로그램 초안을 발표. 글로벌 프로젝트의 2009년 결과는 진보측정 핸드북, 진보의 틀 혹은 분류, 지표셀에 대한 품질평가틀, WikiProgress 웹사이트, 훈련 교재와 과정임. 사무국은 아래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중기 목표를 강조
  - 진보를 위기로부터 기인한 새로운 정책 이슈와 연결
  - 글로벌 프로젝트가 향후 2년간에 걸쳐 무엇을 이행할 것인 지를 명확히 할 부산에서의 로드맵을 착수
  - WikiProgress를 확대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판단기준이 되도록 함
  - 전문지식을 가진 새 집단과 관계된 포럼으로의 역할 강화
-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 환경,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프로젝트\*를 진행

\* 08.7월 공식출범하여 09.5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축

- 대부분 국가들은 글로벌프로젝트를 지지하고, 기존의 통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위단계의 통계개발에 역점을 두기를 희망
- 3차 OECD 세계포럼(09.10월, 부산)에서는 그동안의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개발방향을 토론할 예정
- 사무국의 발표에 이어 의장은 한국대표단에게 올 10월 27-30일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될 “통계, 지식 및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에 대한 준비상황을 발표하도록 요청. 일반정보에 뒤이어 한국 대표단은 발표할 두개의 특별주제 즉 ‘공공통계인과 저탄소/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포럼의 주요 의제와 프로그램을 발표. 위원회는 대표단에 포럼 준비상황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상영한 프로모션 동영상에 특별한 감사를 표명.
- 위원회는 사무국의 글로벌 프로젝트 활동보고서를 환영. 완료되었거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 프로젝트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2년간 명확한 실행가능한 일을 정의하고 다른 국제 통계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

#### ☞ 이 인실 통계청장의 **OECD 포럼 개최 관련 발표 내용**

- “통계, 지식 및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 소개
- 세계발전 현황 등 주요의제 설명
- 특별 주제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설명
- 우리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 성장” 등 소개
- 주요 참석자, 전시회 등 설명과 회의장 홍보동영상 상영

## □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신설 : 프로젝트 제안

- 08.11월 이탈리아 Turin에서 개최된 인적자본측정에 대한 워크숍에서 '할인된 평생소득 접근법'(discounted life-time income approach)에 합의
- 단기계획은 방법론을 비교하고, 중기계획은 핸드북을 발간할 예정임
- 사무국은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ECE-유로스탯-OECD보고서의 후속조치로 인적자본 측정에 관해 OECD가 이탈리아 투린에서 주관한 워크숍 결과에 관해 통지. 사무국은 합의를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워크숍 결론을 강조
  - 점증하는 소득과 할인된 생애 소득에 기초한 접근법이 교육 부문의 산출물을 측정하는 최선의 개념적 토대를 제공
  - '할인된 생애소득에 기초한 인적자본의 가치'(the value of human capital based on the discounted life-time income)는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고 이러한 추정의 확고함은 변경된 가정에 따른 민감성시험이 가능
  - 이미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할인된 생애 소득접근법은 인구집단 자료에 기초한 능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국가로 확대 가능
- 이러한 결론위에서 사무국은 일관된 정의와 방법론적인 가정에 기초한 인적자본 스톡의 추정치 산출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려는 통계청은 2000 유로의 소액 분담금으로 그 재정에 기부할 것을 요청
- 위원회는 이 계획을 환영하고 컨소시엄 설립에 동의하는 한편 검토를 위해 사무국이 더 상세한 권한범위를 정할 것을 요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및 캐나다가 컨소시엄 참여에 관심 표명

## □ 통합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 OECD의 역할

- 의장은 통계청의 메타자료전략에 대한 협력과 통합, SDMX/DDI와 같은 진정한 국제 표준안 개발 그리고 장래에 소프트웨어와 구성요소의 실질적 공유 달성에 역점을 둔 통합통계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합동접근을 주장하는 호주 보고서를 제시
- 사무국은 SDMX(Standards for Data and Metadata exchange) 이행, 다른 기구와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유, 통계의 시각화와 전달을 위한 ICT 툴 개발에 대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글로벌통계시스템 개발에서 OECD의 역할을 발표
- 위원회는 많은 국가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호주와 연구에 관심을 나타낸 호주 보고서를 환영. 위원회는 또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한 OECD의 노력을 격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글로벌지표 웹사이트의 개발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OECD와의 협력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
- 위원회는 OECD보고서의 아이디어에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 그 통계결과를 다른 기구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 위원회는 공개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할 것을 조언
- 통계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에 관한 표준가이드인 SDMX와, 자료배포 및 시각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로써 시작된 통합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을 토의
- 여러 국가들이 SDMX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조할 것을 언급
- OECD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국제기구나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음을 공지

## □ 아동복지측정 : OECD보고서의 교훈

- 사무국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영역과 지표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실질적 한계를 강조하면서 OECD 아동 복지지표들과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 채택된 아동복지의 6개영역 즉, 물질적 복지, 주택과 환경, 교육, 보건, 위험 행동 및 학교생활의 질은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에 기초. 이런 6개영역 내에서 채택된 지표는 아동 중심적(아동이 분석단위)이고 상호 보완성을 강조. OECD 보고서의 아동복지 측정수단이 정책 중심적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활동에서 복지향상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짧은 인과관계 연결을 가진 지표가 결과가 더욱 추상적인 지표에 비해 선호
- 위원회는 OECD의 아동복지측정 틀을 환영하고 UNICEF IRC가 행했던 이전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진전으로 간주하면서 복지 분야에서 OECD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 회원국들은 아동 중심 접근법은 환영하지만 틀에서 가족 구조지표를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명. 사무국은 가족구조와 아동복지간 관계는 보고서의 별도 장에서 다룰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족 구조지표가 분석틀의 결과지표 역점을 둔 것으로 인해 필요했었다고 응답. 몇몇 회원국과 읊저버는 아동 복지 연구에서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몇몇 국가는 아동 복지지표셀 향상방안 제안
- 의장은 아동 복지지표 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결론짓고 위원회는 향후 작업에 관해 사무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을 기대. 그는 회원국에게 상세한 의견을 사무국에 보내 줄 것을 요청
- OECD는 물질적 행복, 주거/환경, 교육적 행복, 보건,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 6개 분야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21개 지표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 제시
- 각국은 유용한 자료임을 인정하고, 유아(Early Childhood)에도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 현재, OECD사회정책국은 아동복지 측정과 점검을 위해, 아동복지 전문가 자문회의(2009. 5월) 및 Wikichild 프로젝트 등 수행

## ☞ 이 인실 통계청장의 발언 요지

-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중에 한국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음을 명시. 예를 들어 주택과 환경영역 중 “인구과밀”지표는 한국의 인구주택 센서스에서, 지역 환경조건은 한국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찾을 수 있음

## □ 기타 안건

- 위원회는 노르웨이 통계국장으로 14년간 근무하여 위원회에 잘 알려진 Mr. Svein Longva의 최근 사망을 유감스러움을 언급. 위원회는 또한 영국 대표단이자 통계위원회 의장단인 Mrs. Karen Dunnell의 조만간 은퇴를 언급하고 그녀가 몇 년간 위원회 활동에 기여한 것에 감사 표시
- 회의가 지연되어 의장은 회의장 보고서 발표는 그 다음주에 메일로 할 것임을 공지. 의장은 위원회의 차기회의는 신규가입신청국가에 대한 통계위원회 권고를 심사할 특별비밀회기가 2009년 10월 26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것임을 상기. 제7차 OECD 통계위원회는 2010년 6월 7-8일 개최 예정. 의장은 UNECE 사무국에 제6차 통계위원회를 흔쾌히 유치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회의 종료 선언

## 2) 제57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음저버 참석)

- 유럽통계기관장 제57차 정기회의는 56차 정기회의 요청(ECE/CES/74)과 2005년 정기회의(CES/2005/2)에서 채택된 회의와 이사회 활동 관리규약에 따라 소집
- 2009년 정기회의는 50차회의에 의해 2002년에 도입된 형식을 계속 준수할 것. 정기회의는 1개의 공식 회의와 2개의 세미나 포함. 공식 회의는 지역의 국제 통계활동과 같은 일반적 문제 검토를 다루는 한편 2개의 세미나는 통계제도의 기초문제와 새로 부상하는 문제에 초점

### (1) 개막연설과 안전채택

- 총회 의장인 Ms. Jeskanen-Sundstrom이 개회선언 및 UNECE 사무총장인 Mr. Kubis가 개막연설
- 제안된 잠정 안전과 시간표는 2009년 2월 이사회가 동의. 잠정안전은 총회 승인을 위해 제출

### (2)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상위기구 회의

- 유엔통계국 Mr. Stefan Schewinfest는 유엔통계위원회 2009회의(2009.2.24-27) 결과를 기관장회의에 소개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63차회의(2009.3.20-4.1)에서 있었던 토의와 회의 활동과 관련 되어 채택된 결의와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 다음은 UNECE 총회 결과 중 특히 기관장회의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임
  -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평가할 때 고품질과 국제적인 비교 통계의 중요성 강조. 이와 관련 지속가능 발전 측정에 관한 회의가 착수한

활동을 언급하고 지지

- 위원회는 현재의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엔 경제위원회 지역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을 권고
- 위원회는 정확한 이민 자료를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민 통계의 생산과 비교 증진에 있어 UNECE 활동을 언급
- 성 관점의 중요성 강조. 위원회는 UNECE는 그 성관련 데이터베이스 더욱 발전시키고 모든 UNECE 규범 활동은 이 성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 UNECE는 성별 통계 생산을 위해 독립국가연합과 동서 유럽국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 기관장회의 의장인 Ms. Jeskanen-Sundstrom(핀란드 통계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토의에 기여. 기후변화의 감시와 분석에 관한 통계 정보 제공에서 UNECE 지역 각국 통계기관의 중요 역할 강조. 이와 관련 UNECE 지역의 각국 통계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목록 집계 참여정도를 탐구하기 위한 기관장회의가 계획한 활동을 위원회가 지지. 위원회는 또한 기타 UNECE 부문별 위원회와 공동으로 교통, 에너지, 산림 및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가능한 활동을 탐구하기 위한 기관장회의 계획을 언급.

○ 총회는 위원회가 동의한 것처럼 UNECE 사무국이 활동 과정중 모든 사항을 사후관리 할 것을 요청.

### **(3) 전문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원칙과 정책관련 자료 생산을 위한 위임권의 조화에 관한 세미나**

○ 아일랜드 통계청이 주최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이란 측면에서 정책관련 자료 생산권한과 전문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해서 토의. 기본원칙은 통계는 관련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비용절감적인 방식으로 최고의 과학적인 절차를 사용하면서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생산될 것을 요구. 개별 통계결과 측면에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현재 통계 조직

내에서 잘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통계프로그램 그 자체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려는 목표의 적용에 대해서는 덜 주의.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출발점은 무엇이 공식통계를 규정하고 다른 통계나 지표와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함임.

- 전문적인 자율성에 대응되는 것은 공식통계 생산에 할당된 공적 기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 정부, 의회 그리고 일반 국민이나 납세자에 대한 책임임. 세미나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통계청과 기타 공식 통계 생산자 구분을 토의할 예정. 관련 문제는 공식자료의 정확성과 통계생산조직의 성실에 대한 일반의 인식 관리필요성임.

**a. 통계인과 정책결정자와의 관계 : 독립성 유지와 동시에 수요를 처리**

- 영국이 주관. 초청 논문은 호주, 캐나다, 칠레, 우크라이나, 영국 및 유로 스탠이 준비
-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토대
  - (a) 공식통계의 범위 규정 : 범위는 있는가? 누가 그 범위를 규정하는가? 무슨 기준에 따른 것인가?
- 공식통계에 대한 매우 협의의 견해는 그것을 경험적인 측정에 기반한 양적정보로 정책입안자의 명확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정확하게 상술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통계기관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한정. 현 정보시대의 현실은 대부분에서 매우 상이. 예를 들어 많은 공공기관은 그들이 관리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체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통계정보를 생산. 추가로 통계청은 자료출처 범위를 확대하여 질적 형태의 정보와 또한 추정이나 추계 모형에 기반한 자료도 포함.
- 그러므로 이 세션은 각국이 증명과 표지시스템에 관한 경험을 포함하는 공식통계를 규정하고 별도로 구분하려고 명확하게 시도해온 상황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둘 예정.
  - (b) 정책지지와 여론 정보에 대한 증대하는 수요 시대에 직업적 자율성의 유지: 찬성과 반대, 위험과 이점
- 통계청은 점차 그들의 역할을 단지 정책결정자의 수요만이 아닌 사회전

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정책 지지자와 이익집단은 그들의 사건을 제출하는 데 특히 공식통계라고 명칭이 붙어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 이런 환경은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늘어 난 수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엇이 측정되고 어떻게 그 결과가 제출되는 지에 영향을 미칠 것. 통계청의 지위와 역할은 보통 이러한 환경에서 향상 되지만 직업 자율성을 유지하고 편견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도전 또한 증가될 것.

**b. 공식통계의 생산을 넘어: 갈등은 피하면서 시너지 창조**

- 오스트리아가 주관. 초청 논문은 라트비아, 노르웨이 그리고 UNECE가 준비.
- 공식통계의 수집과 배부외의 기능을 다룸 : 추계와 시나리오 설계; 다수 이용자를 위한 행정등록 관리, 컴퓨터 센터 운영 등. 이 세션은 그런 활동에서 관여하는 통계청의 실제적인 사례를 고찰할 예정.
- 다음의 주제를 다룸
  - (a) 분석: 경제과 기타 분석; 모형화, 추정 및 시나리오 설계
  - (b) 공식통계 이외의 통계활동(예를 들어 여론 수집)
  - (c) 비통계활동 : 등록관리; 등록부와 통계와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의 이용; 선거절차관리; 컴퓨터 센터 관리 등.
- 주요 초점은 이러한 활동이 가져올 시너지효과와 잠재적인 갈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냐에 대한 것이 될 것

**c. 예산이상의 책임성: 공공의 기대 측정과 처리**

- 이 세션은 프랑스가 주관. 초청보고서는 스위스, 호주 그리고 불가리아가 준비
- 이 세션은 책임성과 같은 문제를 고찰할 예정-의회와 통계청의 관계, 통계사무고소의 공식지위, 예산독립 및 통계위원회와 이사회 의 여부.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통계청 평가에 대한 특정 사례 여부 그리고 통계청이 인식관리를 위해 어떻게 일반과 상호작용할 지에 대해 고찰 예정.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통계

기구들은 오류 있는 해석과 통계의 오용에 대한 의견 피력할 자격이 있음. 문제는 자료가 오용될 때 통계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d. 일반토의 및 결론**

- 아일랜드가 주관
- 일반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세미나 과정중 제기될 수 있는 권고안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에 초점

#### **(4) 기업체통계의 전략적 이슈에 관한 세미나**

- 캐나다 통계청과 유로스탯이 주관.
- 기업체 통계향후 직면할 두 가지 주요 도전에 관하여 구성. 먼저, 사업체에 대한 통계 부담의 지속적 감소 필요성 존재. 둘째 세계 시장의 강한 통합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세계화과정과 연계된 새로운 현상은 통계로 설명되어야 함.
- 응답부담을 줄이는 것과 보다 나은 통계에 대한 필요의 두 가지 도전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님. 새로운 자료 요구에 대한 반응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구 자료 수집을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 사용과 기타 기술 혁신을 통한 응답부담 경감과 양립할 수 있음.

#### **a. 응답부담 경감**

-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주관. 초청논문은 유로스탯, 포르투갈 및 슬로베니아가 준비.
- 이 세션은 응답부담을 더 줄이기 위한 전세계의 현재 노력상황을 강조하고 토의. 세션은 기업에서 정보 수집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 등록과 행정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 이것은 자료의 이질성과 그것을 수집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가 있을 때 기업체 조사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개념을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 응답부담경감은 2008년 9월에 빌니우스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계청 국장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 공식통계협회(IAOS)의 최근 회의에서 이미 토의. 이 세션은 확보 가능한 정보를 요약하고 다음 주제에 대해 토의 : 실제적인 것과 인식된 응답 부담간의 차별화, 응답부담과 통계 품질간의 상충관계, 조사에 대한 대체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과 이점.

**b. 기업체통계의 부상분야, 새로운 발전 및 사용자 필요**

- 이 세션은 프랑스 통계청(INSEE)가 주관. 초청 논문은 노르웨이, 스페인 및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준비. 기조연설은 미국 센서스국의 톰 메선버그 (Tom Mesenbourg)가 할 예정.
- 이 세션은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체 통계의 떠오르는 분야에서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조직이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을 확인하고 토의할 예정. 지난 십여 년에 걸쳐 경제와 기술 변화가 국가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을 세계시장에서 더욱 통합시킴. 이러한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음. 이와 관련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고 측정하기 위한 통계기구에 대한 도전은 엄청남. 이 세션에서 다룰 문제는 다음 주제에 관하여 기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적인 도전과 관련된 즉 다국적 기업구조와 활동, 사업과 혁신 전략 그리고 무형자산(예, 지식, 선의),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추세임.

**(5) UNECE에서의 국제통계활동협력**

- UNECE 지역에서의 국제통계활동 협력과 결정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회의가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권고와 관련.
- 기관장회의 의장단이 수행한 선택된 통계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검토에 대한 정보는 기관장회의에 제공. 심층검토는 향후 5년정도 통계의 전략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개념적이고 협력적 성격의 통계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

(a)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이사회가 행한 심층검토 결과

(i) 주택통계

- 이사회는 2009년 2월 주택통계의 심층검토 수행. 기관장회의는 토의 결과에 대해 통보 예정.
- 더욱이, 이사회는 국제적인 단계의 활동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럽 기관장회의 회원국가에서 주택통계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주제인가를 알아 볼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이러한 목적으로 사무국은 향후 국제 활동에 대한 우선 분야를 확인해 줄 것을 기관장회의 회원에게 문의. 기관장회의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주택통계에 대한 가능한 향후 활동을 토의.

(ii) 농림어업통계

- 이 주제는 2008년 10월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 이사회 결정에 뒤 이어 심층검토논문은 2009년 1월 서면 의견을 받기 위해 기관장회의 회원국에 배포됨. 기관장회의 이사회는 2009년 2월에 유로스탯 제안과 각 국과 국제기구의 의견을 토대로 UNECE 지역에서의 농업통계의 향후 활동에 대해 토의.
- 기관장회의는 검토 결과에 대해 통보회고 유로스탯이 마련한 UNECE 지역에서의 농업통계에서의 미래 활동에 대한 안건을 검토.

(iii) 노동비용통계

- 이 주제는 2008년 10월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 이사회 결정에 뒤 이어 심층검토논문은 2008년 12월 서면의견을 위해 기관장회의 회원국에 배포. 자문결과는 2009년 2월에 이사회가 검토.
- 심층검토 결과는 기관장회의에 제공

(iv) 통계 배포, 의사소통 및 공표에 대한 심층검토

- 통계 배포, 의사소통 및 공표는 2009년 10월 기관장회의 이사회의 심층검토 이전에 2009년 6월 기관장 정기회의에서 토의
- 토의목적은 통계보급, 의사소통 및 발간에서 국제활동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기여를 추구. 이 토의는 이 분야에서의 통계 조직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각 국 통계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통계조직과 국제기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함. 초점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부상하는 문제와 가능한 활동중복분야를 확인하는 것에 두어야 함.
- 토의결과는 2009년 10월 기관장회의 의장단이 수행할 심층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예정.

#### **(6) 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비공개 원칙**

- 통계자료통합의 비밀보호와 비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는 통계자료통합 프로젝트의 비밀보호와 비공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주석된 지침을 생산하기 위해 2007년 기관장회의 의장단에 의해 설치. 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그 원칙에 대해 토의. 의장단 결정에 뒤이어 그 원칙은 2009년 기관장 정기회의에 앞서 전자 자문을 위해 회원국에 송부될 예정.
- 자문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비공개에 관한 원칙은 승인들 받기 위해 기관장회의에 제출.

#### **(7) 송출국의 이민 자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민자료의 이용과 보급에 대한 지침**

- 이민추정에 대한 기관장회의 태스크포스가 송출국의 이민자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이민에 대한 자료의 사용과 보급에 관한 지침을 준비. 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그 지침을 검토. 지침은 기관장회의 의장단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됨. 의장단은 지침은 2009년 정기총회 이전에 전자자문을 위해 회원국에 발송할 것을 결의.

- 자문 결과에 따라 총회는 지침의 승인 요청 받을 것임.

## **(8) 범죄피해자조사 매뉴얼**

- 범죄피해자조사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은 범죄피해자조사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 총회 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그 매뉴얼에 대해 토의. 의장단은 매뉴얼이 2009정기총회 회기에 앞서 전자자문을 위해 총회 회원국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의.
- 자문결과에 따라 총회는 그 매뉴얼을 승인

## **(9) UNECE 통계 프로그램과 총회의 전문가팀의 활동**

(a) 통계프로그램 : 2008년 보고와 2009년 계획

- UNECE의 2009년 통계프로그램과 2008년 프로그램의 이해에 관한 보고서는 정보로 간략히 제시.

(b) 기관장 의장단회의 보고와 총회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팀에  
진척사항 보고

-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의 총회 의장단회의 보고서, 총회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팀의 진척보고서 그리고 2008년 6월 개최된 전문가회의 보고서가 정보로 제시.

## **(10) 2010년 정기 총회 세미나 주제 선택**

- 2010년 정기총회 기간중 세미나의 가능한 주제 목록이 UNECE 사무국에 의해 총회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정기총회에 앞서 배부. 의장단은 총회 토의와 승인을 위해 조사결과를 고려한 제안을 제출.
- 응답은 43개로 그 중 37개는 각국이, 6개는 국제기구가 응답. 의장단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2010년 총회 세미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안
- 통계시스템 기초에 관한 세미나

- 글로벌 위기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영향 : 사무국이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 결과
- 이 세미나는 글로벌 위기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도전 측면에서 경험 교류를 목표로 하고 글로벌 위기와 그 진화 측면에서 공식 통계 전체적인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
- 부상하는 문제에 관한 세미나
  - 공식통계의 지역통계와 지역의 역할
  - 세미나의 목적은 지역자료의 사용에서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교환하고 통계정보의 지리적 측면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 방안 토의

### **(11) 2009-2011회기 기관장회의 의장단 선거**

- 기관장회의 의장단의 모든 회원의 현 임기는 2009년 6월 10일 2009년 정기총회 폐막시 종료. 따라서 2009년 정기 총회에서 2009년 6월에서 2011년 6월까지의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단 선출.
- 전임 총회 의장이었던 Ms. Wallman가 제안한 차기의장과 부의장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총회 선출결과
  - 의장 : Ms. Heli Jeskanen-Sundstrom(핀란드) 현 의장
  - 의장단의 부의장 : Mr. Brian Pink(호주), Mr. Eduardo Pereira Nunes (브라질), Mr. Munir Sheikh(캐나다), Mr. Gerry O'Hanlon(아일랜드), Mr. Oystein Olsen(노르웨이), Ms. Irena Krizman(슬로베니아), Mr. Oleksandr Osaulenko(우크라이나)

### **(12) 기타 안건**

- 총회가 알 필요가 있는 추가적 주제는 이 안건 항 하에서 제기

### **(13) 보고서 채택**

- 총회는 폐회전에 2009정기회기 보고서를 채택. 이 보고서는 가능한 정기 회기중 총회가 채택한 결정으로 한정. 정기총회의 최종보고서는 정기회기 2주후에 나올 예정이고 UNECE 웹사이트에 게재.

1. 세계위기에서의 통계의 역할/28
2.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37
3. “한 눈에 본 정부” 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42
4. 스티글리츠위원회가 OECD업무에 갖는 의미/45
5. 환경통계/56
6. 사회발전측정 글로벌 프로젝트/58
7.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형성 : 사업 제안/62
8. 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OECD 역할/65
9. 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67
10. 아동 복지(웰빙) 측정/68
11.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보고/77
12. OECD 산업별 생산성 Database(PDBi)/79
13. OECD 확대 ; 회원가입 현황 보고서/83
14. 2007-2008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85

# 1. 세계위기에서의 통계의 역할 : OECD의 활동계획

STD/CSTAT(2009)1

## □ 세계 경제위기로 부터의 교훈

- 금번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경제위기와 사회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통계 해석방법의 재고가 필요

## □ 특정분야에서 통계가 지니는 의미

- (경제·금융통계) 금융 위기시 SNA는 금융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금융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시장가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통계당국의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필요 등이 요구됨
  - 아울러 다양한 금융·비금융 회계 개발과 함께 분야별 현상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지표 개발이 필요
- (사회통계) 과거 수년간 빈곤과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개발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단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움
  - 경제위기시 소득 뿐 아니라 부(富)에 관한 상태와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
  - 특히 사회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사회점검시스템(Social Watch System)의 개발이 필요
- \* 현 사회통계는 소득과 부의분배에 관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 주요 통계적 과제

- 금융·사회통계가 현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 행정자료 활용 확대, 추계방법 개발 등이 필요
- 경제위기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micro data에 대한 접근방법 연구가 필요
- 시장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이 필요
- 중립적인 통계작성 역할을 넘어 현실을 분석하고 적합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 통계당국의 주요 활동

-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 중
  - 주요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분기계정 개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 실시 확대, 행정자료의 활용, SNA의 적시성 향상 등
- OECD는 경제위기시 필요한 주요통계를 선정하여 2010판 OECD Factbook을 발간할 예정
  - 아울러 기존의 OECD 통계 웹사이트를 확장하여 경제위기시 이용 가능한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서비스할 예정
- 미국, 유럽 등의 분기별 국민계정 자료로부터 새로운 집계자료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이용가능성 확대

## 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

### 1) 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최근 금융위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시장전환국을 포함하는 세계경제 전체에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상황 파악 및 충격 정도 측정과 관련하여 각 국 또는 국제기구의 통계시스템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통계의 부족은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 원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 통계지표들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경제거래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지표로 만들어 그러한 거래상황을 파악하느냐 하는 것임
  - 예를 들어 파생금융상품의 국내외 거래, 외환 유동성을 포함한 금융자산, 부동산 거래 등은 투기적 요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경제거래의 개념, 측정방법, 지표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국제금융기구(IMF, BIS 등)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정되어 제시되어야 함
  - 새로운 금융거래 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들이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하나, 통계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지표로는 그런 경제거래의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통계 지표와 연결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제거래 경험이 많은 국가(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작성사례를 소개하고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속보지표 및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 통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위기 극복에 공헌하려는 국제기구들의 노력은 가치 있다고 할 만함
- 일부지역 또는 일부국가에 한정하여 발생한 경제위기라도 위기의 단서가 될 만한 경제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국가에서 통계지표 작성을 시도하고, 개념, 자료수집, 지표작성 등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여 향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국제기구에서는 각 국의 다양한 위기 극복 경험을 축적함과 아울러 관련 문서(통계지표+사례분석)를 각 국 통계담당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지속적으로 통계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작성자: 지역경제통계과 황해범 사무관 479-5651)

## **Issues on the role of statistics in global economic crisis**

The recent economic crisis is unique in that the global economic system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in-transition countries is being affected by the recession.

The role of the statistical system, with respect to analysing current situations and measuring the impacts, is being challenged and questioned. However, the shortage of related statistics may be a partial reason fo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 top priority must be given to how we measure economic transactions that are otherwise rarely captured by the existing economic indicators and compile them into indicators to analyze them. For example, national or international trade of derivatives, monetary assets with foreign exchange liquidity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strong tendencies to increase or decrease more globally due to their speculative features.

We need specific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concepts of the above transactions and for the methodology of measures and indicators involved with these, and they should be launched and guided by international (monetary) organizations such as IMF and BIS.

While policy makers have been endeavoring to monitor newly emerging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oducts, relying on incomplete indicators beyond the standards on statistics compilation has strong possibilities of encountering various limitations in profiling the trends of them and in analysing the impacts on the economy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economic indicators.

We recommend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Europe and Japan that possess a multitude of experience in these transactions, provide beneficially related practices and produce flash indicators and indicator systems that are related to them.

With focus on the role of statistic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ade contributions to overcom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ir efforts deserve to be recognized.

We recommend that, even if an economic crisis is confined to a nation or a region, incumbent countries construct the statistical indicators for the related economic transactions and prepare manuals for concepts, data collection and indicator compilation of them in order to proactively deal with possible future crisis.

Also, we recommend th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chive each nation's experiences and practices about crisis strategies, as well as disseminate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indicators and analysis reports that the statistical organization of other countries can utilize. We believe a series of these activities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tatistics.

## 2) 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 통계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

- 금번 경제위기에서 나타났듯이 특정국가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급속히 전염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

### ○ 자료의 이용가능성 확대

- 많은 원시자료를 통해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와 공유를 통해 사장되어지는 자료의 다양한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 통계정보 이용시스템의 정비

- 통계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각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통계정보를 표준화된 모듈에 따라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필요

(작성자 : 통계정책과 binhyunjun 사무관 481-2524)

### 3) 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각국 통계청의 통계개선 사항 관련

- 다양한 제도 부문의 즉, 가계의 자산 가격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
  - 한국의 경우 특히, 가계 부문에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하는 적절한 주택가격 지표가 없어서, 주택가격 하락폭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 제도 부문에 의한 주요 거시 변수를 위한 분기 계정을 개발하는 것
  - 한국은행에서 주요 거시변수를 위한 분기 계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1개월 후에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음
- 분포의 변화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빈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 소득과 부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를 수집하는 것
  - 한국의 통계청에서 ‘금융위기의 통계에 대한 합의’ 문서의 page 10에 각주 5에 언급된 것과 달리 가계의 소득에 대한 조사는 1년마다 조사하고 있음. 또한, 가계의 자산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조사하고 있음
- “다차원” 측정의 개발을 통해, 가구 소득만을 기반으로 하는 빈곤의 정의를 재정의 하는 것
  -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빈곤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가구 소득과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빈곤의 정의를 위해 “다차원” 측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후 적용할 예정임

- 짧은 기간 안에 적절한 정책 이슈의 주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접근을 향한 재 작성된 사회 조사 (예를 들어 노동력 연속 조사) 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 한국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력에 대한 연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지역에 대한 추정도 연구 중에 있음

- “가치 사슬(value chain)”의 변화와 세계화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

주) 가치사슬: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

- “가치사슬”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우선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생산측면에서 최종 부가가치만을 측정하고 있고, 기업내부 또는 기업간 부가가치 생성되는 과정의 변화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검토할 예정임

(작성자: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정규승 사무관 717-0220)

## 2.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

STD/CSTAT(2009)2

- 이 보고서는 토론을 위하여 IMF가 제공. 금융 및 경제 위기로 부터 나타난 정책 과제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 개발 또는 현존 자료 수집 및 편집 과정의 재편을 요구. 토론은 OECD와 기타 국제기구가 제출한 제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
  
- 주요 내용은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제 지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현재 경제 위기에서 나타난 집중할 분야
  - 1) 금융 영역
  - 2) 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
  - 3) 주택가격과 주택관련 자료
  - 4) 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를 집중할 분야로 인식하고 지표별로 자세히 설명
  
- 최근 경제 및 금융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진보.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실물 및 금융자료의 보다 높은 적시성과 빈도를 구할 수 있도록 전통적 통계 생산 과정을 뛰어 넘을 과제와 자료요구를 고지하는데 국제 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

# 세계 금융위기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통계에 대한 의견

## 1) 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통계의 미비가 원인은 아님
  - 통계를 통해 위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음
  -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물과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표가 개발될 필요
- 예를 들어, 금융·외환·원자재·부동산·고용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중심으로 위험수준을 지표화 한다면 경제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위기의 크기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기회복에 필요한 정책규모 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위기 이후를 대비한 Exit Plan의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
  - 금융·경제 상황이 정상궤도에 근접할 경우에 대비해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등이 필요하나, Exit Plan의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음

(작성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민경신 사무관 02-2150-2734)

The roots of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lie outside the realm of statistical insufficiencies and can be traced to the global financial sector which has severely impacted the real economy.

We are able to analyze an economic crisis by using statistics bu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dentify a crisis in order to prevent it from occurr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broad composite indicators which cover the financial market and real economy so that we would be able to precisely recognize a future economic situation.

For instance, if the status of a crisis in an influential economic dimension such as finance, foreign exchange, natural resources, real estate and employment were to be measured and compiled into indicators, those indicators would be very helpful in proactively recognizing a critical economic situation.

We believe that indicators of the status of crisis can assist us in grasping the size and speed of a relevant crisis and determine the scale of necessar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prepare for a crisis, an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precisely recognize the time frame in which an exit plan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management of the post-crisis.

In addition, an increase of interest rates and absorption of liquidity are required for the financial and economic situation to get back on track. If we are unable to implement a timely exit-plan, another financial crisis is likely to emerge again.

## 2) 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금융위기의 통계적 중요성

### ○ 금융위기 영향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성

- 2008년 여름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음. 다만,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의 하락과 환율상승으로 2009년 3월에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특징을 가짐

### ○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주택가격 지표 개발의 필요성

-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가격 상승시기에는 필요성이 적었던 '실제 주택 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뒤늦게 개발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황임

### ○ 금융위기에 의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정책적 해소방안의 문제점

- 최근 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상위층의 자산손실을 거의 만회한 반면, 저소득층은 자산손실분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금융위기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투기시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 하지만, 유동성을 흡수하기에는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작성자: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정규승 사무관 717-0220)

## **Korea's distinctiveness in the impact of financial crisis**

Korea has been engulfed in a financial crisis which started in the summer of 2008. However, from the second half of 2008, Korea hit a historically high record in the current account of March 2009, largely due to the decrease of oil prices and rise in the Korean exchange rate from March 2009, but the performance is being assessed as a 'depression-type black ink' due to the bigger reduction of imports than exports.

## **Necessity for developing indicators to properly represent market prices**

Residential property prices had steadily increased prior to the financial crisis, but have since plunged. The decrease of housing prices triggered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represent the "actual house transaction prices", which were necessary during the price increase period. However, the indicators of actual house transaction prices are insufficient to accurately reflect the Korean housing market trend.

## **Difficulties in policy-making for reduc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erived from the crisis**

Recently the high income layers have recovered most of their asset losses with rises in stock prices and real estate prices; while the low income layers remain mired in property loss.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resulted from the banking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control overflowing liquidity from streaming into the speculation markets, but had difficulties in creating efficient policies as the actual economy is not conducive to absorbing liquidity.

### 3. “한 눈에 본 정부” 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

STD/CSTAT(2009)3

- 이 보고서는 2009년 발간 예정인 정부 개관의 주요 내용인 배경, 수입, 투입, 과정의 지표 설명과 작성 상 어려움을 1) 정부활동과 생산범위의 측정과 비교 2) 생산성과 효과성 측정으로 나누어 내용을 소개
  - 정부활동을 수량화하고 측정함은 관리자나 지도자에게 보다 나은 정책결정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 보고서의 목적은 1) 정부활동의 범위 정의, 국제비교 관점에서 투입, 산출, 성과의 양과 질에 대한 지표의 식별과 측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과제를 설명하고 2) 국제기구와 각 국 통계청이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공동 작업을 할 분야를 알기 위한 것임
- 정부개관은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OECD가 자체의 DB 및 ILO DB 등을 활용하여 가공한 자료로 SNA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
  - 기본 자료의 국제비교성은 정부 개관의 핵심으로 SNA 자료 분류 기준을 사용
- 사무국은 1) 보고서에 주목 2) 사무국이 강조한 측정문제 토론과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 제안 3) 향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

---

## ‘한 눈에 보는 정부’ : 정부지표 측정 문제

---

-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에서 정부지표 측정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와 각국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기초자료의 수집임
  - 먼저, OECD의 동 프로젝트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SNA에서의 규정한 공공부문(= 일반정부 + 공기업)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공공재를 생산하는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 통계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통계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임
  - 또한 동 프로젝트는 일반정부의 기관별 자료, 레벨 1과 2 수준 의 정부기능별 분류(COFOG) 자료, 일반정부의 공급-사용표 등 많은 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행히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OECD가 요구하는 개념에 부합하는 국민계정자료를 대부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OECD의 동 프로젝트가 향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지표의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여, 이에 따라 OECD는 각국 통계제공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에 우선 순위를 뒤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작성자: 한은 국민소득팀 조병수 02-759-4289)

As the OECD report pointed out, I entirely agree that the most challenging issues of the OECD's 'Government at a Glance' project are to prudently define the government domain reasonably and to collect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and comparative data from individual countries.

Firstly, the government domain in the OECD project includes the public sector defined in the SNA, which consists of the gener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funded by the general government to produce public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significant gap between this OECD definition on government domain and the statistical circumstances of Korea in which we are unable to compile public sector data at the present.

Secondly, the project requires large amounts of data for the institutional sectors of the general government,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COFOG) level I and II data, supply and use tables of general government. But fortunately, I think that through some supplementary surveys, the Bank of Korea can provide Korean national accounts data, which mostly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OECD project.

Finally, I think that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government indicators is key to the success of this OECD project. Consequently, I think that the OECD should give a top priority to the education of data providers in national statistics offices.

## 4. 스티글리츠위원회가 OECD업무에 갖는 의미

STD/CSTAT(2009)4

### □ 배경

- 전통적 경제측정 지표인 GDP가 국민의 삶의 질 및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구성. OECD 또한 이러한 논의발전에 동참

### □ 주요 이슈

- 전통적 경제지표 GDP
  - 일정 기간 동안 화폐가치로 생산된 재화나 교환된 서비스의 최종가치의 합으로, 물질적 삶의 수준만 표현하고 삶의 수준 전체를 표현하지 못함
- 삶의 질
  - 지표요소가 물질적인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건강, 교육, 여가활동, 정치적 자유, 환경조건 등과 같이 다차원적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
- 지속가능한 발전
  - 웰빙의 동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웰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모두 고려. 환경문제가 우리 삶의 질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환경과 경제를 통합해 지표화

### □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핵심 보고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

-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주요 연구내용

-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국민계정 보완에 적합한 변수 탐색 작업  
(예: 생산보다는 “소비”를, 경제전체 보다는 “가구”에 초점)
-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측정방법 연구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핵심 사업

○ 글로벌위기시대와 스티글리츠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활동 성과를 단순 반영하는 기존 GDP를 넘어선 새로운 GDP를 연구개발 중인 스티글리츠위원회의 활동에 주목
- 스티글리츠위원회의 활동은 OECD의 “사회발전측정 글로벌프로젝트”와 밀접. 이와 관련해 OECD는 향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특별전문가 그룹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의견

### 1)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의 측정

- GDP(국내총생산)는 생산활동이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의 측정치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 Stiglitz Commission의 보고서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음
  - 동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GDP의 한계,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 문제는 93 SNA하에서도 GNI, NNI, NDI 등 다양한 소득지표를 이용하거나 환경경제통합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 문제임
  - 또한 삶의 질 및 후생은 심리적·환경적 요인, 사회적 균등, 부(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국민계정의 틀에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지표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GDP 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Stiglitz 보고서의 권고사항중 국민계정체계하에서 실행가능한 사항을 선별·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 작업은 OECD의 '사회진보 측정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작성자: 한은 국민소득팀 조병수 02-759-4289)

It is well known that GDP is a useful tool for measuring production activities and economic conditions, while it has the limits as an indicator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ith this in mind, I think that a portion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Stiglitz Commission reiterates previously identified information.

Actually, the key issues that the report points out, such as the limits of GDP, sustainable growth and environment,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by using various income indicators like GNI, NNI and NDI or compiling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within the 1993 SNA.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quality of life or well-be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NA, because quality of life(QOL) is determined by such factors a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equality, and wealth.

However,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economic indicators and general perceptions as well a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GDP statistics, it is necessary to review some feasible issues selected from the recommendations of the Stiglitz Commission.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commit this work to 'the 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of the OECD so as to avoid duplication of efforts.

## 2)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의 측정

### □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

- 최근의 경제위기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볼 때, 이 과제가 21세기 지구촌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에 시작된 본 계획은 시의성, 적절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행복, 사회발전, 삶의 질, 웰빙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임.
- “사회발전 측정”이라는 OECD의 야심찬 계획이 조직구성, 추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음. 업무진행 체계도 매우 효과적으로 판단됨

### □ 한국의 관심 및 관련 활동

- 한국에서도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노력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됨
- 2008년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이라는 사회보고서(social report)를 개발하였고, 향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로 발간할 예정임
- 또한 2009년 4월에 국내에서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korean social trends and quality of life)”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국내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음
- 특히 올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

에서도 사회발전, 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임

-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OECD 사회발전 측정 연구결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체계를 반영하여 사회지표 체계개편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 예정

(작성자 :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이희길사무관 717-0236)

## **Appreciation of the ongoing project**

The recent economic crisi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that we regard as a very timely and core issue in our global society of the 21<sup>st</sup> century.

This initiative, launched with timeliness and suitability in 2008, needs more attention and it is a good indication that the issues such as social progress,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concern us again.

The measurement of social progress, an ambitious project of the OECD, is proceeding without delay in structuring its organization and work procedure. We consider its systemic work process very efficient.

## **Our concerns and activities**

The efforts to measure social progress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from OECD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and the relevant researches are actively under way.

We published 'Korean Social Trends 2008' for the first time in 2008, and we have a plan to produce the social report annually. In addition, the national symposium entitled 'Korean social trends and quality of life' for domestic sociologists was held in April of 2009 with the assistance with the KNSO.

The coming 3<sup>rd</sup> OECD World Forum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focus more attention on social progress and quality of life.

We continue to monitor the reports of CMEPSP and the results of the OECD social progress measuring project, and we are scheduled to implement research for the revision of the social indicator system dependent on the outcomes.

### 3) 스티글리츠위원회

#### □ CMEPSP와 OECD global project의 비교

- 스티글리츠 위원회(CMEPSP)와 OECD global project의 관심영역을 보면 개인 차원의 웰빙(혹은 삶의 질), 사회제도적 환경, 지속가능성(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유사함
  - 두 계획 모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웰빙 보장에도 관심을 지니고 있음(지속가능성)
- CMEPSP와 OECD Grobal Project의 연구는 상호보완적이고, 또한 협력을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임

####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다만, EU의 사회지표 체계(Berger-Schmitt and Noll, 2000)에서 제시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개념과 같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논의도 체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
  - CMEPSP의 삶의 질 접근에서는 환경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어 사회전체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사회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 그리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 측정에 대한 관심 필요

(작성자 :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이희길사무관 717-0236)

## **Comparison of CMEPSP and OECD Global Project**

Both the CMEPSP and the OECD Global Project have common concerns in the areas of personal well-being (or quality of lif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 and focus on them.

These two initiatives are also concerned with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current generation in the context of sustainability.

We anticipate that the research of the CMEPSP and OECD Global Project will provide a complementary cooperation guidelin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 **Recommendation for further review**

We need to systematically refer to the discussions about quality of society that are in line with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proposed within the social indicator system of the EU (Berger-Schmitt and Noll, 2000).

The CMEPSP's approach to quality of life is more involved with the environmental dimension in that it seems to have more personal perspective than societal perspective.

Also, we need to specifically elicit concerns with respect to social exclusion, social solidarity, and social capital.

#### 4) 스티글리츠위원회

- 삶의 수준에 대한 통계 측정방법과 개인인식 간 괴리감이 갈수록 증대. 이에 다양한 차원의 지표를 개발중인 스티글리츠위원회의 연구방향성과 OECD의 '사회발전측정 글로벌프로젝트'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
  - \* 이에 우리청에서도 2008년 건강·교육·안전·가족 등 10개 영역에 대해 80개 객관적 지표와 27개의 주관적 지표를 가진 '삶의 질' 지수 개발
  
- 에너지부족과 기후변화가 우리생활에 미칠 영향은 더욱 지대해질 전망. 이에 따라 향후 '사회발전 측정지표'로써 환경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및 개발할 필요성 있음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제도, 환경 중 특히 환경이 중요 요소가 돼야하며, 더불어 'GDP', '삶의 질'과는 달리 미래세대문제 까지 고려돼야 함.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촉구는 당위적
  
- 현재, 새로운 GDP를 개발하기에 앞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회의 다양한 자본(예: 자연자원, 인적자본 등)의 실질적인 측정이 어려운 상태. 이에 향후 설치될 OECD 특별전문가그룹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자본에 대한 구체적 시산방법에 관해 공동연구해 나가는 방안 검토

(작성자: 정책과 빈현준 사무관 481-2524)

The gap between the statistical measure of living standards and people's perceptions about them appears to be more pronounced today than in the past. In order to cope with this phenomena, CMEPSP is developing indicators which may provide a better description of the various dimensions of well-being. We enthusiastically support the object and direction of this CMEPSP' research and OECD-hosted 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The KNSO developed indicators for 'Quality of Life ' in 2008 to join the trend of the latest OECD. The indicators for 'Quality of Life ' are made up of 10 factors that can be measured through 80 objective and 27 subjective forms of data.

Lack of energy resources and climatic change will have a dramatic effect on our lives in the future. To face these matters, it is necessary for the OECD to develop indicators on natural environment for gauging sustainabi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Sustainability can be approached by three directions; individual, system and environment. However, the environ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m. At the same time, sustainability is considered a part of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unlike 'GDP' or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present generations are urg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future generations.

Now, we have difficulties in the material measurement of a variety of social capital that has to precede the development of a new GDP as a comprehensive concept of "sustainable and equitable well-being". It is time to thoroughly examine the joint plan in which OECD members research concrete calculation methods of the social capital together in ad-hoc expert groups and task-forces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 5. 환경 통계

STD/CSTAT(2009)6

### □ 환경통계에 대한 OECD 작업

- 사업의 전반적 목적은 환경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시키고 OECD 회원국 환경자료의 핵심 세트 형성,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OECD 분석 및 정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사실적 자료 제공
- 그 동안의 주요 성과
  - OECD 환경자료(84)와 지표(91)의 정기 발간과 92년부터 국가 환경 성과 검토에 이 자료의 체계적 활용 및 발간
  - 물질 흐름 회계와 자원 생산성을 포함하는 환경 지표 및 회계에 대한 공통의 개념 및 방법 개발
  - 국가별 활동을 안내하고 공통 접근법을 신장하기 위해 국가별 환경 정보시스템 평가
- 자원과 환경에 대한 OECD 정보시스템(SIREN)
  - 자료는 분석 및 평가 사업에 사용되며 환경지표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 이 과정은 주요 자료 품질 이슈와 정보 격차에 대해 국가에 정기적 피드백 제공
- 환경상태에 대한 질문지(SoE)
  - SoE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의 최선의 자료 수집과 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하여 환경이슈에 대한 정보 사업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임
  - 질문지는 점차 환경자료의 조화와 종합 수집에 대한 국제 참고서가 되었으며 국가 환경정보 시스템 서치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

## □ 환경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OECD 활동 계획

- OECD는 WGEIO 사업 착수하였고 초점은 1) OECD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료 2) 국제적 조화 및 비교성, 적시성, 연계성, 투명성과 해석가능성임
- 주요 품질 목표는 현존 자료의 품질 강화와 개선, 격차를 채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 품질개선을 위한 회원국 지원, 비용 효과적인 도구 및 과정 증가임

## □ 최근 개발 및 향후 계획

자료 품질 행동 계획에 따라 WGEIO는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을 정립하는데 합의하여 다음 사항을 계획

-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를 위한 자료 품질 개선
- 자료 수집 빈도 검토, SoE 질문지 단순화 및 재설계, 타 국제기구 자료의 활용 최대화로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 자료 수집 빈도 검토
  - 질문지 단순화 및 재구성

## 6. 사회발전측정 글로벌 프로젝트

STD/CSTAT(2009)7

### □ 프로젝트 구축 및 그 동안의 사업 활동

-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 환경,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 그 동안의 주요 사업 활동
  - (조직구축) 프로젝트 공식 출범\*과 관리구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 '08.7월 공식 출범, '09.1월 조정그룹(CG) 구성, '09.5월 프로젝트팀 구성
  - \*\* 국제 및 국가 기구간 네트워크 운영 (파트너, 협력자, 관계자로 구성)
  - (활동) 웹사이트 및 ICT 개발, 사회발전 측정 교육, 매뉴얼 작성 등

### □ 제3차 세계포럼에서의 활동 계획

- (의의)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발전의 측정을 위한 새로운 자료와 지표를 토론하여 향후 계획추진의 토대가 됨
- (활동) 「부산 로드맵」 선언, 지표 측정과 측진을 위한 ICT 도구 전시 및 웹사이트(Wiki) 공식 발족, 사회발전의 통계적 측정과 지표에 대한 각종 세션 및 조정그룹(CG) 특별회의 개최

### □ 2010-11 주요 사업 계획

- 인적 네트워크 통합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 Wiki사이트와 ICT 도구 활용, 커뮤니티 회원의 지속적 참여 유도

- 발전측정법에 대한 최적의 지침 개발
  - 발전측정 지표, 측정을 위한 통계기준, 지표의 품질 등에 대한 지침
- 발전측정의 홍보 및 소통을 위한 통계적 ICT 도구 개발
  - 통계와 각종 정보를 저장·공유하는 ICT 도구와 웹사이트 구축
  - \* Wiki사이트는 통계자료 및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제공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 프로젝트의 지속적 확대와 성과 공유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Wikiprogress(다목적 웹사이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통계적 측정방법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연구 요청
- 프로젝트의 연구사업과 타 주요 국제통계사업과의 관계 강화

## 사회진보 측정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 □ 제3차 세계포럼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 사회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문화의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가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함
- 제3차 세계포럼이 사회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각 국가 및 국제기구가 지표 개발과 측정에 대한 참여 결의를 표명하는 장(場)이 되도록 성과물 전시 및 세션 개최 등을 적극 지원

### □ 「사회발전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참여

- 사회발전 지표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사회발전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참여

- 네트워크의 적절한 구성원(파트너, 협력자, 관계자)으로 참여

- \*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재정지원, 공동연구 등 그 역할 및 참여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참여주체(통계청, 통계개발원, 민간기관 등)에 대한 협의 필요

(작성자: 정책과 빈현준 사무관 481-2524)

## **Support the OECD global project via the 3<sup>rd</sup> OECD World Forum**

The progress of society is a new political and cultural paradigm in the context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nd the glob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advance and share it.

The KNSO will do it its utmost in assisting subsidiary exhibitions and sessions so that the 3<sup>rd</sup>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progress and an arena for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express their resolution for participation in developing and measuring relevant indicators

## **Participation in the network of the 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The KNSO is going to be part of the network of the 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to coincide with the global effort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rogress indicators.

- Participation as an appropriate constituent - as a partner, an associate or a correspondent - in the network.
-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the role of the KNSO with reference to participating type and entities.

We can be a financial supporter or a common researcher and the potential participating entities can include the KNSO, th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or private sector.

## 7.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형성 : 사업제안

STD/CSTAT(2009)8

- 2008. 11월 이탈리아에서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온 결론은
  - 점증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최고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
  - 이 방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며 견고성은 가정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해 검증 가능
  - 총별 인구 자료에 바탕을 둔 능률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에 확장 가능
- 정기적인 측정을 하는데 사용될 핸드북 발간을 목표로 통계청과 콘소시움 구성 제안
  - 참가 후보국 :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중국
  - 의장 : OECD 통계국 부국장을 내정
  - 활동기간 : 12개월
- 대표단은
  - 1) 제안에 대한 note
  - 2) 사업의 폭과 방향에 대한 코멘트
  - 3) 콘소시움 참가의사와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을 희망

##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의견

- 인적자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중 하나로 이를 일관성 있고 국제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측정하려는 OECD의 시도를 높게 평가함
  - OECD의 인적자본 측정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할인된 평생소득 접근법’(discounted life-time income approach)은 실행 가능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 또한 SNA 체계하에서 전통적인 경제계정과의 연계성 모색, 인적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자료의 식별, 핸드북의 발간 등 인적자본 측정 프로젝트의 방향 및 계획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동 프로젝트가 향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함
  - 동 프로젝트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의 인적, 물적 제약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OECD 활동을 간접 지원할 것을 약속함

(작성자: 한은 국민소득팀 조병수 02-759-4289)

I highly appreciate the effort of the OECD and their endeavor to measure human capital, which is one of the main determinants for sustainable growth, through a consistent and internationally comparative method.

I think that 'the discounted life-time income approach', which appears to be one of the basic approaches of this project, is a very sound method from the point of feasibility and usability. Furthermore, the direction and blueprint of this work, such as finding the 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framework and conventional economic accounts under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identifying necessary data for human capital accounts and publishing a handbook, seem to be very appropriate. I hope this project will be a huge success and thrive in the future.

Regarding the participation in this consortium,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Bank of Korea cannot join due to the constraint of personnel and budget. However, we pledge to support the OECD's work indirectly with continuous interest and necessary data.

## 8. 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OECD 역할

STD/CSTAT(2009)9

### □ 자료와 메타자료의 공유 : **SDMX**의 이용

- SDMX는 국가기관과 국제기구간, 국가 통계시스템내 그리고 기구내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공
- 주요 목적은 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을 촉진, 기술과 표준의 효율적인 사용, 국가 기관의 보고 부담 경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유용성 향상에 있음
- SDMX의 적용 이점은 이러한 표준을 이용하는 기구수와 협력하여 DSD를 개발하고 역량증진 활동을 지지하는 국제통계커뮤니티의 역량에 비례

### □ 소프트웨어 공유 : **OECD**통계정보시스템

- 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 요소를 발전시키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모든 국제기구가 사용토록 하는 것임
-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생산, 저장 및 보급과정을 관리하는 OECD 통계정보시스템의 세 주요 요소(StatWorks, MetaStore 그리고 OECD.Stat)는 기타 국제기구와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임

□ 소프트웨어 공유에서 OECD의 경험 : 찬반양론

- 국제기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이 그 명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구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 국제기구와 국가통계기관이 개발한 기타 소프트웨어

- OECD외에도 여타 국제기구들도 개별적으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에 기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유하나 이들은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기보다 특정 단계의 통계자료 처리과정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
  - PC-AXIS(스웨덴 통계청), 자료플랫폼 소프트웨어(세계은행), DevInfo(UNICEF)
- OECD에서 개발중인 시각화 도구
  - OECDExplorer(웹기반 인터페이스), Data Mapper(양방향 자료 시각화 도구), Gapminder/Trendalyzer(통계의 애니메이션용 소프트웨어)

□ 통계위원회에 요청사항

- 보고서를 주목
- 이 분야 특히 통계청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소프트웨어 공유 전략에 대해 OECD가 취한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 향후 방향에 관한 지침 특히, 관리 측면에 관한 지침 제공

## 9. 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

STD/CSTAT(2009)10

- 일부 국제기구가 자료 공표에 대한 새로운 도구와 솔루션을 개발한 한편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자료공표와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진행 중
- 현 세대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 이해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능의 제공이 있었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에서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장기 과제임.
- 국가통계서비스(NSS)를 이끄는 호주통계청(ABS)의 통합된 통계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 개발은 초기 단계임
- NSS의 개념은 1) 일련의 합의된 통계 틀, 기준, 정책과 자료출처의 통합 2) 공식 통계의 통합과 객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정부, 시장, 사업체, 및 사회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공유된 가치와 관련 행동 강화임
- ABS는 하나의 NSS 사업을 선도하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통계 기반과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 성공을 위해서 유연한 구조와 풍부한 도구가 필요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장려
- 이보고서는 주제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ABS는 관심 여부에 대한 각국의 견해 표명을 환영

## 10. 아동 복지(웰빙) 측정; OECD 보고서 교훈

STD/CSTAT(2009)11

- 각국 정책입안자들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아동소득빈곤 지표, 교육보건지표 등은 다른 아동 관련 측정 성과들과 더불어 아동 삶의 질 평가에 활용
  - ※ 아동은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
  
- OECD 회원국 아동 복지 개요
  - 물질적 행복, 주거/환경, 교육적 행복, 보건,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 제시
  
- 아동복지 분석
  - 아동복지란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된 측정 방법은 현재 없음
  - 복지는 다차원 개념으로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지표로 구성
  - 아동에게 직접 그들의 복지에 관해 물어보는 방법
  - 현재 아동복지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단면을 아우르는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하나, 미성년자 빈곤 또는 물질적 박탈과 같은 물질적 측면이 결여
  - OECD보고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이며 정책적으로 유용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작성
  - 아동복지에 관한 국제비교 시도는 UNICEF 아동 복지보고서가 대표적으로, 다차원 지표 접근법 이용

○ 아동 복지지표 선정

- 6대 부문, 어린이 삶의 질 측정을 위해 물질적 행복, 주거/환경, 교육, 건강(또는 보건), 위험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 6대 부문 선정
- 지표 선택; 6개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지표를 선별

○ 현재, OECD 사회정책국은 아동복지 측정과 점검을 위해, 아동복지 전문가 자문회의 (2009. 5월) 및 Wikichild 프로젝트 등 수행

- 아동복지 전문가 자문 회의; OECD, UNICEF IRC, EC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며, 관련 정책 점검을 위한 자료 셋 개발이 목적. 아동복지와 관련된 개념,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
- Wikichild; 위키차일드는 아동 복지 연구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온라인 허브로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09 아동 지표 회의 (International Society for Child Indicators, 2009, 11월)에서 공식 착수 예정

## 아동 복지(웰빙) 측정에 대한 의견

### 1) 아동복지측정

#### □ 하위지표로 가족 관련 지표의 포함

- 아동복지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한다. 부모의 취업정도, 가구소득 등 가구 관련 지표가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의 Children's Well-Being 하위 21개 지표 중 가구와 관련된 지표는 2가지로 제시되어있다(가구평균소득, 가구평균소득의 하위 50%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또한 21개 하위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구 관련 지표와 다른 지표간 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가구 관련 지표는 다른 지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특성 및 가구형태(가구구성원 수,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한부모, 조손가정 등) 등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관련 요인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광의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생산이 필요

- 현재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생산현황을 살펴보면('참고.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련 통계현황'), 요보호 아동에 초점을 맞춘(협의의 아동복지적 관점) 입양, 보호, 학대, 가정위탁, 장애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같은 통계만이 생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는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있지만,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 UNCRRC의 Children's Well-Being지표에 Culture & Leisure 관련 지표 추가

- 아동의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위해 아동의 문화와 레저 생활, 시간사용 등과 관련된 지표의 추가를 권장한다. 참고로 국내의 삶의 질 관련 지수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캐나다의 웰빙지수 : 생활수준, 시간사용, 건강, 생태계, 교육, 공동체 지속, 시민참여
- 홍콩의 삶의 질 지수 : 사회문화, 경제, 환경
-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교제/관계
-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 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 안전,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적/정신적 안녕(김신영 외, 2006)

(작성자: 사회복지통계과 유민정 주무관 481-2596)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well-being must cover both children and their household because children's well-being is affected by household-related factors such as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forms(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parental employment, single-parent and two-parent household, grandparent-grandchild household, etc).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lude such factors in the children's well-being indicators framework.

The KNSO produces children's well-being statistics on children ages 10-18 including children in need but such work is not related to overall efforts to improve the social system which affects child welfa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the children's welfare statistics in a broad sense for all children(children in need,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under age 9).

We recommend that a culture & leisure-related indicator should be added to the children's well-being indicator of the UNCRC.

## 2) 아동복지측정

- OECD국가의 어린이 복지 지표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이 보고서는 무엇이 어린이 복지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실천적인 해답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 통계청은 OECD가 UNICEF의 어린이 복지 측정 지표 대신 왜 새로운 지표 체계를 필요로 하는지 질문하고 싶다. OECD와 UNICEF 지표 체계는 6개 영역 중 4개 영역이 실제적으로 동일하다: 물질적 복지, 교육 복지, 건강과 안전, 위험행동. 단지 OECD 체계 중 두 영역(주택과 환경 및 학교생활의 질)만이 UNICEF와 다를 뿐이다. 그러나 30개 OECD 국가의 어린이 복지 순위표(표1) 및 어린이 복지 지표들간의 상관관계 결과(표5)를 보면, 물질적 복지와 주택과 환경영역은 국가별 성과결과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영역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빈곤한 어린이일수록 열악한 주택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열악한 지역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OECD 지표들이 매우 정책적 관점에서 만들어 졌고 어린이 복지의 또 다른 측면을 보도록 만든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좋은 지표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또 다른 의견은 어떻게 자료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린이 복지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자료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간의 개념정의와 범주들을 일치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지표체계 중에 두 영역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한국이 이미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OECD가 적합한 자료원을 알려주었다면 충분히

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환경 영역 중 "인구과밀"지표는 한국의 인구주택센서스에서 지역환경 조건은 한국의 주거실태 조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OECD 어린이 복지지표는 지표체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 토픽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료수집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학교생활의 질을 괴롭힘과 학교좋아하기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 좋아하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매우 간단한 지표이지만 조사마다 물어보는 방식에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관적 평가인 학교 좋아하기는 매우 좋음에서 매우 싫음까지 4가지 척도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단순히 예와 아니오로 물어볼 수도 있다. 통계청은 이 질문을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특별조사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와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OECD가 어린이 복지지표 자료를 수집한 모범사례들을 제시해 주길 희망한다. 이 섹션의 목적은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이 방법들의 장단점을 보여주고 국가들이 자신의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일 것이다.

(작성자: 인구동향과 이지연 사무관 481-2251)

As a first step in establishing child well-being indicators developed for OECD countries, this report addresses questions and provides practical answers clarifying child well-being and ways to measure.

The KNSO would like to know the reasons behind the OECD's need for a new framework for the child well-being instead of using the measure of UNICEF. Four of the six dimensions in the OECD framework are effectively the same as the UNICEF framework including material well-being, educational well-being, health and safety and risk behaviors. Two dimensions, housing and the environment and quality of school life in the OECD indicators, differ from the UNICEF. However, as evident in the league table of child well-being of 30 OECD countries (Table 1) and in correlations between child well-being indicators (Table 5), the overall country performance results are quite similar between material well-being and housing and environment. Because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m, children in poverty are more likely to have lived in poor housing conditions and exposed poor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We know that the OECD indicators have strong policy focus and aid in analyzing another side of child well-being, but one idea we should keep in mind is that good indicators are mutually exclusive.

Another comment concerns improv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data. The best way to achieve the comparability of child well-being data at the international level would be to inform the available sources of data and harmoniz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across countries. In this report, Korea did not report data in two dimensions of the OECD framework: housing and environment and quality of school life. However, the KNSO believes that Korea possessed these data and could have reported them if the OECD had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proper source of data. For example, "overcrowding" data in housing and environment condition dimension may be available in the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hile "local environment condition" data

could be found in the Korean Survey of Living Conditions.

The OECD child well being indicators should present not only the framework but clear definitions of core topic and data collection methods. This report defined quality of school life as bullying and liking school. Although the self-rated liking school indicator is a very simple concept, questions vary from survey to survey. The self-rated liking school indicator can be answered either on a five point-scale from "like a lot "to "dislike a lot", or simply "Yes" or "No". 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hould ask this question in the Social survey initially designed for general population or in the special survey for children and women. Responses of the self-rated question depend on how the question is asked and by whom .

Finally, the KNSO recommends that the OECD should present the best practices for gathering child well-being data.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would be to show the different approaches with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guide countries to make the most beneficial choic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 11.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 보고

STD/CSTAT/RD(2009)2

### □ 워크숍 개요

- OECD 주관 : 2008. 5. 5-7, 파리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요청 증가에 대한 국가통계기관의 대응,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논의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Eurostat, OECD 참가

### □ 국가별 현황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정책이 '위험회피'에서 '위험관리'로 변화
- 국내법 등의 이유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해외 연구조사자의 접근불허
-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정의 또는 관련 어휘 격차 상존
-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관한 법적 허용기준 차이
  - 일부국가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접근을 모두에게 허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특정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원천 봉쇄
- 국가간 자료모델 격차
  - 식별 불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 식별 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
- 접근 허용 방법 격차
  - 일부 국가는 자료의 원격접근을 원클릭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원격처리시스템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접근허용
- 다양한 보안정책
  - 전용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자료센터 등

### □ 향후 계획

- 참가국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국제기준 개발에 동의
- 장단기 로드맵 개발 합의
- 작업반 구성 (비공식, 잠정적으로 호주통계청이 주관)

□ 2010 회의 의제

-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수집용 웹사이트 개설
- 공식통계연구회 저널(SJIAOS)에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관련 내용 수록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공통 인터페이스 개요 작성 (이점, 비용 등)
-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비밀보호용어집 관련 정의 표준화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들이 이용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안 작성

## 12. OECD 산업별 생산성 DB(PDBi)

STD/CSTAT/RD(2009)5

### □ 배경

- 생산성은 경제성과의 핵심적인 척도임. OECD는 오래전부터 이를 경제 분석도구로 이용해 왔으며, 2004년 초부터는 OECD생산성DB를 통해 자료를 배포해 왔음. OECD는 현재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생산성 측정을 추진
  - 생산성 통계작성의 공통적 개념과 접근방법 구축
  - 기존 통계자료의 평가 및 개선
  - 통계품질 관리의 척도로서 이용
- 2008년 초, OECD 통계국과 OECD과학기술·산업국은 공동으로 총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MFP)측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DB에 수록

### □ 주요 측정이슈

- 본 자료의 목적은 국민경제적 자본 투입량과 노동 투입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OECD생산성DB과 일치하는 통일된 틀 속에서 산업별 MFP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있음

### □ 자본 투입

- OECD는 자본스톡 추정에 영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PIM)을 사용함
  - 영구재고법은 먼저 총자본스톡(총고정자본형성의 누계액)을 추계하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s)을 구하는 방법임

- 최초 자본스톡의 수준은 순자본스톡 추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최초 자본스톡 측정에 대한 각국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최근 Kohli(1982) 방식 채택이 논의되고 있음

## □ 산업별 감가상각률

- 국제적으로 통일된 산업별 감가상각률 적용은 추계방법상 매우 중요한 요소임. 현재 EU-KLEMS\*는 자산유형별 및 산업별 감가상각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OECD생산성DB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음

\* EU-KLEMS: EU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생산성, 국제경쟁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2005년부터 EU의 재정지원하에 네덜란드 Groningen 대학이 중심으로 구성, 25개 EU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의 1970년 이후 72개 산업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특정산업에 대한 감가상각률은 OECD생산성DB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이는 20개국만이 해당됨. 나머지 국가는 미국 자료를 이용하는 실정임
- 산업별 감가상각률은 산업별, 국가별, 시기별로 달라짐. 따라서 OECD국가들로부터의 보다 정확한 정보 입수가 생산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 □ 노동 투입

- 노동의 투입액 및 투입량은 생산성 측정의 중요한 요소임. 투입된 실질 노동시간이 노동투입의 가장 적절한 측정수단이 되고 있지만, 세부산업별로 들어가면 모든 국가들이 작성하고 있지는 않음

- STAN에서는 산업별 노동시간이 없을 경우 산업별 상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총 노동 시간을 쪼개어 산출함
- 노동에 대한 보수액은 평균임금에 총 고용자수를 곱하여 산출

## □ 완전경쟁 가정으로부터 이탈

- 총요소생산성(MFP) 측정에 있어서 솔로우 잔차 방식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의 가정 하에서만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e)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Oliveira Martins, et al(1996)과 Hall(1990)은 불완전경쟁 하에서도 mark-up\*방식에 의해 생산성측정이 가능한 것을 시사하고 있음  
\*mark-up은 가격과 한계비용과의 차이, 즉 이윤을 나타내며 불완전경쟁 하에서는 플러스(+)*이지만 완전경쟁 하에서는 제로(0)임*
- 이탈리아 제조업의 경우를 사례로 생산성 추정을 PDBi에 의한 MFP 생산성 추정치, EU-KLEMS의 완전경쟁 하에서의 MFP생산성 추정, 불완전경쟁 하에서의 mark-up방식에 의한 MFP생산성 추정 결과 비교는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서 생산성 추정이 불완전경쟁 하에서의 추정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결론 및 향후 논의

- OECD통계국은 EU-KLEMS를 연계하여 OECD PDBi DB(산업별 생산성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자 함
- PDBi(산업별 생산성DB)는 자본투입량을 ICT와 비ICT분야로 분리함으로써 보다 더 개선될 수 있음. OECD생산성DB와 PDBi는 추계방법이 일치되어야 함. 중간재 투입과 부가가치에서 최종산출물 산출과정에서 측정방법이 보다 개선되어야 함
- OECD생산성 워크숍이 2010년에 EU와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

---

## OECD 산업별 생산성 DB(PDBi)자료에 대한 의견

---

- 통계청은 OECD의 PDBi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OECD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협조할 것임
- 한국에서는 총요소생산성(MFP)에 대한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거의 모든 연구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불변보수의 가정하에서 이루어져 왔음
- 향후 한국에서도 불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의 총요소생산성에 분석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경우 통계청은 통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작성자: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손상의 사무관 717-0225)

The KNSO fully agree with the project of developing the OECD Productivity Database by Industry(PDBi). Accordingly we will provide cooperation if the OECD makes requests concerning the project.

In Korea, so far, numerous studies on Multi-Factor Productivity(MFP) have been conducted by scholars, especially in universities, but almost of the studies have been done under the assumption of perfect competition and constant returns to scale.

In the future we expect a large amount of studies on MFP under the hypothesis of imperfect competition and non constant returns to scale in Korea as well. If we confront the statistical needs related to the MFP studies, we will actively respond to them.

## 13. OECD 확대 ; 회원가입 현황 보고서

STD/CSTAT/ACS(2009)6

### □ 개요

- 본 보고서는 OECD 확대를 통계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신규가입국 대상의 통계 행동계획 (2008년 통계위원회 승인), 가입 신청국의 통계 체계 및 진행 상황 등 제시.
- OECD 확대 배경
  - 2007 OECD 각료이사회는 OECD 회원국 확대를 결의
  -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및 슬로베니아의 신규 가입과 비회원국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및 남아프리카의 참여 확대 등을 논의
  - 국가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가입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을 OECD 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 논의.

### □ 가입 신청국가 통계체계 검토

- 검토 분야
  - 통계관련 법적, 제도적 틀 ; 관련법률, 제도, 정책
  - 자료 품질 ; 국제비교 가능성
  - 자료 통합성(integration) ; OECD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가능성
- 품질과 국제비교에 대한 기본기준
  - 포괄범위 ; 항목, 기간, 지역을 포괄하는 자료 보유 여부
  - 표준준수 ; 개념, 정의 및 분류 준수 여부

### □ 통계측면에서 본 가입검토 절차 및 진척 보고

- 1 단계, 법적, 제도적 통계 틀 검토 ; 2008. 3 ~ 2009. 6

- 검토 기준; 유엔공식통계 기본원칙
  - 검토 대상 ; 가입 신청국의 국가통계기관 및 국제기구(IMF, Eurostat) 제공 자료
  - 공식통계 기본원칙 준수에 관한 요약 평가서 작성
    - \* 러시아 제외한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평가 준비 완료
- 2 단계, 자료 품질과 통합성 평가 ; 2008. 3 ~ 2009. 7
- 평가 대상; 실제 자료, 관련 메타데이터, OECD 기준에 합치하는 자료의 지속제공 능력
  - 활용 자료 ; 시계열 범위, 주기, 개념, 방법론, 정의, 분류체계, 국제 보고서, 국제 평가보고서 등
  - 자료 수집 방법 ;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 \* 특별한 경우(ex. 국민계정)는 전문가가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 자료 수집/조사.
  - 평가 종료일 ; 칠레(2009. 6. 15), 에스토니아(2009. 5. 18), 이스라엘(2009. 6. 8), 슬로베니아(2009. 5. 4), 러시아(2010 예정)
- 3 단계, 전문가 검토 보고 ; 2009. 5 ~ 9
- 가입 신청국가별로 각 2개 회원국의 통계 전문가가 전반적인 통계 체계에 관한 검토 의견 제시.
  - 칠레(호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폴란드, 덴마크), 이스라엘(미국, Eurostat), 슬로베니아(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영국, 대한민국, 시기미정)
- 4 단계, CSTAT 결론 ; 2009. 10 ~ 12
- CSTAT는 3단계에서 가입 신청국(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대상으로 독자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 CSTAT는 3차 OECD 세계포럼 (2009. 10. 26, 대한민국, 부산)에서 4개 특별세션 구성하여 심의 및 권고안 채택 예정

## 14. 2007-2008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

STD/CSTAT/RD(2009)6

### □ 개요

- OECD 각 위원회 성과 보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Program Implementation Report)로 PWB 개혁 패키지의 일부. PIR은 OECD 성과기반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
- 2003년 성과에 근거하여 제 1차 PIR 작성(2004),- 2005. 제 2차 PIR 작성(2005), PIR 매커니즘 점검(2006), 제 3차 PIR 작성(2007), 제 4차 PIR(2009)

### □ 목적

- PIR 3대 목적
  - 사업계획예산 보고 감독; 예산지출, 정책 품질, 시의적절성 등
  - 정책 평가
  - 성과개선을 위한 학습 도구
- PIR 구성
  - (정책) 품질 및 영향력/잠재적 영향력 조사
  - 성과 및 예산 보고
- 2007-8 품질 및 영향력 평가
  - 전자조사 활용 (품질 및 영향력 평가, 조사결과 취합, 성과 및 예산결과 보고 등)
  - 회원국이외, 옵저버 국가, 가입신청국, 비회원 참가국 등 모두 참여

- 2007-8 성과 및 예산 보고
  - 예산위원회, 기타 위원회, 이사회의 사업성과 및 할당 예산 적절성 등 평가

## □ 위원회와 PIR

- PIR의 본래 목적은 각 위원회 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자체평가는 아니므로, 각 위원회는 PIR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단, OECD 이사회는 다음 사업계획예산 제출이전 위원회들과 함께 최종 PIR 내용 검토
- 또한, 이사회는 각 위원회에 현재 사업계획예산 이행, 중간결과, 관련 자원 이용의 주기적 점검 요청

## V. 회의자료(번역)

### 1. 제6차 OECD 통계위원회

1. 통계에 대한 위기의 함의/88
2.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101
3. “한 눈에 본 정부” 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106
4.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118
5. 환경통계/124
6. “사회진보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131
7.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형성 : 사업제안/144
8. 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방향: OECD 역할/149
9. 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163
10. 아동복지(well-being) 측정/167
11.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보고/176
12. OECD 산업별 생산성 Database(PDBi)/178
13. OECD 확대 ; 회원가입 현황보고서/182
14. 2007-2008 OECD 프로그램 이행보고서/184

## 통계에 대한 위기의 함의

### I. 소개

1. 2008년 여름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는 금융기구에 대한 규제의 틀을 넘어서고, 공공 및 민간기관간 책임 및 경제성장과 다른 분야의 사회 진보간 균형에 대한 의문을 증폭. 위기는 또한 복잡한 경제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산을 측정하고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통계적 취약성을 인지하기 위한 통계 구조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
2. 위기의 통계적 함의는 다양함. 일부는 주택가격 폭락과 뒤이은 저당 금융 부도와 같은 위기의 도화선을 포함. 일부는 가구와 금융 부문의 높은 레버리지, 비은행 중개자의 규모와 양상, 장외기구의 확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는 실체와 같이 위기의 발발 시점의 경제 및 금융 시장의 구조적 상태와 관련. 일부는 가구(자본손실, 금융 곤란) 및 회사(신용에 접근, 수익성)에 대한 위기 결과의 모니터링에 관계. 위기는 이러한 분야의 통계적 격차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
3. 위기의 통계적 함의를 알리기 위해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 OECD는 향후 가능한 사업방향을 인식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통계인과 분석가를 연계
4. 이 보고서는 위기로부터의 주요 교훈을 처음 강조하고 경제 및 금융 통계 분야에서 위기의 함의를 설명. 이러한 배경 하에 보고서는 포괄범위, 적시성, 원시자료 이용가능성, 계량의 선택, 이야기하기와 변화하는 패러다임 등 전반적 통계 이슈를 인식.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 OECD와 각국 통계청이 구체화한 예비 활동 계획을 제공

### II. 위기로부터의 교훈

1. 많은 조언가와 분석가들이 세계경제를 흔든 위기의 독특함에는 합의한 것 같지만 아직 본질에 대한 완전히 공유된 진단은 없음. 예전 금융 혼란과 구별되는 현위기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양상은 아래를 포함

- 예전과 달리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중심인 미국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염
- 위기의 핵심 지점은 금융영역으로 특히 그림자 은행 분야임. 이의 중요성이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 제한을 넘어 9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 이러한 기구는 단기채 발행, 자산과 부채의 만기 비율의 큰 불일치에 의해 많은 대출을 지원. 금융시장간 전염성은 대출에 바탕을 둔 큰 규모의 증권발행에 따르는 전략을 반영
- 위기는 또한 과도한 부채 특히 저당을 축적한 가계영역의 존재를 반영. 많은 대출 형성은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기대를 반영. 대출은 개인 소비를 유지할 가능케 함
- 미국 금융 혼란이 타국과 세계 실물경제에 전파되는 속도는 시장과 지역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여 위기를 국제적으로 만듦. 위기는 국제화가 새로운 취약성, 현존 국가 정책의 부적절성을 암시

2. 다른 요인들은 재정 붕괴 결과의 확장임. 일부는 OECD국의 경기 순환과 관련. 일부는 미국에서 저금리가 대출 요구를 유지시켜 주고 많은 자금의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은 중국의 자국통화 재평가에 대한 주저를 일부 반영. 현재 위기의 명백한 양상은 상기 모든 요인이 상호작용 결과와 빠른 전염성일 것임. 산업생산의 감소는 29년 대공황보다 제한적이지만 감소속도는 주목할 만하며 무역 붕괴의 속도도 빠름

3. 위기의 양상도 다양하여 금융위기로 시작하여 경제위기 및 사회위기로 진화되었으며 효과는 장기화. 위기의 각 단계는 다양한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침. 위기의 시간차와 여러 부문이 영향을 받는 연계는 통계 작업에 합의를 가짐

4. 배우와 정책결정자가 위기를 찾고 그 효과를 푸는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는 취약성과 위기가 가지고 온 신뢰와 자신감 상실 때문임. 금융 위기에 따르는 신용경색은 대부분 다양한 기관의 저소유 신용가치를 반영하나 사업체 및 소비자 기대지수의 최근 감소는 예외적임. 이러한 모든 면이 모호하고 측정하기가 곤란하지만 기관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필수적. 위기의 모호한 실체를 측정함은 공식 통계가 자신의 역할을 해석하던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요구

3. 최종적으로 위기는 기대할 수 없는 범주의 효과를 가지고 진행 중으로 OECD국과 세계적 수준으로 정치적 토론을 변화시켰음. 일부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G-20 정상역의 역할 강화와 IMF의 재가동은 새로운 세계 지배 체계로 이끌 잠재력을 가진 두 가지 사업의 예임

### III. 특정 영역에 대한 통계적 합의

#### 경제 및 금융 통계/ 금융 시장 및 기구

1. 위기는 금융 시스템, 운영상 투명성, 위험에 관해 가용한 정보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증폭. 일부는 보다 엄격한 회계요구, 비대차대조표 운영에 대한 많은 정보 요구, 특정 목적 도구로 완화가 가능하나 일부는 보다 기본적 질문의 증가임

2. 금융기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위험 반영 가치 정의는 최근 국제회계 기준과 합의의 목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SNA 작업에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 하나는 금융자산이 거래되지 않았을 때 가치는 모델에 의존하여 그 결과는 보다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 할 수도 있으며 시장 검증에 종속되지 않음. 심지어 자산이 거래되었을 때도 최근 경험은 시장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 있는지 의문을 증폭. 위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의 혼란 초래하여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초래

3. 일련의 요소가 금융기구의 포지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결합되었지만 SNA 자료가 해법을 주었는지는 의문. 첫째 SNA 자료는 부동산과 저당에 대한 금융 영역의 완전한 노출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기구의 회사채 보유는 회계에서 인식되지 않는 많은 양의 구조적 금융 생산품을 포함하기 때문임. 둘째 금융부문의 다양한 부문의 자료 통합은 자산과 부채간 레버리지와 만기 불일치를 조금 나타낼 뿐임. 마지막으로 분야별 통합은 상대기구 노출의 증가를 은폐

4. 여러 측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IMF 주관하에 기구간 그룹 설립. TF 활동의 보고서가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 될 예정. 2월 OECD 분석가와 통계인의 브레인스토밍에서 나타난 아래의 사항은 관심을 끌 만함

- 금융시장의 상태와 기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금융 혼란의 규모와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분석가의 능력을 제한
- 전통적 통계는 금융시장과 기구의 상태를 완전히 설명하는데 부적합 할 수도 있음. 단지 브룸버그와 같은 사전 자료원에서 전통적으로 수집하여 이용가능 하게 한 사장 자료만이 적절한 현상을 인식하게 해 줌
- 국제 금융 시장의 투명성은 개선되어야 하고 보다 세분화되고 적시의 원시 자료가 감독기구에 의해 수집될 것을 요구
-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일부 통계 자료는 위험과 불균형을 인지하는데 도움. 그러나 긍정적인 메시지는 위험 하강을 지적하던 시장분석가와 경제학자의 목소리임. 가용 자료의 소통과 위험을 묘사하는 보다 나은 방법의 발견은 필수적임

#### 대차대조표, 자산 가격과 비금융분야 회계

1. 위기는 현재 실물 경제에 영향. SNA를 통해 조직되고 통합된 경제 및 금융 통계는 위기 시 각국의 상태와 취약성과 실물경제로의 효과 확산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 그러나 SNA가 현위기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ale음은 환상. 기본적인 문제는 자료의 부족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자료를 인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현 SNA가 적절한 자료를 완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이러한 관점에서 SNA 내용, 자료 수집 빈도와 적시성간에는 구별이 유용

2. 내용 측면에선 미국 가구의 금융 포지션에 대한 일부의 현재 한계가 SNA 자료에 나타남. 이러한 자료는 미국 가구 부채 형성이 다양한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임을 강조. 가구는 90년대 중반 과도한 투자와 저축률 저하로 순 대부자에서 순 대역자로 전환. 그러나 가구 대차대조표의 이러한 고부채는 가구자산의 재평가에 의해 상쇄. 가구 순자산은 2006년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나 이후 주택과 주식가격 하락에 의해 감소. 2008년까지 저축, 신용시장과 같은 유동 자산 보유는 평균적으로 부채의 가치를 초과. 이러한 관점에서 가구 부채의 축적은 자산 가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 가구 대차대조표 취약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 통합 SNA 자료는 많은 가구가 수 규모 주택 가격 하락에도 순 부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실패

3. 이러한 교훈의 함의는 명확. 즉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회계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빠지거나 아주 늦게 생산. 분기별 금융 및 비금융 회계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 회계의 복잡성으로 통계인은 분야별 포지션 변화를 강조하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 IV. 사회 통계

1. 위기의 사회적 충격은 보다 명확히 되어가고 있음. 경제 위기는 현재의 도구로 적절히 모니터가 가능하지만 사회적 영향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긴급. 위기는 단기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상태를 바꿀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잠재우는 데 장기가 필요할 수 있음. 현재의 개발은 사회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높은 빈도의 가계 조사에 의해 모니터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전 사회 통계 시스템에 고민을 안겨줌

## 가구 소득 통계

1. 현 도구가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분야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임. 과거 수년간 가구 소득 통계에서 강조된 경향은 경제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이유의 하나로 인용되어 왔음. 2000년대 초반 이후 여러 OECD 회원국은 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 현상을 경험. 많은 하위 및 중위 소득자는 부채로 소비와 삶의 기준을 유지. 이는 가구의 의무와 자산 가격에 내재하는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반영

2.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위기에서도 떨어지지 않음. 가까운 시기에 소득 불평등 측정법을 개발한다고 말하기는 곤란. 자본 소득과 손실은 직접적 경로로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데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었지만 소득 정의에는 미 포함. 반대로 금융 위기의 효과는 실물 경제로 전이되어 실업, 근로시간 및 소득 감소는 많은 가구의 삶의 질을 불공평하게 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높은 수혜 요청 부담에 따라 편성하게 함. 경제 성장 및 불황 모두 절대소득의 변화는 삶의 질에 중요

3. 불행하게도 소득 불평등에 대한 위기의 영향에 관한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은 장기일 것임. 여러 회원국은 소득 분포에 대한 연간조사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표까지의 시간이 장기적임

## 가계의 부

1. 위기는 부를 삶의 기준의 핵심인자로 관심을 지붕. 가계 부의 변화 효과는 그룹과 개인에 따라 차이. 주식시장의 붕괴는 부에 손실을 초래 근접하는 퇴직은 사설 기구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시장 손실을 초래. 비슷하게 주택가격 하락은 중간층을 강타하여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감소

2. 이러한 효과 포착은 가계 부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나 한계는 명백. 많은 수의 국민이 적절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유동자산이 부족. 비슷하게 유럽 가계는 국가별 및 채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측면의 부채에 대해 현금을 보유. 두 지표 모두 특별한 성격으로 가계 중 취약성 집중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사회 상태 모니터링 : 사회 감시 시스템을 위하여

1. 사회 통계의 제한은 소득과 부의 분포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자료 부족 이상으로 위기가 국민의 상태에 대한 금융적 측면의 정책 토론으로 관심 이전. 사회 통계는 자료 수집 빈도의 제한과 장기 처리 과정으로 단기 개발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맞춤화 되어 있지 못함. 이러한 한계는 각국 및 국제기구가 사회 상태에 대한 “사회 감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중대한 장애. 2009년 3월 OECD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통계청과 이러한 부족과 한계에 대한 제안을 토론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조직. 결론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회 통계의 사용 기회는 많아질 것임

- 국민의 다양한 혜택 요구에 대한 행정자료 사용 확대. 일부 국가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행정자료의 이용이 가능하여 빈곤자 수의 경향에 대한 좋은 조기 정보를 제공. 행정자료로부터의 정보는 또한 주택 재 소유자, 미시행 대출, 채무 과다 가구 수를 추적하게 해 줄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월간 또는 분기별 노동력 조사의 정보를 사용하여 노동 시장 이완, 근로 시간 및 소득 측정과 이러한 조사에 소득과 물질적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 포함 검토.
- 가구의 금융 상황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소비자 기대지수 자료를 활용하고 광범위한 질문 포함으로 확대. 단계는 공식통계 밖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접근법까지 범위 확장.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갤럽 일일 풀은 좋은 사례

## V. 주요 통계적 과제

1. 위기에 의해 증가된 대부분의 통계적 과제는 위에서처럼 분야별로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주제를 단순화 가능

- 범위 : 위기는 통계 정보가 중대하게 제한된 영역을 노정. 금융 분야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자산 가격에 대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는 부채 축적의 지속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 가계 상태와 사회통계간에는 중대한 격차가 존재
- 적시성 : 위기는 적시성과 정확성간의 균형에 의문을 제기. 대부분 OECD 회원국은 금융 통계 이용에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 소득, 부, 일부 금융 기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가계조사의 시차는 더욱 장기임. 시차 감소는 추가 투자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지만 예산 제약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변수의 쉬운 추계법 개발과 대규모 가구조사에 특정 항목 포함, 결과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조사 재설계로 적시성과 정확성간 상쇄관계 완화 가능
- 원자자료에의 접근 : 대부분 통계 시스템은 중앙값 측정에 의존. 그러나 주요 경제 변수의 전체 분포는 시스템 측면에서 위험 인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명백하고 그 효과는 전체 경제 및 사회로 확산. 원시자료로의 쉬운 접근은 위기 결과를 보다 잘 관리하게 하여 줌
- 대체 측정법의 개발 : 위기에 의해 증폭된 심화 주제는 경제 계정에 있어서 시장 가격의 역할임. 자산 가격에 대한 시장 능력의 한계는 이미 제기 되었지만 시장 가격 사용에 대한 의문이 경제 생산으로 확장. 일부 가정하에 기관의 한계 분석은 시장 균형과 사회적 낙관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시장 가격은 경제 통계의 기초. 실제에는 이러한 가정이 항상 유지되지 않으며 최근 GDP성장은 이러한 가정이 금융 서비스, 보험, 건강 관리 등 문제가 될 만한 분야의 성장을 반영. 일부 분야에선 통계인이 시장가격의 한계를 인식하고 PPP와 같은 대체 측정법을 개발. 다른 분야의 대체 측정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음

- 이야기하기(story telling) : 일부 브레인스토밍의 참가자는 금융 위기에 대한 일부 경고 사인이 1) 통계인의 자료의 경향에 대한 코멘트 하기를 주저 2) 자료 생산과 해석간 엄격한 구분으로 포착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시. 최근은 통계 작업이 자료의 제공을 넘어 코멘트와 이야기를 포함하도록 나아갔지만 이러한 유감은 이 방향에 대한 진전이 더 있어야 함을 제시. 이는 특히 단기 개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요
- 경제성장으로부터 지속 가능하고 균등한 웰빙으로 패러다임 전환 : 위기는 집합적 활동 및 정책 결정을 위한 나침반 으로서의 GDP 성장과 대부분 경제 토론에 내제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의미의 협소성에 관심 증대. 지속가능성의 필수 정의는 아직 논쟁 중

## VI. 활 동

### 통계청 활동

1.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 중. 특정주제에 국한한 OECD 브레인스토밍은 이용 가능한 일부 대안의 인식하게 하여 관련 활동용 통계청과 OECD가 채택하도록 함. 상기 토론은 위기 시작을 예측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공표 시스템 분야에 초점.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빠르게 가능하지만 일부는 중기 과제로 아래는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사항임

- 다양한 구조적 분야에 대한 자산 가격과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복잡적이며 적시성 있게 수집
- 분야별 주요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분기 계정 개발
- 2010-11 인구 및 경제 센서스 수행과 국민 계정 계산 결과 사용
- 소득 분포와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가구 소득 및 부에 대한 조사를 보다 자주 시행
- 가구 소득에만 바탕을 둔 정의를 넘어 다면적 측정의 개발
- 단기 시차로 적절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계의 재구성 가능성 검토

- 무역 자료 기준에 대한 필요한 조정의 가속화와 가치 연계에 있어서 국제화와 변화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 개발.
- 사회 현상을 모니터하기 위해 행정 자료의 활용
- 정확성에 대한 결과 평가와 OECD/Eurostat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개정 분석을 모니터 함으로써 조사와 국민계정의 적시성 향상
- 이야기하기에 관심을 증대시켜 자료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과 뉴스의 소통 개선

2. 이러한 일부 활동은 현 통계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 제공을 위하여 정치적 수준의 강한 지원이 필요. 시급한 개선 분야는 사회 통계임. 추가 투자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OECD는 향후 정책위원회와 6월의 장관급 회담에 이 이슈를 포함할 계획

## OECD 활동

1. 국가 활동에 추가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추가 활동이 필요한데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제 기구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 OECD와의 조정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 경제 및 사회 위기 통계에 대한 조화 그룹(HG)”이 설립. 아래는 HG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 가능. 또한 이러한 활동은 예산제약으로 모두 수행될 수 없으므로 CSTAT의 가이드라인이 우선권 설립에 도움

## 현존 자료의 공표와 소통 개선

1. OECD 자료 접근에 대한 사용자 압력 증가와 조직의 가능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국장은 위기 분석에 적절한 자료의 공표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국장을 면담
2. 위기에 대해 이용 가능한 일부 주요 통계는 2010년 Factbook "특별한

초점“에 공표할 예정. Factbook은 전통적으로 연간 자료에 의존하여 up-to-date 평가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기 틀에 바탕을 두고 위기를 묘사할 수 있는 Factbook 초점 개발 필요. 이 주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OECD “통계 정책 그룹“이 할 것임

3. 위기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포함한 웹 페이지가 OECD 웹 사이트 상에 구축. 현재 빠진 것은 다양한 인구 그룹과 부문에 대한 위기의 효과로서 위기를 단계별로 인식도록 도와주는 완전한 설명임. 통계국은 보다 풍부한 사이트로 개발할 계획

4. OECD는 통계청에 요약 자료의 빠른 전달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요청하여 적시에 G7 국가의 자료 발간을 가능하게 하였음. 비서실은 경제 및 사회위기를 모니터 하는데 적절한 자료를 포괄하기 위해 추가 언론 공표 또는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

#### 자료 이용 가능성 확대

1. 통계국은 Euro 지역, 미국 및 일부 국가에 대한 분기별 국민계정으로 부터 주요 합계의 수집 가능성을 고려 중. 특히 비서실은 가구 부문 에 관계되는 일련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것을 제안. 아래는 아직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합계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임

- 분기별 피용자 보수와 명목 가처분 소득(분기) : 임금 소득은 가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임. 그러나 세금 납부와 보조금 수령과 함께 빈곤과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들의 경제적 웰빙에서 중요. 이는 피용자 보수와 명목 가계 가처분 소득 시계열로 연결될 것임
- 실질 조정 가계 가처분 소득(분기) : 삶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 소득이 아닌 실질 소득임. 이런 지표는 실제 개인 소비의 가격지수에 의해 디플레이터 된 1인당 혹은 소비단위별 실질 조정 가처분소득을 따라갈 것임

- 저축과 투자(분기) :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가계는 저축, 소비, 자본재 구입 여부를 결정. 가계의 순저축과 순대출 구성은 가계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도움
- 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분기 혹은 연간) : 각계의 저축이 투자를 초과할 때 금융자산을 취득. 형태별 금융자산의 순 취득 구성을 보여주는 시계열은 가계 금융 자산 취득과 처분 구조를 제공하여 주며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줌
- 재평가와 대차대조표(분기 혹은 연간) : 가계는 금융 및 비금융 자산에서 이득을 얻기도 하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더불어 이러한 재평가는 대차대조표 변화를 초래. 재평가와 대차대조표에 대한 시계열은 자산가격 변화의 관점에서 포지션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게 하여 줄 것임

2. 상기 작업은 OECD가 경제 및 금융통계에 대한 기구간 회의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일환.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다른 사업은 예측 가능한데 가능성을 탐구하여 보는 것도 가치 있을 것임

- 금융회계에 있어서 다양한 금융도구 및 금융 중개자에 대한 하위분류 확장 소개. 이는 위험에 따라 도구를 그룹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새로운 측정법 개발 포함
- 일부 주요 지표에 대한 조기 추계치 생산 및 중요 단기 경제 변수에 대한 세계 합계의 반짝 추계 도입. 세계 합계의 반짝 추계는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OECD 통계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기 GDP 추계할 수 있도록 중국 통계청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결과는 2010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
- 모니터 목적으로 보다 종합적인 사회 통계 수집. G8 사회 대표의 결론은 국제기구는 사회 및 경제 정책간 연계를 모니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지표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핵심 제안은 소득 분포자료의 연동 update와 노동시장 이완, 근로시간, 소득에 대한 대체

측정법 도입, 월간 소비자 조사에 바탕을 둔 가계의 금융 상태에 대한 지표 수집으로 나아가는 것임. OECD는 위기를 모니터하기 위한 국제 기구간 사회통계에 대한 TF를 제안

## VII. 결 론

1. 통계위원회는 1) 비서실이 제출한 문서와 행동 계획을 양지 2) 위기의 통계적 함의에 대해 코멘트 3) 차기 단계를 위한 가이드 제공을 위해 초빙

##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

1. 이 보고서는 아젠다 2 항목의 토론을 위하여 IMF가 제고. 금융 및 경제 위기로 부타 나타난 정책 과제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 개발을 요구 또는 현존 자료 수집 및 편집 과정의 재편을 요구 할 지도 모름. 토론은 OECD와 기타 국제기구가 제출한 제안에 초점을 맞출 것임
2. 주요 내용은 IMF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제 지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현재 경제 위기에서 나타난 집중할 분야를
  - 1) 금융 영역 2) 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 3) 주택가격과 주택관련 자료 4) 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를 집중할 분야로 인식하고 지표별 자세한 설명
3. 최근 경제 및 금융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진보.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실물 및 금융자료의 보다 높은 적시성과 빈도를 구할 수 있도록 전통적 통계 생산 과정을 뛰어 넘을 과제와 자료 요구를 고지하는데 국제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

### I. 배경

1. 비록 위기가 공식통계의 부족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태는 적시 및 높은 빈도의 경제 및 금융 지표를 얻기 위해 전통적 통계 생산과정을 넘어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중요성을 강조. 위기의 본질과 실물 경제 전망의 악화 때문에 이용자는 보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적시적이며 빈도 높은 자료를 요구. 또한 공식통계의 소통의 개선 필요성도 있음
2. 이 보고서는 새로운 주요 국제 지표 웹사이트, 기구간 합동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IMF와 국제기구가 위기 때 나타난 자료 요구를 인식하고 알리는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

## II. 주요 국제 지표 웹사이트

1. 2008년 후반 경제와 금융통계에 대한 합동 그룹을 발족. 그룹에는 BIS, ECB, Eurostat, OECD, UN, WB가 참여. 사용자로부터 압력에 직면하여 그룹은 2009년 2월 공통의 공공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합의

- 미 확정 통계 전시 및 중앙은행, 규제기관, 통계청을 위한 G-20 국가의 국가별 웹 사이트, SDDS, NSPD에 link.
- 그룹 구성 기관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이트 link.

2. 주요 국제 지표(FGI) 사이트는 2009년 4월 21일 개통하였으며 각 기관이 자료를 제공. 사이트는 FGI 목록 개발과 비 G-20 금융 안정 위원회 회원과 같이 많은 국가를 추가하여 확장할 예정

3. 기관간 접근의 이득은 현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각 기관의 상대적인 장점형성과 협력적 분위기에서 자료 공유 지원임. 국제기구는 선택한 국가 자료 계열에 들어가면 광범위하게 국가간 비교 가능한 자료 제공

## III. 자료 요구 소개

1. 과거 15년 이상 통계 사회는 거시 경제 DB의 통합의 신장을 이룸. 실물분야, 정부, 은행, 금융 및 외채 등에 대한 일관성 있고 명확한 경제통계시스템 개발은 매우 중요. 거주, 경제 영역과 도구에 대한 정의가 조화되었으며 증식 회계와 평가 방법을 일관성이 있으며 통합되었음. 또한 SNA가 중앙 조직 틀로 용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gap 해소 및 고지의 취약성 분야에서 많은 자료 요구를 노출. 아래는 자료요구를 인식하고 작업한 단계의 개관을 제공

## A. 기구간 작업

### 집중할 4개의 중요 분야

1. 사용자와 자문에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그룹은 1) 금융 영역 2) 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 3) 주택가격과 주택관련 자료 4) 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를 집중할 분야로 인식
2. 금융 영역은 위기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므로 자료 가용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비은행 공사와 같은 금융 자료의 보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3. 위기는 대차대조표 외의 항목, 복합구조 생산으로부터 나타난 것, 국경을 넘나드는 상대 노출 등에 의해 은행에 부과된 구조적 위험에 관한 정보 격차를 야기. 이러한 이슈는 규제자, 회계사에게 관심이 있으므로 통계인은 그들 사업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음
4. 비은행 공사는 전통적으로 은행보다 잘 포착되지 않았음. 최근 소위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개발되어 규제에 저촉되지 않게 은행 형태의 실체를 포함. 위기는 이러한 기타 공사의 구조적 중요성이 저평가되었음을 제시
5. 비금융 회사 및 가계를 포함하는 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료가 부족. 이는 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야별 대차대조표 생산에 중요. 또한 평가, 성숙도 분석, 국제투자 포지션의 빈도 등에 대한 이슈가 대두
6. 분야별 대차대조표의 중요성은 위기에 의해 강조되었음. 금융회계와 대차대조표의 증가된 이용가능성은 구조적 위험, 취약성 분석과 실물부문과 금융영역 활동간 관계 분석을 지원. 국가 대조표에 대한 지원 작업을 위해서는 비금융 기업의 금융적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가 필요.

이 사업은 진행 중인 SNA 수행 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적시성, 빈도, 국가 범위 개선을 포함

7. 경제의 외부 대조표는 국제 투자 포지션(IIP)임. 현재 50개국 이하의 국가만이 IIP 자료를 분기별로 IMF에 보고. 그러나 위기는 외부 포지션 자료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기존의 거래 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충. 금융통계가 원 만기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최근 위기는 유동성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잔존 만기 자료의 중요성도 강조

8. 가계 순 부에 대한 주택 가격의 영향은 현재의 위기와 매우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생산하는 국가의 시행은 동일하지 않음. 가계 금융과 같은 기타 가계 관련 자료의 이용가능성도 국가별로 상이

9. 부동산 가격, 총 대출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과 상업적 부동산 대출은 모두 FSI's 목록에서 파악 되었으나 방법론 개발과 자료 이용 가능성 증대의 필요성이 있음

10.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지수 주제에 대한 여러 워크숍이 개최. 가격통계에 대한 기구 간 작업 그룹의 후원 하에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한 핸드북을 개발 중

11. 어디에 위험이 존재하고 그 규모를 나타내는 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 전통적 틀이 적절하지만 최종 위험과 신용 위험 이전의 개념의 탐구가 필요. 왜냐하면 위험의 존재와 규모는 경제간 상호관련성을 위장하는 정보가 부족하게 때문. 이 이슈는 개념 틀 개발, 존재하는 경험 유인 등을 포함

12. 최종 위험은 누가 최종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구 단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신용위험 이전으로부터 분리 가능. 최종 위험기반에서 외채의 측정은 금융통계와 외채 가이드에 대한 기구간 TF에서 시작되어

최종 위험 기반에 대한 강화된 은행 자료로 BIS작업 수행

13. 신용 위험 이전은 신용 부도 swap과 같은 위험 이전에 사용된 기구에 관심을 증대.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BIS 위원회는 현재 신용 위험 이전 자료를 찾는 중이며 ECB가 의장인 TF도 구성. 보고서는 여름에 기대

14. 최종 위험 및 신용 위험 이전 이슈는 복잡하고 이보고서에서 토론된 다른 이슈와 분리 불가능

B. 향후 방향을 위한 G-20와 IMFC 추진

1. 기구간 사업은 G-20 작업 그룹 #2 국제공조 강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통합 신장에 규정

2. 최근에는 IMF의 국제 통화 및 금융 위원회(IMFC)의 이사회가 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를 제공하고 자료 격차를 고지하기 위한 IMF와 FSB의 작업을 환영

IV. 결론

1. 최근 경제 및 금융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진보.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실물 및 금융자료의 보다 높은 적시성과 빈도를 구할 수 있도록 전통적 통계 생산 과정을 뛰어 넘을 과제와 자료 요구를 고지하는데 국제 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

## “한 눈에 본 정부” 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

### 요 약

1. 이 보고서는 2009년 발간 예정인 정부 개관에 대한 주요 내용인 배경, 수입, 투입, 과정의 지표 설명과 작성 상 어려움을 1) 정부 활동과 생산의 범위의 측정과 비교 2) 생산성과 효과성 측정으로 나누어 내용을 소개
2. 정부개관은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OECD가 자신의 DB 및 ILO DB 등을 활용하여 가공한 자료로 SNA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
3. 위원회는 1) 보고서를 양지 2) 비서실에 의해 강조된 측정문제 토론과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 제안 3) 향후 작업의 우선순위 인식을 위해 초빙

### I. 소 개

1.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 재화 및 용역 전달, 사업체와 개인의 행위 규제, 소득 재분배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주연임. 2007년 OECD 국가의 정부지출이 GDP의 30~53%를 점할 만큼 경제의 상당량이 정부활동에 기인. 따라서 정부활동을 수량화하고 측정함은 관리자나 지도자에게 보다 나은 정책결정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추가로 정부구조와 관계 묘사는 국가간 중대한 차이와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어 상호 학습에 도움
2. 정부활동의 측정은 매우 도전적인 작업으로 방법론 이슈와 자료의 획득 가능성이 여기에 관계. 지방정부에 대한 세부 자료 부족이 분석을 제한하며 비시장 분야의 측정은 방법론 및 자료 제공 문제가 혼재하는

한 분야임. 따라서 통계청과 국제기구는 조화적이며 제도화된 자료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함

3. 이 보고서는 정부개관에 대한 OECD 공공정부 및 지역 개발국이 수행한 사업을 설명. 출판안은 코멘트를 위해 CSTAT에 이미 제출. 따라서 이보고서의 목적은 1) 정부활동의 범위 정의, 국제비교 관점에서 투입, 산출, 성과의 량과 질에 대한 지표의 인식과 측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과제를 설명하고 2) 국제기구와 통계청이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공동 작업을 할 장소를 인식하기 위함. 자료 이용성 개선 관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으며 이상적이며 장기 과제임. 어려움 리스트는 길고 이상적이며 장기적 목표이나 국제기구와 통계청이 단기관점에서 자료 제공 개선을 위한 분야를 인식하기 위한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함이 희망적

4. 섹션2는 다가오는 정부 개관 출간의 주요 틀을 제공하고 섹션3은 자료 요구 설명

## II. 정부 개관

### II.1 정부개관의 주요 목적

1. 정부개관은 2009년 10월 발간 예정인 격년간 출판물로 좋은 정부와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공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자신의 사업과 성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비교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 측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각국에 대해서는 정부개관이 분석의 공통 단위 사용, 실무자간 구조화된 대화를 촉진하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음

2. 장기 시계열과 산출과 성과 지표의 도입으로 정부개관은 정부활동을 전반적인 결과와 연계하고 개혁 아젠다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결과적으로는 아래에 대한 OECD-wide 교훈 습득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분야별 효율성과 구조적 효과성
- 공공분야 생산과정의 틀 내에서 관찰된 관계
- 흡수 능력

3. 정부개관은 정부 생산과정 묘사, 지표로서 배경, 수입, 투입, 과정, 산출 및 상과 6개의 주요 카테고리 인식으로 구성

4. 정부개관의 초점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지원하는 자원, 집행, 정책을 포함하는 행정부 사업임. 행정부의 기능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가 적어 아쉬움

## II.2 정부 개관 초판의 내용

1. 정부개관의 초판은 배경, 수입, 투입, 과정의 지표를 포함. 또한 재정 및 비재정적 자료, 수량 및 질적인 자료를 포함. 초판은 현재 이용 가능한 OECD 자료에 초점을 두고 불가능할 경우 EC, UN,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사용. OECD 자료는 회원국이 제공한 것에 바탕

2. 대부분의 지표는 각국 정부와 특별히 한정된 조사를 통해 수집. 조사는 표준 정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질문의 해석과 응답과정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자료를 정리하고 검증하였음. 행정부로부터 자료 수집에 대한 대안은 전문가로부터 수집이지만 편자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향후 OECD는 온라인 조사의 도입과 광범위한 동료 검토의 사용으로 자료 수집 기술을 향상시킬 계획

3. 제공된 자료는 SNA에서 묘사된 정부 정의에 바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는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노동력 특징과 공공관리과정은 중앙정부 자료만 제공. 고용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정의를 공기업 및 유사 공기업을 포함하도록 확장

### II.3 향후 발간 내용과 방향

1. 향후 발간에는 초판에서 소개된 핵심지표를 증가시키며 정기적으로 자료를 update할 것임. 핵심지표는 표준화된 지표 항목의 사용으로 비교 가능하여야 함. 동시에 중요성이 인정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념이어야 함

2. 핵심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에 추가하여 차기 발간에는 아래의 3가지 주요 방법적 분야에 집중 할 것임

- 모든 정부 활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의 비교를 촉진하는 자료의 인식과 수집
- 국가간 정부 생산성 및 효과성 비교 시작
- 현존 자료의 품질 개선

### III. 정부 개관에 있어서 측정 과제

#### III.1 정부활동과 생산의 범위의 측정과 비교

1. 정부개관 주요 측정문제 중 하나는 자료가 표준 정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부의 범위가 비슷해야 함을 보장하는 것임. 이러한 이슈를 알리고 국제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수량자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제공 개념과 측정은 SNA로부터 제공 받아 형성되었으며 SNA틀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에 크게 의존. 이보고서와 정부개관에 나타난 자료는 아래의 분류에 바탕

- SNA로부터 제도적 부문, 거래

- ISIC 부문과 정부기능분류(COFOG) 1, 2

2. SNA가 유용한 분류구조를 제공하지만 1) SNA 적용이 국가별로 동일하여야 하며 2)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정부 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틀의 사용이라는 문제가 존재

### III.1.1 분류기준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정부개관에 적용

1. 기본 자료의 국제 비교성은 정부 개관의 핵심으로 정부개관은 SNA 자료 분류 기준을 사용. 그러나 공공분야 개혁과 SNA 분류기준의 느슨함으로 국가별 차이가 심할 수 있음. 따라서 국민계정과 기타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중요

2. OECD 국민계정 질문지는 일반정부 분야의 구성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요구. 정부 개혁 등으로 파생하는 정부 범위를 검정하기 위해 OECD는 정부개관에서 분류된 조직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할 계획

3. ILO DB에서 보고된 공공분야 고용 자료는 메타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아 OECD DB와 조정이 어려우며 국가간 비교도 방해.

### III.1.2 공공 영역 : 새로운 분류 시스템의 개발

1. SNA가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관한 정부활동범위에 대한 보충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떨어짐. SNA 2008의 정의는 모든 정부활동을 포착하지 못함. 이는 비영리 및 민간조직에 의한 공공 서비스와 생산을 제외하기 때문으로 공공생산에 참여 또는 공적자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2. 이 이슈에 대응하여 OECD는 공공 영역 개념 개발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 공공 영역은 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공공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분야를 포함하도록 영역을 확장. 따라서 정부개관에 나타난 생산개념은 공공분야 자체 보다 광범위

3. 정부개관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 영역 개념을 재정(SNA) 및 고용 자료에 적용함은 정부 파생 상품의 규모, 정부 책임, 생산의 양상을 국가간 비교하는데 도움. 또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경제의 생산적 분야에서 생산되는 비중을 결정 가능

4. 공공영역의 개념은 SNA상 공공 분야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나 새로운 특징은 기존의 기금 자료를 활용

5. 비정부 실체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 물품 이전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공기업 부문이 일반정부로부터 사회 물품 이전을 받는다면 중첩이 있을 수 있음. 이중 계산은 산업분류별로 사회이전 물품을 분해하여 어느 정도는 감소 가능.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형태의 생산에 귀속된 사회이전 물품에 대한 자료가 필요. 이는 부분적으로는 COFOG 수준2 자료의 사용으로 달성 가능

6. 일반적으로 일반정부의 중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자료는 명확하게 정의되며 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쉽게 연계. 주요 문제는 정부에서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산업과의 연계인데 이는 산업의 생산 계정과 고용 자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

7. 정부와 생산자간 합의에 바탕을 둔 비시장 서비스는 찾기가 더욱 어려움. 이러한 산업의 범위에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생산할 책임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을 지출한 산업을 포함. 그러나 보조금과 기타 현금 이전은 공공영역에서 제외. 비시장 영역은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존재

8. 아래는 공공 영역에 대한 OECD 국가의 자료 개발 노력에 있어서 잠정적 다음 단계임

- 정부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적용 가능한 분류기준으로서 공공영역의 개념 개발 토론
- 이용 가능한 자료셋에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 토론

### III.2 생산성과 효과성 측정

1. 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간 생산성과 효과성의 비교를 시작하기 위함임. 이 분야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행정부의 투입과 선정된 산출 및 성과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지표를 인식하는 것임

#### III.2.1 세부 지출 자료

1. 공공분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투입 조합이 지출 자료로 인식 가능. 투입은 피용자 보수, 중간재 소비, 자본 형성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과정에서 구체화되므로 정부 생산의 산출과 성과에 연계되어야 함. 이러한 분석은 생산성과 효과성 차이의 비교 시작 가능.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SNA, ISIC/COFOG 분류에 의한 공공영역의 세부 지출 자료가 필요. 또한 얼마나 정부가 생산에 자기의 자원을 사용하고 어느 부문에서 자원 구입을 결정하기 위해 세부 공급 및 사용료가 필요

2. 지출 자료 수집의 기본 틀은 이미 존재. IMF 정부재정자료, UN, OECD, EC의 일반정부 계정이나 기본적 국민계정임

3. 문제는 이 틀 내에서는 모든 OECD 국가의 세부자료의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임. 다른 문제는 공기기업이 종종 사기업과 분리되지 않아 자료의 통합과 분석에 애로

4. 아래는 세부 정부지출자료의 수집과 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음 행동임

- 각국은 OECD, EC, IMF의 현 SNA 기반 자료에서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제공 가능
- 각국은 공기업과 모든 공공영역의 부문별 계정 형성 가능
- 각국은 일반 정부와 그 하위 영역에 대한 공급 및 사용표 제공 가능

### III.2.2 노동력의 규모와 질에 관한 지표

1. 노동력의 규모와 질에 관한 자료가 국가간 노동의 사용과 생산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 추가로 건강, 교육 같은 정책 분야의 고용에 대한 자료는 ISIC 와 COFOG 분류를 사용하여 국민계정 틀을 통하여 재정자료로 결합 가능. 이는 각각의 생산에 투입된 인력 량과 정부 부담 생산에 관계된 사적영역 피용자를 제공하기 위함

2. 성별, 교육정도 등과 같은 기본적 질적 정보는 국가간 및 산업별 고용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데도 필수적. 추가로 이러한 자료는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여 사영 가능. 마지막으로 일반정부의 비시장 서비스의 산출의 품질 조정을 수행하는데 사용 가능

3. 노동력 측정에 있어서 2가지 어려움은 1)자료 가용성 2) 국가가 자료 비교가능성임. 첫째로 공공영역에 있어서 공공 및 사적 실체에 대한 종합적임 고용 자료는 쉽게 이용 불가능. 현재 ILO가 가장 복합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세부자료는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분적임. 또한 ILO는 제도적 영역, ISIC, COFOG 기능에 의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음

4. 추계 방법에서 영역의 기준 차이가 총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의

비중을 비교하기 곤란. 또한 풀타임 환산(FTEs), 피용자 및 직업 수에 대한 국가간 보고 차이도 국제비교를 어렵게 함

5. 추가로 일부국가는 OECD 국민계정 상 노동비용에 정보가 ILO에 제공된 고용과 차이가 있어 공공부문과 타 영역과의 고용 배분이 잘못 되었음을 나타냄

6. 공공 영역 노동력 자료 수집과 보고에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잠정 행동.

- ILO로 보고하는 노동력 자료와 국민계정의 보상 자료간 범위와 실행 조화. 이는 부분적으로 제도적 영역의 고용 분류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

- 현 ILO DB를 공공 영역 고용에 대한 제도적 영역, ISIC 영역으로 완료

- 현재의 국제 DB를 update하는 대안으로서 OECD의 요구에 따라 공공 영역 고용 통계 개발과 제공을 위한 가능성 토론

- 동일한 제도적 하부 영역 내 ISIC에 대한 고용 자료 제공. COGOG 그룹으로 분류된 고용자료 제공 가능성 토론

- 제도적 하위 영역과 ISIC 영역에 따른 성별, 교육, 직업별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일반정부 고용에 대한 자료 제공

- FLEs 관점에서 고용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옵션 토론

### III.2.3 산출과 성과 측정

1. 산출은 하나의 단위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 예를 들어 완성된 심장병 치료는 병원에 의해 생산된 하나의 산출. 성과는 산출로부터 일어난 최종 결과로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상태는 의료 서비스, 환경상태, 라이프스타일 등의 성과임. 성과측정은 정부활동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 세부 산출 및 성과 자료는 어떠한 공공 생산 배분이 보다 효율적인지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투입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합과 조직구조를 인식을 가능하게 함

2. 산출 측정과 관련하여 1) 행정부에 대한 적합한 생산 측정의 개념화  
2) 산출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3.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입법, 규제, 국방, 사업을 포함하는 일반 정부의 종합서비스에 대한 산출 측정 개발임. 일부 산출 측정은 개발되었으며 경찰, 사법서비스에 대한 일부 국제 DB는 존재하나 입법과 규제관리에 대한 DB는 개념의 어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음

4. 정부개관은 정부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내부 서비스 과정의 모니터링에도 관심. 이러한 중간 산출은 예산, 도서 보관, 인적자원 관리, 채용 등과 관련될 것임. 국민계정에서 이러한 활동은 최종 소비 또는 종합 서비스 항목에서 계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중간재 산출 및 성과 지표를 인식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음

5. 공공 영역 산출을 측정하고 집합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한 방법이 아직 진화 중. 정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한 완성된 자료는 가치, 가격에 대한 재정 자료와 물량에 대한 비재정 자료 포함. 최근까지 대부분 국가가 국민계정상 가격자료의 부족으로 투입 물량으로 산출물량 추정. 2007 EC 결정은 정부서비스의 가격과 물량 측정을 위한 원칙 규정하여 2006년부터는 투입 물량으로 산출물량 추정하는 것은 불법

6. 이러한 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시장 정부 생산의 산출 측정을 위한 국제 및 각국의 접근법이 다양. EU 소속 대부분 OECD 회원국은 EU 요구 때문에 국민계정에서 일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산출 측정을 생산.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산출통계를 수집하고 발간 할 것임

7. OECD 통계국은 교육 및 보건국과 공동으로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물량 산출 측정을 위한 핸드북을 준비 중이며 PPP 기반 자료도 개발 중임. 최종안은 2009년 6월말까지 CSSTAT의 검토를 위해 이용 가능 성과

1. 성과자료는 산출의 생산에 의해 달성된 결과에 초점을 두며 정부 활동의 효과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 이론적으로 가장 큰 장애는 성과에서 정부활동까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무엇이 외부력의 영향인가를 분리하는 것임

2. 대부분 성과 측정은 교육정도, 기대수명, 출생, 공기 질 등 사회 복지 지표임. OECD는 잠정적 “집행 관리 성과”를 인지하기 시작. 이는 크게 공적 자존심, 평등, 재정/경제적 안정성으로 구성될 예정. 공적 자존심은 정부 신뢰, 정부정책의 예측성과 수용성에 관련된 이슈를 포함. 평등은 서비스와 수익의 측정된 분포를, 재정 및 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 등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록이 포함

3. 현재 “집행 관리 성과”를 공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료 비교가능성임. 많은 회원국이 이 분야의 조사를 수행하지만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조사 도구가 없음

4. 다음은 산출과 성과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잠정적 행동임

- 일반 공공 행정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토론 지속
- 방법론 개발과 조화

#### IV. 결 론

1. 공공 관리 자료 개발의 목적은 공공분야의 제도적 및 관리적 제구축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실증적 기초를 제공. 구조, 투입, 과정 자료는 이미

정부 개관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방법론과 측정 문제는 표준화되었음.  
정부의 범위는 국가별로 달라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자료의 인식과 수집을 어렵게 함

2. 통계청으로부터의 자료는 정부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의 근간을 이루며 OECD의 선호 자료출처는 제공 자료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통계청임 또한 통계 사회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 가능하고 결합가능하게 만드는 데 명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3. 국제적 측정에 있어서 주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료 제공을 위한 표준틀을 인식하는 것임. 자료 정의와 보고를 조화하기 위한 상당한 작업을 국제통계사회가 수행. 통계사회는 산출과 성과 측정 개발에 대한 강력한 기여자일 수 있음

4. 위원회는 1) 보고서를 양지 2) 비서실에 의해 강조된 측정문제 토론과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 제안 3) 향후 작업의 우선순위 인식을 위해 초빙

## 경제 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

### I. 배경

1.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불평등, 국민의 감정 등과 같은 주요 사회 경제 변수의 표준 측정간 중대한 격차가 존재. 격차는 크고 세계적이어서 화폐 환상 또는 인간 본질의 정신적 특징에 의해서만은 설명 불가능.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프랑스는 2008년 초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 창설을 결정. 위원회의 목적은 GDP의 한계를 인식하여 보다 적절한 지표로서 생산에 요구되는 추가 정보 검토, 적합하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법 토론, 대체 측정 도구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사회적 웰빙 또는 삶의 기준 지표로서 GDP의 한계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 측정과 국민의 관념간 격차는 최근 두드러짐. 이는 불완전한 측정과 현 지표의 개념과 범위의 결함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 전통적인 경제지표를 대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측정은 정책토론을 풍부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 살고 있는 사회 상태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알려줄 기회를 제공
3. 위원회는 현 통계 체계의 일부 실패/취약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동의 하여 가장 일반적 측정 시스템에 대한 추정된 충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를 보다 잘 묘사하는 지표를 제안할 예정
4. 위원회 산출은 3개 독립 영역에 대한 기술적 및 비기술적 문서와 개관으로 구성될 예정. 보고서는 7월초까지 토론을 위하여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2009년 여름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 OECD는 OECD 수석 통계인 참가와 문서 초안 등 참여로 지원

5. 보고서 발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 토론을 유발하고 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최선의 후속작업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기대. 이 문서는 지금까지 작업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공하고 OECD의 가능한 후속작업에 대한 잠정적으로 제안

## II. 주요 이슈

1. 위원회 사업은 1) 전통적 GDP이슈 2) 삶의 질 3) 지속가능한 개발로 구성

2. 전통적 GDP이슈는 물질적 삶의 기준이라고 칭해지는 웰빙의 특정 측면으로 다른 웰빙 측면과 달리 화폐단위로 나타나고 집계. 대부분은 SNA 틀을 따르며 소득 및 부의 분포와 이러한 정보를 SNA로 통합하는 방법에 특별한 관심

3. 삶의 질은 경제성장과 물질적 삶의 기준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삶을 가치있게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 이러한 요소는 다면적이며 상호 교류하며 주관 및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 가능하며 국민의 자기 평가, 자기감정 보고, 건강 측정, 교육, 사회관계, 개인 활동, 정치적 견해,, 환경상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포함. 이러한 지표를 단일지표로 결합하기는 쉽지 않음. 삶의 질과 물질적 삶의 기준은 현재 웰빙에 대한 측정을 제공.

4.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웰빙을 담보하는 웰빙의 역동적인 측면으로 현 인류 활동의 결과를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 조건부 개발에 대한 판단의 전달을 암시. 웰빙에 기여하는 자산 스톡과 인간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측정에 대한 고려를 요구

5. 시간과 세대의 특정 지점 웰빙에 추가하여 이는 분야별로 나누어질

수 있음. 반복되는 이슈는 1인당 GDP와 같은 평균에서는 개인적 상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공식 통계에 소득 분포에 관한 정보도 개발되고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소득 분포는 소득 및 부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과 같은 다른 측면에도 관심.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보는 자체적으로도 중요하며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측정

6. 위원회 토론의 일부 측면은 OECD 주최 사회 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OECD 통계국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 최종 항목과 측정 권고는 연말 위원회 보고서 발간으로 이용 가능

### III. 주요 메시지와 제안된 활동

1. 위원회 사업의 많은 부문이 국민계정과 관련된 측정 문제에 투자. 가끔 국민계정이 단순히 GDP 금액을 산출하는 통계적 도구 이상이라는 사실이 잘 이해되어져 있지 않음. 시민의 물질적 삶의 기준을 측정하는데 보다 의미 있는 변수는 아래와 같음

- 생산 측정에서 소득 측정으로 관심 전환은 삶의 기준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 방법. 소득 관점에서는 총소득 보다 순소득을 측정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줌. 또한 국제적 이전과 소득흐름을 반영하는 측정이어야 하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 측정에 의해 달성 가능
- 총 경제 기대보다 가계기대의 채택은 경제 분야별 소득 개발의 차이를 허용할 것임. 여러 OECD 회원국의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은 물량 GDP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임. 이는 가계 통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극복 가능
- 가계 소득과 소비 측정은 시장 소득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금 환산액을 반영하여야 함. 제공된 보건과 교육 서비스 량의 측정은 어렵지만 보다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가계 소득은 가계, 회사, 정부가 얼마나 부유한가에 대한 이야기 부문을 전달. 자산, 부채, 순 부의 측정이 소득 흐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 지금까지 부와 대차대조표 통계는 단편적으로 보다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함
2. 웰빙의 다른 측면과 함께 소득과 부의 분포 측면은 횡단면적 이슈로 현 경제 통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함. 그러나 분포정보를 국민계정에 부가하는 데 주요 장애는 국민계정의 소득 정의와 가구조사의 정의와의 차이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임
  3. 경제활동은 국민계정에서 포착된 생산과 소득 이상으로 특히 가사 서비스 제공은 국민계정에서 무시. 가구 생산 활동과 그 가치는 기준 소득과 소비 정보에 유용한 추가로 주요 내용은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성 있는 시간 활용 조사에 의해 제공 가능
  4. 지속가능성과 측정은 위원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지속가능성 측정은 물질적, 자연적, 인적 및 사회적 자원을 포괄하는 광의의 자본 측정으로 일부만이 국민계정에 포함. 다양한 자산에 대한 실제 측적의 개발과 SNA 범위 확장 검토는 향후 작업에서 중요한 우선권을 가짐
  5. OECD가 위원회가 권고에 따라 새로운 측적과 분석도구를 개발하는데 적합. 일부는 이미 OECD 통계국에서 진행 중이며 다른 가능한 사업은 아래를 포함
    - 새로운 국민계정 발간 : OECD는 국민계정에 대한 가장 큰 DB의 하나를 관리. 지난 수년간 국민계정 자료를 제공하는 관련 발간은 전통적 표로 구성. 작년 금융 회계, 일반정부 회계를 포괄하는 3권이 추가. 정부 개관이 개발 중으로 GDP와 함께하는 주요 국민계정 지표를 제공할 것이며 위원회 사업으로부터의 적절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임. 가계 소득 통계의 정기적 공표도 가능

- 비시장 활동 측정 : OECD 핸드북에서 보건과 교육 측정은 완료되었으며 국가간 PPP 기반 보건 서비스 자료 개발이 진행 중. 결론 형성은 정부 개관 출간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OECD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
- 금융자산 : OECD는 수년간 가계 금융 자산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부채 포함 여부를 검토 중. 그러나 기초자료의 누락이 여러 국가에서 있으며 연간으로 수집되어야 하므로 적시성 이슈가 있음
- 비금융자산 : 비금융 자산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하였지만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많은 강조가 필요
- 시간 활용 조사 : OECD는 최근 국가 조사에 기반을 둔 시간 활용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비교가능성 확보는 생산주기, 국가별 조사 실시 차이와 합의된 국제 정의 부족으로 험난한 사업임. 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주기적인 노력이 나타날 것임
- 인적 자본 : OECD는 인적 사업 측정에 대한 사업에 착수. 인적 자본 측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입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와 가계 위성 계정 측정 제공

6. 위원회 사업은 시민이 웰빙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다면적 성격을 도출. 사회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이해와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기 모든 주요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가능. 사실 위기는 경제 정책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서 GDP에 대한 위원회 사업에서 나타난 많은 관심을 강화시켰음. 위기 과정에서 경제 개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GDP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문. 가계 실질 소득 상태와 같은 사회 위기의 많은 측면은 GDP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점수에 나타나야 함

9. CMEPSP의 일부 주요 메시지는 OECD 사회 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유사. 특히 웰빙의 주요 측면, 삶의 질 목록은 글로벌 프로젝트가 개발한 사회진보 분류와 매우 유사

10. 위원회 권고안 범주는 OECD 통계국 능력을 증가하므로 최종 보고서 발간에 따르는 OECD 위원회의 자문이 예정. 일부 사후 작업은 기존 작업반에 의해 쉽게 달성 가능. 일부는 임시 전문가 그룹이나 TF 설립 또는 웰빙 그룹 측정에 대한 새로운 그룹을 요구

#### IV. 결론

1. OECD 통계위원회는 1) 이 문서와 CMEPSP 보고서를 양지 2) 2009 년과 향후 2년 사업 우선권을 정하기 위해 CMEPSP에서 나타난 예비 메시지 관점에서 OECD 비서실 사업에 조언 3) 위원회 사업에서 강조된 일부 분야 측정에 대한 작업반과 TF 설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

## 환경 통계

### 사무국 NOTE

1. 이 보고서는 자원과 환경 정보의 OECD 시스템(SIREN)과 환경 상태에 대한 질문(SoE)을 포함하는 환경통계에 대한 OECD 사업을 설명하며 범주, 포괄범위, 역사와 최근 개발, 주요 성과, 국제협력, 타기구와의 공동 사업을 강조
2. 또한 아래에 바탕을 둔 환경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설명
  - 현존 환경자료의 품질 강화 및 개선
  - 격차를 채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
  - 비용 효과적인 도구 및 과정 증가
3. 최근 개발과 향후 사업계획이 토론을 위해 제공. 특히 아래의 사항을 강조
  -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 자료 품질 개선(타당성, 적시성, 해석가능성, 시계열 연계성, 국가 및 세계 지역과의 연계성)
  - 자료 수집 빈도 검토, SoE 질문지 단순화 및 재설계, 타 국제기구자료의 활용 최대화로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 자료 공표와 접근 증대
4. 위원회는 전반적 계획과 OECD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초빙

### I. 환경통계에 대한 OECD 작업

1. 환경정보 및 전망에 대한 OECD와 작업반은 30년 이상 환경 정보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80년대에 환경 자료의 조화와 발간을 선도하였으며

90년대에는 환경지표를 발간

2. 사업의 전반적 목적은 환경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시키고 OECD 회원국 환경자료의 핵심 세트 형성,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OECD 분석 및 정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사실적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함

3. 사업은 여러 OECD 위원회 권고에 나타나고 1991년 개발목적의 적절한 조정과 신뢰할 만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보장하기 위한 OECD 환경 장관 회의에서 동의한 회원국 소망에 따라 강화되었음

4. 사업은 회원국 활발한 지원과 관련 국제기구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개발. OECD의 환경 자료 수집과 환경 지표에 대한 기본 틀은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유사활동에 영향

5. 주요 성과는

- OECD 환경자료(84)와 지표(91) 정기 발간과 92년부터 국가 환경성과 검토에 환경자료(84)와 지표(91)의 체계적 활용 및 발간
- 물질 흐름 회계와 자원 생산성을 포함하는 환경 지표 및 회계에 대한 공통의 개념 및 방법 개발
- 국가별 활동은 안내하고 공통 접근법을 신장하기 위해 국가별 환경 정보 시스템 평가

### I.1 자원과 환경에 대한 OECD 정보 시스템(SIREN)

1. 사업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의 국제적 전략에 흡수되어 자원과 환경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 자료가 생산

2. 자료 수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합. 가장 중요한 회원국은 환경상태에 대한 질문지를 통하였으며 다른 자료 출처는 OECD와 IEA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임

3. 자료는 처리, 조화되었으며 국가와 같이 품질 점검되어 분석 및 평가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환경 지표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 이 과정은 주요 자료 품질 이슈와 정보 격차에 대해 국가에 정기적 피드백 제공

## I.2 환경상태에 대한 질문지(SoE)

1. SoE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의 가용한 최선의 자료 수집과 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하여 환경이슈에 대한 정보 사업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
2. 질문지는 점차 환경자료의 조화와 종합 수집에 대한 국제 참고서가 되었으며 국가 환경정보 시스템 서치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 현재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번역

### 내용 및 구조

1. 질문지는 주요 환경 영역별 자료의 종합적인 포괄로 특징되어 있는데 OECD 자료 요구와 회원국의 평균 자료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개, 공기, 내수, 해양환경, 국토, 산림, 야생생활, 쓰레기, 소음, 환경보호 비용 및 수입의 9개 섹션으로 구성
2. 질문지는 타 국제기구와 협력 및 공동 작업으로부터 혜택. 조화 보장과 시너지 획득, 노력의 중복 방지는 필수적

### 정기 개편

1. 질문지는 경험으로부터의 혜택 축적, 보다 비용 효과적 사업, 국제 수준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편. 각 개편은 정의와 분류를 포함하는 환경통계에 대한 각국의 진전과 환경 우선순위와 관심변화를 고려

2. 첫 개편은 자료 요구의 단순화를 마지막 개편은 보다 세분화된 자료 요구와 함께 질문지 섹션 확대를 초래

## II. 환경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OECD 활동 계획

1. 80년대 중대한 변화가 환경 자료와 보고에 나타났지만 큰 변이성이 존재. 핵심 환경 자료의 가용성과 품질 개선과 잔존 격차를 채우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OECD WGEIO 사업 착수

2. 초점은 1) OECD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료 2) 국제적 조화 및 비교성, 적시성, 연계성, 투명성과 해석가능성에 두었으며 4개 주요 품질 목표로 구조화

- 현존 자료의 품질 강화와 개선
- 격차를 채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
- 품질개선을 위한 회원국 지원
- 비용 효과적인 도구 및 과정 증가

## III. 최근 개발 및 향후 계획

1. 자료 품질 행동 계획에 따라 WGEIO는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을 정립하는데 합의하여 아래를 계획

-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를 위한 자료 품질 개선
- 자료 수집 빈도 검토, SoE 질문지 단순화 및 재설계, 타 국제기구 자료의 활용 최대화로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 자료 공표와 on-line 접근 증대

### Ⅲ.1.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를 위한 자료 품질 개선

1. 이러한 시리즈를 국가별로 제출하여 점검, 문서화, 자료 update할 기회를 주어 국가별 연간 품질 보증을 획득 가능
2. 선택된 관련 시리즈는 환경 지표 계산에 필요한 자료, 각국의 환경성과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자료, 연간 OECD 발간과 통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
3. 관련 시리즈를 제공할 때 과거 수집과 처리 과정과 타 국제적 자료 출처로부터 자료로 미리 채워진 형태로 제공할 것을 제안
4. 국가는 장기 시계열의 연계성, 적시성, 국제적 조화, 국가 및 세계 지역간 연계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 받을 것임. 관련 자료의 문서와 메타데이터 up to date를 편집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 자료 처리는 OECD 비서실이하고 국제기구와 조정을 거칠 예정

### Ⅲ.2.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 자료 수집 빈도 검토

1. 환경 관련 시리즈의 연간 품질 보장에 대응하여 종합 격년 자료 수집이 확실한 분야에 대한 저 빈도와 함께 단순화 될 것임
2. OECD 환경성과 검토 프로그램에 따라 검토된 국가는 적절한 update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할 때 일부 섹션과 통계표에 응답하도록 요청 받을 것임

#### 질문지 단순화 및 재구성

1. SoE 최신판은 제공된 자료와 포괄범위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국가의 응답부담과 비서실의 처리 부담을 부가. 동시에 일부 통계표에 대한 응답률은 낮으며 국제 정책 사업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가치도 제한적임

2. 따라서 자료 요구 단순화를 목적으로 질문지를 재검토, 관리 가능한 규모로 축소, 타 국제기구 자료 최대한 활용, 국가와 비서실의 사업 부담 경감이 제안. 이는 실제 자료요구의 재검토, 자료 계층상 핵심 자료 시리즈 인식, 잔존 자료 격차 파악, 평균 자료 이용 가능성 평가, 공통 핵심 통계표와 부가적인 표를 구별하여 질문지 재구성을 가능

3. OECD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료와 이용가능성이 저조한 자료는 삭제 또는 단순화를 제안. 기타 국제 자료원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자료는 통계표에 사전에 수록하고 국가에 의해서 검토를 제안

4. 농업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질문지 섹션이 핵심 농업 환경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될 예정으로 농업과 환경에 대한 합동 작업반이 이를 수행할 것이며 WGEIO와 Eurostat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

### III.3.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1. 환경 자료 분야에 대한 국제 활동이 확대되어 많은 기구가 관계되어 국제기구간 잘 관리된 협력과 국제 활동의 조정이 더욱 중요. 질문지 검토가 국제협력, 타 국제기구 자료와 중복 여부, 자료 흐름을 최적화하여 중복을 피하는 방법 검토 기회를 제공

2. 최근 EU의 공유 환경 정보 시스템(SEIS) 시행을 위한 노력은 Eurostat과 타 EU 파트너와의 공동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 Eurostat과 공동 작업에 관해서는 합동 처리, 공동 관심사에 따른 환경자료의 타당성, 자료 흐름의 보다 나은 조직과 MOU 개발이 계획

#### Ⅲ.4. 자료 공표와 online 접근의 개선

1. 자료공표와 온라인 접근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 OECD 핵심 환경 지표의 전자 간행물이 1) 통계표와 메타데이터 2) 추가 문헌적 개념 3) 관련 국가 웹사이트에 연계 추가로 개선될 것임

2. 정기 간행에 추가하여 공개가 가능한 관련 자료는 OECD 통계 기반 및 웹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 이는 자료 이전 혹은 공동 OECD 기반으로 정기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데 2009-10 사업계획과 예산에 포함

##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

### 요약

1. 이 보고서는 2008년 7월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후 수행한 사업과 2010-2011 프로젝트를 향한 차기 단계를 검토. 이는 연도별 사업 진전 검토와 지배구조 설명, 2009년 사업 설명으로 구성. 또한 20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통계, 지식, 정책”에 대한 제3차 세계포럼에서 기대되는 성과도 포함. 그리고 포럼 후 2010-2011 프로젝트를 향한 다음 단계 검토, 위원회에 동 프로젝트에 포함될 통계사업에 조언을 구하기 위함
2. 프로젝트 공식 출범 12개월 동안 관리구조 형성, 파트너, 협력자,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사업계획서 작성, 시행을 위한 활동을 시작. 여러 결과가 2009년 말까지 생산될 예정이며 제3차 세계포럼은 수행한 작업의 품질평가와 향후 프로젝트 특히 연구 분야를 설계하는 유일한 기회를 대표하며 연구와 실무자의 소통을 위한 유익한 이벤트가 될 것임.
3. 2010-11 사업계획서는 3가지 과제를 보고하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될 것임. 동시에 증가하는 파트너, 협력자, 관계자가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여하고 현재 정치 환경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는 프로젝트 결과의 량과 품질을 고양시키고 전반적 충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임
4. 또한 경제위기와 글로벌 프로젝트, 부산에서 개최될 제3차 세계포럼, 진보측정을 소통하기 위한 ICT 도구의 하나인 WikiProgress의 진행상황을 설명
4. 위원회는 이 진보 보고서를 양지하고 2009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코멘트와 2010-11 사업계획서 개발을 향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받기 위해 초빙

## I. 소 개

1. 이 보고서는 2008년 7월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후 수행한 사업과 2010-2011 프로젝트를 향한 차기 단계를 검토. 이는 연도별 사업 진전 검토와 지배구조 설명, 2009년 사업 설명으로 구성. 또한 20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통계, 지식, 정책”에 대한 제3차 세계포럼에서 기대되는 성과도 포함. 그리고 포럼 후 2010-2011 프로젝트를 향한 다음 단계 검토, 위원회에 동 프로젝트에 포함될 통계사업에 조언을 구함

## II. 글로벌 프로젝트 원년

1. 프로젝트는 통계위원회의 추진 하에 2008년 7월 공식 발족. 첫 12개월 대부분은 프로젝트 설립과 잠재적 협력자 및 관련자와의 관계 구축에 소비.

-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 UNPD, EC, UN 아태지역 경제 및 사회위원회, WB, Inter American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국제회계감사기구 (INTOSAI)와 MOU 체결
- OECD 위원회는 조정 그룹(CG)의 내규를 승인. 이 그룹은 프로젝트의 개선과 개발을 위한 권고와 가이드라인 제공, OECD 회원국이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으로의 역할,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촉매, OECD 회원국간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이 권한. 그룹은 2009년 1월 공식 활동하여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선출
- 2008년 8월 공식 웹사이트 개설, 2009년 4월 13,000건 조회 기록
- 모스크바, Rennes, Strasbourg, 교토, 카이로에서 회의 개최
- 프로젝트 훈련과정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요르단, 일본, 캐나다에서 수행

- “진보의 의미”가 최종화 단계로 2차 검토를 위하여 배부. “실무에서의 진보 추적”에 대한 매뉴얼 준비 중. 성공적 지표를 위한 요소완 온라인 지시기반 DB 완료. 웰빙 측정에 대한 핸드북과 “진보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2차 조사는 준비 중
- WikiProgress 사이트와 혁신적 ICT 도구의 도서관 역할을 할 사이트는 개발 중
- 제3차 월드 포럼 준비는 잘 진행 중

### III. 프로젝트 네트워크

1. 프로젝트는 국제 및 국가기구 네트워크의 공동 사업형태로 운영될 예정. 구조는 파트너, 협력자, 관계자로 구성

- 파트너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핵심역할, 자원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요 국제/초국가 기구임. 각 파트너는 프로젝트 위원회에 소속되며 협력 내용은 OECD와의 MOU에 기재
- 협력자는 프로젝트의 특정 활동(홍보, 연구, 훈련 등)에 기여와 이스탄불 선언에 의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관심이 있는 공공 및 사적 국가 및 국제기구. 협력자 조직은 OECD와 편지 교환으로 구성. 위원회는 잠재적 협력자의 신뢰도에 코멘트하고 협력자로부터의 상호 이익 분석, 제안된 사업에 대한 코멘트하여 줄 것으로 요청
- 관계자는 국가 및 지역별로 자회 진보의 측정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조직. 관계자는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공식 조직으로 해당지역에서 프로젝트 신장을 기대. 위원회는 관계자의 신뢰도와 프로젝트의 목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줄 것으로 요청

2. 현재 파트너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EC, Inter American 개발은행, 국제감사 협회, 서아시아 UN 경제사회 위원회, 아·태 UN 경제사회 위원회, UN개발 계획, 세계은행(WB)을 포함

#### IV. 2009년 프로젝트 사업계획

1. 2009년 5월 프로젝트 팀은 11명 직원과 1명의 파트타임으로 구성. 프로젝트는 OECD, EC,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Atkinson 자선기금(캐나다), Willam and Flora Hewlett 기금(미국), Steve Killelea 자선기금(호주)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
2. 현재 1)웹사이트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2) 지역 작업 그룹의 설치와 조정 3) 주제별 회의/워크숍 개최 4) 제3차 세계포럼 5) 사회 진보 단계별 정의 6) “실무에 있어서 진보 측정”을 위한 핸드북 7) 진보의 특정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8) 저널 발간 9) 진보 측정의 촉매로서의 지식 기반 10) 훈련 및 측정 11) 웰빙과 진보를 측정하고 촉진하는데 있어서 시민과 단체를 참여시키는 가이드 북 12) 주요 지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발간 완료 13) 어떤 시민이 사회 진보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모듈 완료 14) 혁신적인 ICT 도구 도서관 15) 미디어를 통한 통계와 지표를 공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6) 메타데이터 개발로 투명성과 해석가능성을 향상 17) 혁신적인 ICT 도구 개발 향상 18) WikiProgress 사업을 하고 있음

#### V. 경제위기와 글로벌 프로젝트

1. 현 경제 위기는 프로젝트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한편으로는 각국 정부는 위기의 직접적인 효과를 저지하고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조연가 및 정치인은 현재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강조를 종합적인 활동과 정책결정의 나침반으로 다시 생각할 것으로 요청. 많은 국민이 직업, 집, 저금을 잃었음. 반면에 위기는 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혼란을 초래.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의 전반적 진보 측정법과 신뢰할 만한 측정으로 관점의 확대는 매우 중요. 1930년대 공황은 국민 계정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진보와 성과의 측정을 위해

현존하는 기준에 대해 비슷한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자극할 것인가 여부

2. 해답은 자원, 정치적 지도력, 정부와 시민 사회간 관계, 새롭고 신뢰할 만한 측정 개발을 위한 경제학자와 통계인의 능력, 통계사업의 자원 이용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의존. 가능한 2가지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으며 후자의 시나리오가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는 증거 제안

- 위기는 GDP와 전통적 경제 측정에 대한 관심을 재강조
- 위기는 대안 개발을 촉진하고 웰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측정을 촉진할 것임

3. 명백한 것은 변화를 구하는 시기에 글로벌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것임.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1) 정치지도자에 대한 강력하고 확신적인 방안 개발 2) 이해관계자 관여와 지지 3) 현재 세계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합치는 능력 4) 강력하고 고품질, 가시 결과 전달 5) 전체 규모를 증대 시키도록 적합한 기금 증대에서 능력을 보여 준다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향후 2년간 증가할 것임

## VI. 제3차 세계포럼

1. 프로젝트는 진보, 웰빙, 삶의 질,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에 3가지 주요 방법이 가치를 부가함을 인식.

-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으로서의 역할
- 진보 측정법과 공표에 관한 최적의 실무 요령 개발
- 실무에 있어서 진보의 홍보

2. 프로젝트의 신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과 기구를 함께 활동하도록 동원할 수 있음

- 사회 진보 측정을 보다 부각되게 만드는 일
- 연구 및 실무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을 위한 포커스 포인트 대변
- 정부와 비정부 기구간 대화의 장 개설
- 통계의 공표와 소통을 위한 새로운 도구에 대한 경험 교환 신장

3. 부산의 제3차 세계포럼은 프로젝트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 포럼은 위기와 장기 대응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 저명한 학자가 참석 예정. 21세기 문제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와 지표가 포럼에서 제기되어 향후 2년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형성할 것임.

4. 많은 세션이 특정 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설계.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부산에 전시될 예정

5. 포럼은 기존 연구자와 기관의 네트워크를 유인해야 함. 예를 들어 UNDP는 포럼에 국가적 인간 개발 보고서 준비에 협력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대동할 예정

6. “부산 로드맵”이 이스탄불 선언에 대한 후속으로 공표될 예정. 선언은 진보측정에 대한 중요성 기술임. 로드맵은 OECD와 파트너가 2010-2011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활동을 포함할 예정

7. 세계포럼에 대한 언론홍보는 9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의 측정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 공표가 효과를 더해 줄 것임

## VII. 2010-11 사업 계획

1. 글로벌 프로젝트 위원회가 프로젝트의 작업 프로그램을 결정하지만 CSTAT이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자문 역할

2. 프로젝트는 진보측정에 대한 세계적인 참고 포인트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종 성과는 사회 변화를 장려하고 국민의 웰빙을 개선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유사 사업이 많으므로 프로젝트가 이를 잘 통합할 필요가 있음

## VII.1 포럼으로서의 역할

1. 2004년 제1차 포럼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합할 이벤트와 토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 프로젝트 웹사이트, 서한, 이벤트와 활동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

2.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취약점은 향후 2년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진정한 "community"의 구축
- community 회원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web 2.0 도구의 위력 확인
-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형 이벤트와 사업

3. 새로운 WikiProgress 사이트와 타 ICT 도구의 활용이 이 분야에서 주역할. 동시에 부산 포럼과 준비 이벤트는 아래의 사항을 적절히 연계

- 포럼을 2~3년간 계속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로 하기 위한 부산 이벤트 기간 중 타 기관에 위성 회의 조직 가능성 제안
- 세계 경제 포럼이 설립한 "사회의 진보 벤치마크"에 대한 글로벌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세계 진보 DB" 개설에 WikiProgress를 사용할 것을 요청. 이는 진보의 다양한 면에 대한 지표를 통합하기 위함임
-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신장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도구 확산

- UNTAP이 개발한 e-learning 모듈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 가능

4. 통계청과의 대화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함. Stiglitz 위원회의 결론은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

## VII.2 진보 측정법에 대한 최적의 지침 개발

1.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이래 보다 많은 관심이 이 분야에 기울여져 많은 주요 결과가 2009년 말에 완료될 예정. 이는 진보측정에 대한 핸드북, 진보측정을 위한 기본 틀, 진보 지표에 대한 품질 틀을 포함

2. 향후 2년간 연구 프로그램은 진보측정을 위한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수행할 예정. 자원이 허용되면 2개의 연구가 가능

- 자문과 연구를 통한 최적의 지침과 통계기준 인식
- 단계별로 인식되는 의미간 주요 간격 보완

3. 진보의 측면에서 보다 가치있는 개념적이고 개발 및 잠정적 분야는  
1) 웰빙 측정에서 비시장 분야 측정 2) 주관적 지표의 사용과 객관적 지표의 통합을 통한 삶의 질 평가 3) 웰빙의 세대별 측면 4) 인권 및 시민 참여 5) 자유와 자기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VII.3 진보측정이 세계 사회에 미치는 이익을 나타내어 진보 측정 홍보

1. 이 목적은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 초기에 프로젝트는 GDP를 넘기 위해 고안된 많은 사업의 인지에 성공. 또한 정책 결정자의 인식 증대에도 성공적. 기존 사업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이 대두

2. 인식 증대와 행동 촉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발족할 것이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할 것임. 활동 형성을

위한 이러한 능력이 2010-11년간 최우선 사항중 하나일 것으로 기대. 그러나 프로젝트는 현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자금이 부족

3. 특히 개도국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 보장. 2009년에는 연계를 위한 방법에 대한 제안이 향후 2년 시행을 위해 형성 될 예정

4. 훈련과정이 대중화 되었으며 2009년 예정된 과정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자체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나타내 줄 것임. 2010-11에는 e-learning 도구의 개발로 훈련의 획기적 확대가 기대

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에서 프로젝트의 목적과 가능성에 회의론이 만연. 이는 프로젝트 목적에 대한 의사소통의 부족과 통계를 위한 자원부족에 기인

6. 부처와 통계 기관의 고위직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확실한 이득을 전달하여 줄 것이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접근법은 “사회 X의 진보 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한 패키지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일 수 있음. 제한된 노동과 IT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된 이러한 보고서의 공표는 사회진보 측정법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음

#### VIII. 진보 측정을 소통하기 위한 ICT 도구 개발

1. 이스탄불 선언에서 인용된 목적 중 하나인 “변화상태의 광범위하고, 공유되며, 일반 대중의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사업의 한 방향은 통계를 소통하기 위한 ICT의 개발 촉진임.

2. 많은 ICT 도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GIS 개발과 같은 진정한 이 분야 커뮤니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

3. 지난 수년간 OECD의 이벤트와 제2차 월드포럼의 전시에서 이러한 커뮤니티 구축의 가능성을 증명. 따라서 프로젝트는 이 분야의 국제 포럼으로서의 역할과 최선의 처방 개발을 촉진할 계획

- 2009년 7월 개최될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에 대한 컨퍼런스는 통계를 현대 대중에게 이해가능하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예술에 관한 것
-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도구”에 대한 제2차 국제전시가 부산 세계포럼에서 예정
- 온라인 도서관은 가장 적절한 ICT 도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 지점이며 또한 프로젝트는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의한 공공 사용을 위한 SW 개발을 권장

## IX. WikiProgress

1. wiki의 주요 특징은 저자가 자신의 지식을 하나의 보관소에 기부하였다는 것임. 보관소는 집합적 지식이 특정 주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통합을 대표하도록 설계. WikiProgress의 목적은 사회진보의 측정에 대한 세계에 존재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 증대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사용하고 그들에게 주요 경제, 사회 및 환경 경향을 알려주어 명확한 증거에 의한 관련 이슈를 토론하도록 하기 위함. 따라서 Wikipedia는 “who is this”, “what is this”과 같은 질문에 응답

2. WikiProgress의 목적은 전문가와 실무자가 지표선정, 계산, 공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주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되는 것임. 최종적으로 WikiProgress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를 대표하여야 함

3.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WikiProgress는 다목적 웹사이트이어야 함. 2개의 주요 부문은 아래와 같음

- 전통적 Wiki(현재 Wikigender와 비슷)로 1)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고 파트너와 협력자에 의해 기부된 사항 2) 현존 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 3) 특정 현상의 측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
- 통계적 Wiki는 자료와 메타데이터가 공유되며 평가 후 품질 혁신 단계에서 upload. 또한 전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혁신을 대표 하는데 사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함
  - \*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upload와 품질 평가를 위한 제출
  - \* 국가별, 주제별 통계 검색, 자료 및 메타데이터 검색, 통계표와 그래프 작성 및 파일형태로 저장
  - \* 특정 측면이나 관심 주제에 대한 검색, 가장 빈번히 증가 된 이슈 혹은 방문 페이지 인지
  - \* 다른 사람/전문가와 질문 및 상호 소통

## 기술적 이슈

1. 프로젝트는 성공적 위키가 되기 위해 다양한 자원에 접근. 다양한 학계,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분석을 소통하고 통계를 공유하며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WikiProgress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
2. 현재 2개의 장으로 구축 중인데 첫 채 원형은 아래의 3개의 핵심 도구에 의존할 것임
  - Aback-office space는 전문가가 통계 품질의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자료와 메타데이터 중장 저장소로 통계정보를 사용자가 이용 가능
  - 시각 분야로 상요가가 도표, 그래프 등의 생성이 가능
3. 현재는 알파단계로 OECD 내부에서만 이용 가능. 베타 단계에서 보다 광범위한 검토와 update를 위해 송부될 예정. 공식 발족은 부산 제3차 세계포럼에서 있을 예정

## 관리구조 이슈

1. WikiProgress의 개발은 통계적 관점에서 고 품질의 기준을 유지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과. 모두가 자료를 upload할 수 있어 문제는 최소한의 품질 기준과 자료 비교성을 담보하는 방법임
2.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1) 일련의 진보 지표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품질 보장법 제공 2) 글로벌 프로젝트와 관련 커뮤니티가 모든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 제공을 위하여 “품질 틀”을 개발 중.
3. 이 틀은 1) 지표의 품질 2) 과정의 품질 3) 지표 공표 품질을 다룰 예정이며 2009년 하계 세미나에서 완성되어 검토를 위해 공람될 예정

## X. 결론

1. 프로젝트 공식 출범 12개월 동안 관리구조 형성, 파트너, 협력자,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사업계획서 작성, 시행을 위한 활동을 시작
2. 여러 결과가 2009년 말까지 생산될 예정이며 제3차 세계포럼은 수행한 작업의 품질평가와 향후 프로젝트 특히 연구 분야를 설계하는 유일한 기회를 대표하며 연구와 실무자의 소통을 위한 유익한 이벤트가 될 것임
3. 그러나 여러 과제가 산재하여 적합한 응답을 요구하는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프로젝트의 유지가능성과 기대되는 결과의 전달 능력은 재정 및 기부 유인 능력에 크게 의존
  - Wikiprogress의 성공은 국제 통계 및 연구 사회에 프로젝트가 작업의 새로운 방법의 이점과 품질관리를 담보함을 보여주는 능력에 의존
  - 개도국의 관여는 현존 정책 및 통계과정에 연계 뿐만 아니라 능력형성에 많은 투자를 요구
  - 프로젝트의 연구사업과 타 주요 국제통계 사업과의 관계 강화

4. 2010-11 사업계획서는 3가지 도전을 보고하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될 것임. 동시에 증가하는 파트너, 협력자, 관계자가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여하고 현재 정치 환경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는 프로젝트 결과의 량과 품질을 고양시키고 전반적 충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임

5. 위원회는 이 진보 보고서를 양지하고 2009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코멘트, 2010-11 사업계획서 개발을 향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초빙

##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형성 : 사업 제안

### 요약

1. 2008. 11월 이탈리아에서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온 결론에 기초. 결론은
  - 1) 점증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최고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
  - 2) 이 방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며 견고성은 가정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해 검증 가능
  - 3) 층별 인구 자료에 바탕을 둔 능률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에 확장 가능임
2. 통계청과 정기적인 측정을 하는데 사용될 핸드북 발간을 목표로 컨소시엄 구성 제안
  - 1) 참가 후보국 : 호주, 케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중국
  - 2) 의장 : OECD 통계국 부국장을 내정
  - 3) 활동기간 : 12개월
3. 대표단은 1) 제안에 대한 note 2) 사업의 폭과 방향에 대한 코멘트 3) 컨소시엄 참가의사와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주기 바람
4. 검토의견 :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인적자본 측정은 국민계정체계(SNA)의 한 분야로 한국은행 소관임

### I. 소개

1. 경제성장의 결정, 발전 방향의 유지, 사회적 소외 회피 전략의 인자로서 인적자본의 중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적 자본의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만이 광범위한 인정. 공통의 방법 및 표준 정의의 부족이 국제비교 및 정책 토론에 제한을 가져왔고,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인적 자본의 기여를 신장하는 최선의 방안 인식에 제한

2. 종합적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실제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 “자본구조에 의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정에 대한 UNECE/OECD/Eurostat 공동 작업반의 접근법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소홀히 할 때 웰빙 개념도 결국은 변질될 것임. 이 접근법은 광범위한 형태의 자본 측정을 요구하나 보고서에서 제안한 실재적 지표는 단지 개념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며,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속하는 다양한 경로 반영에는 실패

3. 이러한 이슈에 부응하여 OECD는 2008. 11. 이탈리아에서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합한 측정 구조는 생애 소득 할인 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합의.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바탕 아래 인적자본에 대한 진보된 통계적 작업을 위한 가능한 사업에 한정

## II. 인적 자본과 비시장 계정

4. 인적자본의 금액 측정을 위한 방법의 개발은 최근에 대두.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정은 동일한 회계방법을 사용하여야 구축 가능. 다양한 비시장 활동에 대한 계정구축을 위한 실질적 지침서는 미국 국가 과학원에서 보고서를 제공. 보고서는 비시장 활동의 투입과 산출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방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인적 자본 분야에서 비시장 측정은 처음에는 정규교육에 제한, 점차 정규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성인의 직업 교육 등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제안

5. 정규교육을 위한 종합 위성 계정은 다양한 교육과정에서의 투입과 생산된 산출의 가치를 합계하는 것이 될 것임. 이는 투입, 산출 계정의 가장 중요한 항목 인식과 특정한 측정 문제를 풀어야 함

- 투입부문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가계와 교육기관의 교사와 지원 인력에 대한 지불과 학교설립, 장비 및 SW 등을 위한 자본 투입에 대한 금액적인 지출임. 투입은 또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자신의 헌신, 부모와 타인의 지원 등 지불되지 않은 시간을 포함

- 산출부문에서는 교육서비스는 고소득과 생산성으로 측정 가능. 타 항목으로는 교육의 레저 활동에서 느끼는 보상 등 비시장 생산성에 대한 효과와 시민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보답 등을 포함 가능

### Ⅲ. 인적자본 측정 : 생애소득 할인법

6. 실무에선 인적자본의 종합 계정은 비록 공식 교육에 한정될 지라도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지속 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은 인적자본의 총량과 이의 변화에 두기 쉬움. 다른 접근법은 회계상 잔차 방법과 현재의 인적자본보상 계상법이 있음

7.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각자의 생애소득 할인법에 바탕을 둔 직접적인 측정을 선호. 이 방법은 교육 상태별 관찰된 소득에 바탕을 두고 미국의 Jorgenson과 Fraumeni이 개발. 이론은 교육 상태별 임금 보상은 자체적 경쟁력의 신호이며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교육의 효과 보다 학교 시스템에 따라 개인을 분류라고 하는 가정. 실무에선 임금의 프리미엄이 생상선 향상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는 관점

8. 생애소득 할인법 변수에 따른 실증적 추정이 OECD국내 다수 존재. 이러한 추정의 가정과 포괄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애소득 할인법은 기존의 국부 추정보다 광범위하고 추정량이 많다는데 동의. 또한 교육 정도별, 성별, 나이별 인적자본 구성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인적자본 축적의 속도를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줌

9. 이 방법 채택의 장점은 1) 국제적 및 시계열상으로 비교 가능한 유일한 금액 측정법 제공 2) 금액의 분해 가능성은 향후 상황을 예측을 가능케 함 3) 모든 범주의 투입과 교육 형태를 포함할 때 여러 정부기관간 정책 대화에 선호될 것임

### Ⅳ.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OECD 워크숍

10. OECD는 다량의 교육지표의 수집과 배부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SNA상 교육성과 측정에 대한 방법 개발에도 활동적

11. 인적자본 측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면과 요소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워크숍 개최. 워크숍의 기본 목적은 나아갈 방향과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표준 회계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토론의 결론은 1) 점증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최고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 2) 이 방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며 견고성은 가정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해 검증 가능 3) 층별 인구 자료에 바탕을 둔 능률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에 확장 가능

## V. 프로젝트 설립

12. 이러한 결론에 따라 비서국은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 컨소시엄은 통계청 대표자, 대학 및 리서치 센터의 연구자를 포함할 것임. 참가자는 1)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에 대한 토론 2) 인적 자본 틀과 전통적 경제 계정에 사용한 틀과의 관계 토론 3) 선호 접근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요구 인지와 OECD 통계시스템 내에서 사용가능한 자료요구와 비교 4) 비교 가능한 가정과 공통 정의에 바탕을 둔 총 인적자본량의 추계를 하게 될 예정

13. 인적자본 구축 경험을 제출한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과 비유럽지역은 중국이 이 분야의 경험과 관심으로 컨소시엄에 관여 가능할 것. 컨소시엄은 2009년 가을 발족하여 12개월의 시작 기간 동안 운영하며 OECD 비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것. 참가자는 주로 비디오 시스템 및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 활동할 것으로 예정.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는 핸드북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14. 이 분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통계인이 이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됨. 전문가는 OECD 직원과 선도적 학자들과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조정하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OECD 자료 은행을 개발할 것임. OECD 통계국은 노르웨이 통계청과 OECD 부국장을 전문가로 출발하기로 합의

15. 대표단은 1) 제안에 대한 note 2) 사업의 폭과 방향에 대한 코멘트 3) 컨소시엄 참가의사와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주기 바람

## 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OECD 역할

### 요약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에 대한 지침과 자료 보급과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시작되어 왔고 한편 몇몇 국제기구는 이들 자료를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platforms)과 솔루션(solutions)을 개발해 옴. 위원회는 기술 상태를 토의하고 더욱 통합된 국제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음

### I. 소개

1. Twewin(2008)에 따르면, 글로벌 통계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세계와 지역단위로 통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 유엔통계위원회(UNSC)와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와 같은 연합 포럼
  - 국제통계활동관리 원칙
  - 국제통계표준
  
2. 지난 10년간에 걸쳐 국제통계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어 왔음. 어떤 경우에도, 비록 개별 기구에 대한 임금 부여가 많은 발전이 있었고 국제기구간 협력이 많은 점에서 향상되었지만 국제기구의 전망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유사하게 비록 점차 많은 참가국이 국제통계시스템(ISI) 특히 표준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최고 역할을 강화시켰지만 통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급변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는 최근 권한을 재정

의하고 국제통계활동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국제기구(IO)의 활동 조정에 더욱 체계적인 접근법을 갖추려고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계시스템(ISI)의 전반적인 관리에서의 그 역할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

3. 반면, ICT의 발전은 국제기구가 자료와 메타자료(metadata)를 수집, 처리 및 보급하는 방법의 혁명을 가져옴. 더욱이 이러한 정보기술 발전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각국 자료 제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국제기구가 수집하는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과 재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료와 메타자료교환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2001년에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지금 Trewin의 목록은 SDMX를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제5요소로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함

4. 이제는 제 6요소인 범용 소프트웨어가 그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을 것. 지난 몇 년에 걸쳐 몇몇 통계청과 국제기구가 다른 기구가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메타자료 수집, 처리, 보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 옴. 동시에 민간 부문과 연구기관 또한 시각화 도구와 매쉬업(mashups)과 기타 웹2.0 도구를 통한 통계와 기타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 투자해 오고 있음

5. 이 보고서는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마지막 두 요소에 초점을 두고 OECD가 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소개. 특히, 보고서는 i)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SDMX) 프로젝트 실행에서 이룬 진전 ii) 다른 기구와 OECD 통계정보시스템(SIS) 공유 경험 iii) 통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청이 시작한 기타 시도들 iv) 통계의 시각화와 소통을 위한 ICT 도구의 개발에 협력하는 현재 시도.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활동이 더욱 통합된 글로벌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에 초점

## II. 자료와 메타자료의 공유 : SDMX의 이용

6. SDMX는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 표준임. OECD의 관점에서 SDMX는 국가기관과 국제 기구간, 국가 통계시스템 내 그리고 기구내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공. SDMX는 유엔통계 처(UNSC)가 인정하는 선호되는 표준이고 그 주요 목적은 자료와 메타 자료 교환을 촉진, 기술과 표준의 효율적인 사용, 국가 기관의 보고 부담 경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유용성 향상에 있음

7. 전년에 새로운 SDMX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혹은 기존 프로젝트의 발전 그리고 자료교환에 대한 글로벌 표준으로써 SDMX의 활성화에서 OECD측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 이러한 OECD활동은 참가 기구에 의한 많은 다른 것과 함께 파리에서 개최된 2009 글로벌 SDMX에 초점을 둠. 이 회의에는 65개국과 거의 20개 국제기구로부터 240명 이상이 참석

8. SDMX에 관련해 OECD가 취하는 조치는 어떤 새로운 통계 절차나 혹은 소프트웨어 발전도 자료 교환 메커니즘으로써 SDMX와 통합되어야 하고 기존 시스템은 투입과 산출 모두 SDMX에 제공해야 하는 것임. 이러한 노력이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기존 CD-ROM에 기초한 OECD와 IMF간 자료교환 방법은 현재 폐 지중이고 SDMX를 이용한 자료 웨어하우스 대 자료 웨어하우스 (data-warehouse-to-data-warehouse) 방식(웹서비스)으로 대체됨
- OECD 자료의 재판매업자는 OECD자료 수령의 표준 절차로 SDMX의 계획된 채택의 일환으로 현재 CD-ROM 대신 SDMX 웹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수령하는 방법을 시험 중
- 독점형태를 사용하는 기존 상업적인 CD-ROM 보급 플랫폼을 SDMX와 어떤 플랫폼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일반적 리더(reader)로 대체하는 시험이 진행 중
- SDMX 투입과 산출은 계획되었거나 OECD.Stat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와 StatWorks 생산 소프트웨어에 적용 중

- 유로스탯, OECD, UNESCO 합동 교육자료 수집시 SDMX를 활용하는 시험을 진행 중
- IMF, 세계은행, 유로스탯, ECB, BIS 그리고 OECD와 함께 SDMX를 합동 위기 자료에 사용하는 시험 진행 중
- 스웨덴 소재 NCVA 연구소가 OECD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OECD 탐색자료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괄적 정보(input)로 SDMX가 사용

9. 기타 국제기구는 SDMX에서 자료를 받고 보급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 그러나 2009년 파리 회의에서 인정된 것처럼 SDMX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데는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존재. 이것은 다음과 같음

- SDMX는 전반적인 통계작성 과정에서 전략적인 사고와 그의 충분한 통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적용은 통계적인 것만큼 순수 IT관련 활동이라는 인식 제고
- 사용자 포럼은 국가 기관과 기타 기관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글로벌 SDMX 커뮤니티 개념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요청 됨
- 국제기구는 보고 표준에 합의하고 국가 기관들이 자료 보고를 위해 SDMX의 장점을 취하도록 허용하도록 더 많은 자료구조정의(DSD)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훈련 교재를 만들어 각 국 기관이 SDMX 표준의 적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글로벌 SDMX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각 국 전문가의 포럼과 지역 회의 필요
- 업무과정에서 SDMX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최고 관리자에게 그 이점에 대해 설득하는 좋은 방법일 것

10. 파리에서 열렸던 2009년 회의에서 도출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식제고와 표준 사용에 대한 이점과 사업사례를 촉진하기 위해서 SDMX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투입될 예정
- SDMX 형 자료구조정의(DSDs)와 개정되거나 새로운 방법론적인 발전에 부가되는 코드 목록을 개발하고 발간하는 데 국제기구에 의한 통합 접근법을 취해야 함(예를 들어, 국민계정체계- ISWGNA는 이미 개정 2008 SNA를 위해 국민계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토의)
- 후원기구가 상업 자료 판매상에게 보급하는 자료와 메타자료 제공에서 SDMX 표준과 지침 이용에 통합 접근법을 취해야 함
- 이용 가능한 도구를 검토하고 무슨 조정이나 추가적 도구가 SDMX 역량 증진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권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e-learning 도구 개발 계획은 그것을 SDMX 웹사이트에 게재한다는 점에서 사무국이 제안해야 함
- 세계 SDMX 커뮤니티를 다루는 지역 세미나 프로그램은 훈련센터와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함

11.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와 국제적 수준에서 몇 년 후 SDMX의 완전한 적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통계청과 국제기구의 장들의 적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 SDMX의 적용 이점의 크기는 이러한 표준을 이용하는 기구수와 협력적으로 DSD를 개발하고 역량증진 활동을 지지하는 국제 통계커뮤니티의 역량에 비례

### III. 소프트웨어 공유 : OECD통계정보시스템

12. 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수단은 소프트웨어 요소를 발전시키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모든 국제기구가 사용토록 개발하는 것임. 첫 발표를 위한 개발 작업이 2003년 되자마자 OECD는 그 통계정보시스템(SIS)을 공유하기 시작. 유엔통계국(UNSD)과 협동으로 합동 교역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축하고 이행에 있어 성공적인 실행에서 이것은 계속 되고 그런 합동 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그런 접근방법의 이점은 명확해 짐. 결과적으로 OECD는 SIS발전이 여러 회의, 세미나 그리고 기타 포럼 동안 일어날 행사로 공유를 위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기타 기구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

13. OECD는 그 이후 기타 국제기구, 통계청, 대학 그리고 민간 회사로부터 OECD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에 대한 많은 추가적 요청을 받음. 그러므로 2008년 협력기구와 양해각서를 토대로 한 더욱 형식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비용 회수의 요소를 포함하기로 결정

14. 기구들이 통계나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많은 명확한 이유가 존재. 이러한 이유 중 가장 명확한 것은 다른 기구의 처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기술 솔루션 재사용과 채택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임. 덧붙여 협력 당사자중 하나가 결과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새로운 특징은 기타 협력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공유하고 재사용 가능.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시스템 사용은 구조와 내용 모두에서 통계 표준의 이용을 촉진하고 가능케 함. 예를 들어 통계정보시스템(SIS) 요소는 SDMX 표준을 입력과 산출로 광범위하게 사용. 마지막으로, 통계자료관리용 동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사용은 기구간 합동 자료 수집이나 보급 결과를 촉진

15.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생산, 저장 및 보급과정을 관리하는 OECD 통계정보시스템의 세 주요 요소(StatWorks, MetaStore 그리고 OECD.Stat)는 다른 국제기구와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임. 다음 도표는 어떻게 각 요소가 전반적인 OECD 통계정보시스템 구조에 조화되는 지를 보여줌

16. StatWrokr스 소프트웨어는 자료 입력, 확인, 계산, 질의 및 출력을 다루는 자료 관리 도구와 함께 통계적 양적 및 질적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SQL 기반 저장소를 제공. 이 애플리케이션은 OECD의 SIS의 기타 요소와 완전히 통합되도록 설계. StatWorks는 현재 UN-ESCAP이 생산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UNESCO 통계처와 뉴질랜드 통계청에 의해 평가 받는 중

17. MetaStore는 통계의 구조와 참조 메타자료에 접근하고 관리하기 위해 웹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일반적 툴킷임. 구조 메타자료는 다차원의 데이터셋 구조를 설명하고 차원의 코드와 이름과 대응하는 차원수를 포함. 참조 메타자료는 데이터셋 내 자료의 성격을 기록하는 텍스트 정보로 구성되고 전형적으로 데이터 셋의 다차원 구조의 다른 차원에서 자료의 수집, 처리, 목적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포함. MetaStore는 다음과 같은 기구에 의해 사용되거나 평가 중, 즉 유네스코 통계처, 유엔통계처 (UNSC),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FAO, 유럽중앙은행, CBS(네덜란드 통계청), 호주 통계국, 뉴질랜드 통계청, 영국 통계청 및 세계보건기구

18. OECD.Stat은 내부적인 자료 공유와 외부적인 보급에 사용되는 통합 자료 웨어하우스. 이 시스템은 OECD활동의 모든 부문과 기타 국제기구의 공유나 혹은 공표 가능한 자료에 조화되고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적인 접근을 제공. 이 시스템은 생산 자료와 메타자료, 분석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그리고 웹, 종이 그리고 전자 자료 생산물을 통한 통계 보급을 위한 OECD의 통계정보시스템의 기타 요소와 완전히 통합. OECD.Stat는 다음과 같은 기관 즉 IMF, 호주 통계국, 뉴질랜드 통계청, 영국 통계청 및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사용 또는 평가되고 있음

#### IV. 소프트웨어 공유에서 OECD의 경험 : 찬반양론

19. 기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토록 하는 것의 명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동 모험 시도는 여러 동업 기구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20. OECD의 관점에서 양자협력의 가장 직접적인 예는 합동 연간 무역 시스템 개발에서 유엔통계처(UNSD)와의 협력임. 이 경우에 프로젝트의

시기는 양 기관이 공동의 시점을 갖고 양쪽에서 명확한 구분을 정하는 전반적 활동계획에 동의하도록 함. 이것은 개발 작업이 약간 또는 중첩 없이 나란히 진행하고 여러 부분이 매우 적은 추가적 관리 비용으로 제 자리를 잡음

21. StatWorks와 MetaStroe의 경우에 OECD는 원래 갱신된 것과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제공하면서 완성품을 사용하기 원하는 기타 기구에 당시에 완성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음. 단 한쪽(OECD)만이 이 단계에서 개발 작업을 하고 그 결과 낮은 추가 관리비용을 들기 때문에 이제품은 매우 쉬운 것으로 입증됨.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유의 경우이지만 모든 개발이 단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협력이 아님

22. OECD.Stat 자료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가장 복잡한 협력 시나리오라는 것이 입증됨.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IMF에 SIS 요소를 제공하였고 그 제품의 개발도 향상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이것이 당초 OECD 밖에서 사용되거나 배치되는 것을 설계되지 않은 복잡한 시스템이기에 상당한 투자가 개발자에 대한 필요한 전문지식 이전에서 OECD와 IMF 양쪽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서의 상당한 투자가 요청됨. 더욱이 양해각서와 양 기구에 합동 IT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량에 동의하는 데 있어 상당한 관리 비용 존재. 이러한 경험에 이어 우리는 추가적인 개발 파트너가 새로운 요구사항, 새로운 우선순위 및 리소싱의 지속적인 추가로 인해 어떤 추가적 개발 파트너도 추가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이런 협력 과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OECD는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IMF가 이런 많은 발전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장점 또한 있음

23. OECD는 현재 후속적으로 계속 기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고 중간의 모든 선택과 더불어 가장 복잡한 개발 파트너의 컨소시엄에서 개발활동과 보급 코드를 협력하는 한 기관의 가장 단순한

선택에 이르기 까지 다른 선택권을 검토하는 것임

## V. 국제기구와 국가통계기관이 개발한 기타 소프트웨어

24.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에 기여하는 통계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많은 여타 기구 존재.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기보다 특정 단계의 통계자료 처리과정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 다양한 참여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각각의 도구가 특정 필요를 충족하는 전체 시스템의 보충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지는 탐구해야하는 것을 강조해야 함. 물론 다음 목록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단지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

### PC-AXIS

25. PC-Axis는 원래 스웨덴 통계청이 개발한 통계자료 저장, 보급을 위한 시스템임. 스칸디나비아 통계청들의 컨소시엄이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듈의 추가 개발에 관여해 왔고 이 시스템은 그 이후 통계의 보급을 위해 기타 기구에 의해 폭넓게 채택. 현재 몇 개의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약 40개 기구에 의해 사용. 이 시스템은 통계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터넷으로나 혹은 오프라인 미디어로 보급 그리고 고품질의 간행물 생산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듈 셋을 포함

### 세계은행 자료플랫폼 소프트웨어

26. 데이터 플랫폼(DP)은 세계은행이 그 고객들이 그들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발한 웹기반 시스템임. 데이터 플랫폼은 경제, 금융 및 사회자료 그리고 똑 같이 중요한 메타자료와 같은 양적자료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 데이터 플랫폼은 자료를 관리하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기존

DB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 사용자는 자료를 탐색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지도와 도표 생성, 내용 생성(보고서, 도표, 지도, 이들의 결합), 자료 보급과 이러한 자료의 웹상에 발간, 자료 조직, 내용 관리, 엑셀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자료 받음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DP)에서와 웹상에서 보고서, 도표 및 지도형태로 자료 관찰 등임

### DevInfo

27. DelInfor는 UN시스템을 대신해 UNICEF가 관리하는 인적개발에 관한 자료작성과 보급에 사용되고 전체 UN 시스템에 대한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것의 특정 목적은 기존 자료를 저장하고, MDG자료의 부족함을 알고, MDG 지표 자료에 대한 유일한 입력점을 제공하고 정보를 보급에 있음

### 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의 블록 쌓기

28. 다양한 소프트웨어 요소가 아래 표에 요약된 것처럼 상이한 통계 처리과정의 일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

	OECD SIS	Devinfo	PC-Axis	World Bank
원시자료 입력	×			
자료 검증	×			
산출시계열 계산	×	×		×
메타자료 관리와 통합	×	×	×	×
중앙저장소로 출력	×	×	×	×
보급	×	×	×	×

### 시각화 도구

29.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유에서 증대되는 중요부문은 통계를 전달하고 통계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각화 도구임. 2007년 이후 OECD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에 기여하고 장려할 특정 목적으로 다양한 그래픽과 기타 시각화 도구에 관한 일련의 연간 세미나(2007 로마, 2008 스톡홀름, 2009 워싱턴 디시)의 조직을 활성화함. 이러한 세미나는 사회 진보측정에 관한 OECD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고 이는 시각화 도구가 “상당한 변화나 부족한 지식 분야를 강조하는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폭넓고 공유되는 공공의 이해”라는 이스탄불 선언에서 언급한 목표중 하나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30. 또한 국제통계시스템 외부의 기관과의 이러한 대화의 촉진 덕분에 많은 중요한 개발이 OECD에서 현재 진행 중. 즉,

- OECDExplorer : 이것은 지역통계를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한 웹기반 인터페이스임. 이 상호작용적 도구는 사용자로 하여금 관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분석을 허용하는 여타 시각적 프리젠테이션과 지도를 결합.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음. OECDExplorer의 개발은 OECD와 Mikael Jern 교수가 이끄는 스웨덴 Norrköping에 국립 시각분석센터(NCVA)간의 협력의 결과임. NCVA의 개발팀은 도구의 개선하고 OECD가 제기하는 모든 수요에 맞춰 집중적인 활동 지속. OECDExplorersms 많은 기타 통계에 대한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 현재까지, “지역개관”(Regions at a Glance)과 OECD 팩트북 자료의 간행물에 포함된 지역자료 보급에 사용됨
- Data Mapper : 이것은 자료에 접근하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자료 시각화 도구임. 자료는 세계지도나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개별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과 기타 집단에 대한 선택된 자료가 될 수 있음. 지도와 도표는 완전히 쌍방향의 것임
- Gapminder/Trendalyzer : 이것은 원래 스웨덴의 Hans Rosling's 겹마인더 기금에 의해 개발되어 구글사가 2007년 3월 취득한 통계의

애니메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현재의 베타판은 세계 각국의 발전에 관한 통계와 역사적 자료를 사전 탑재한 플래쉬 애플리케이션임. 몇 개의 Trendalyzer 소프트웨어의 몇 요소, 특히 플래쉬 기반 동영상 도표 장치는 구글 시각화 API의 일부로 일부의 이용이 가능. 이 장치는 2008년 이후 “OECD팩트북” 자료 보급을 위해 사용해 음

31.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2008년 그래픽 세미나의 결론중 하나는 통계청과 국제기구와 같은 통계기구와 연구기관, 대학 및 독립기업가간의 합동벤처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OECD eXplorer에 대한 OECD와 NCVA간 활동의 성공은 이러한 접근법의 성공을 강조: 이 도구는 시계열과 지역 정보 모두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고 지금 다른 기구들이 이러한 솔루션 공유에 관심 표명

32. OECD는 2008년 스톡홀름 회의로부터 계속 이어서 통계의 시각화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 작업 중. 이 그룹은 아이디어의 교환과 새 도구의 개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 그래픽 시각화 도구에 대한 2009 세미나는 7월 15,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고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많은 새로운 혁신을 제시할 것임. 세미나 기간 중 사회 진보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후원 하에 Kessler 기금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회원간 소프트웨어 공유와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새 웹사이트가 제시될 예정

가능한 다음 단계

33. 위의 테이블과 이전 장은 통계의 수집, 처리, 보급 및 전달용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풍부함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더 나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간의 가능한 시너지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시. 다른 기구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OECD는 이것이 비용 절감 이유와 국제표준의 촉진을 위해서 좋다고 확실하게 믿음. 프로젝트 협력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유의 복잡성에 불구하고

이점이 단점보다 크고 이러한 접근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더욱 널리 채택되고 장려되어야 함

34. 명확히 소프트웨어 공유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글로벌 통합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과제가 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음

- 중앙집중관리시스템에서 컨소시엄 접근법에 이르는 공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나리오 발견
- 중앙집중관리 소유 소프트웨어나 혹은 공개 소스에서의 선택
- 비용복구에 관한 적절한 균형 발견
- 어떤 소프트웨어 요소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후보 결정

35. OECD는 이러한 실행에 관련된 많은 단계에 개입. 그것은 어떤 기구와의 협력에도 적용될 표준양해각서를 기초, 평가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의 완성 그리고 다른 기구와의 평가연구의 지속적인 장려를 포함

36. OECD는 각국과 국제기구의 투입과 경험을 구함. 즉 i) 무엇이 일관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블록(building block)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 ii)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규칙에 합의 그리고 iii) 향후 참여하고 그들 시스템을 공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최소한의 표준의 개발 촉진하기 위함

37. 기술적인 측면에서 OECD는 우리가 개발해 온 SIS는 최소 표준의 주요 특징을 알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은 국제기구에서 전통적인 통계 과정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유일한 도구임

38. 이러한 활동의 보다 좋은 협력에 대한 가능한 과정의 관리에 관한 현재 국제적인 통계 커뮤니티가 만나고도 함께 하는 몇 개의 중심이 있음

그것은 최근 소프트웨어와 방법의 공유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통계정보시스템관리(MSIS)에 관한 UNECE 그룹, 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에 관한 OECD작업반, OECD 주관 글로벌 프로젝트와 그의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IT 주제에 관한 유로스탯 그룹 디렉터 그룹을 포함. 이런 작업을 조정하는 가능한 방법은 기존 CCSA(그러나 이 조직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는 비포함)나 혹은 기존 조직의 이용(MSIS 같은)

39. 활용 가능 자원의 부족을 고려시 우리는 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여타 기관에 의한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함. 이 분야에서 더 나은 활동 조정이 긴요하고 또한 UNDATA 같은 자료 보급과 전달을 위해 국제기구가 시작한 대규모 시도가 또한 특정 SDMX에서 합의된 표준의 사용을 통해서 완전 통합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함

40. 통계위원회는 다음을 위해 초빙됨 즉,

- 보고서를 주목
- 이 분야 특히 통계청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소프트웨어 공유 전략에 대해 OECD가 취한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 향후 방향에 관한 지침 특히, 관리 측면에 관한 지침 제공

## 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

## 요 약

1. 이 보고서는 아젠다 항목 8의 토론을 위해 호주 통계청이 준비.
2. 일부 국제기구가 자료 공표에 대한 새로운 도구와 솔루션을 개발한 반면에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의 가이드라인을 개발과 자료 공표와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업이 지난 수년간 착수되었음.
3. 위원회는 개발 상태를 토론하고 보다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초빙.

1. 중대한 통계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와 더불어 호주 통계청은 동일 혹은 비슷한 미션, 사업체 모델, 통계 설계, 구성요소와 의무를 가지므로 국제 통계 사회가 방법, 구조, 과정, 경험과 기술 공유의 오랜 역사는 놀라운 일이 아님

2. 일부 사례는 1) SNA 2008, MDG's과 같은 UN, BMP6과 같은 IMF의 틀 형성 2) Eurostat METIS와 같은 틀 형성 과정 3) 기술적 접근과 산출물 4) 비밀 보호 방법과 원격 접근 자료 저장소 기구 5) 통계 자료와 관련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SDMX 채택을 포함

3. 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기구에서 집중 되지만 통계청과 국제기구에서 착수한 많은 최근의 사업은 특히 디지털 정보 세대와 인터넷의 성장을 반영하는 자료 공표 문제에 관심 집중. 기구간

자료공유 지원을 위한 도구와 솔루션 개발이 있었으며 현 세대 사용자의 접근 편이성, 이해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능의 제공이 있었음.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에서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장기 과제라는 사실임

4. 이러한 상황은 호주에서도 유사. 국가통계서비스(NSS)를 이끄는 ABS의 통합된 호주 통계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 개발은 초기 단계임. NSS는 호주 국가 및 지방 수준의 정부기관으로 정의되며 보다 정보화된 호주를 위한 풍부한 통계 구축

5. NSS의 개념은 1) 일련의 합의된 통계 틀, 기준, 정책과 자료출처의 통합 2) 공식 통계의 통합과 객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정부, 시장, 사업체, 및 사회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공유된 가치와 관련 행동 강화임

6. ABS는 NSS 측면과 국제적 측면에서 통합 통계 정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고려하여 왔으나 단일 정답은 없으며 ABS의 관점은 다수의 주요 단계는 성공의 가능성을 신장시킬 것임. 첫 번째 단계는 1) 통계청 메타 데이터 전략의 조정과 통합 2) 기준 개발 3) 진보적 수준에서 SW와 컴포넌트의 진정한 공유 달성에 대하여 향후 수년간 달성 가능한 작업에 집중된 토론을 포함

7. ABS는 이미 타 통계청이나 ABS와 관계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많은 통계 기반 요소와 접근법이 있음을 인지. ABS는 하나의 NSS 사업을 선도하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통계 기반과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거나 유연한 구조와 풍부한 도구가 필요한데 독자적이 아닌 협력을 모색하며 장려

8. ABS는 사업 과정 재설계, 기술투자과 관련하여 타 통계청과 보다 효과적이고 목적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 일부 접근법은 광의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공개 기준과 공개 자료원 접근법의 많은 사용에 대한 통계적 허용
- 일반 사업모델과 언어를 향하여 가속화된 사업
- 공유된 통계 틀에서 보다 많은 기술 영역 인식
- 강한 공조를 위한 고위 관리 수준 지원
- 타 통계청과 국제기구의 투자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위한 메커니즘

## 9. ABS의 아이디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범주

- 통계청과 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틀, 기반, 응용에 대한 재고 조사 수행
- 통계청에 의한 투자나 재고처분 정보 공유
- "통계적 toolbox"에 대한 UN/OECD가 수행한 사업 점점
- 공유를 장려하는 기술사용 고려
- 일반 사양서 개발
- 공동 사업에 대한 통계청의 메커니즘 형성
- 직원 교환 또는 파견 가능성 검토
- 통계청 기술직원에게 통합 통계 정보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방법을 토론하는 기회 개발
- 공공 지배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공동 사업을 위한 구조 가능성 검토

## 10. 많은 구조적 및 기타 장애가 예상되나 이 보고서에서 토론된 것은 보다 효과적인 공조의 가능성이 있음

- 자신의 SW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 감소
- 사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보다 집중된 투자 가능
- 통합 통계 정보 시스템 출현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기반의 이용 가능성 가속화

## 11. ABS는 모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 혹은 모든 조직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고 제안하지 않음. 아래의 사항이 있는 전반적 시스템을 위한 구조의 개발을 기대

- 무엇이 이미 가용한 레버리지인가
- 다른 국제기구가 다른 콤포넌트에 "plug in" 허용
- 새로운 콤포넌트와 능력 채택
- 국제기구간 새로운 계획에 대한 협력적 기획 허용
- 콤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로지르는 협력 지원
- 효과적인 end-to- end 통합 콤포넌트에 집중

12. 이보고서는 주제에 대한 예비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ABS는 관심여부에 대한 동료들의 견해 표명을 위한 기회를 환영. ABS의 견해는 통계청 및 국제기구 수준의 사용자에게 국제통계사회가 이 과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13. 토론을 위한 가능한 이슈

- 무엇이 우리의 공통요구 인가?
- 무엇이 우리의 공통 도전인가?
- 협력으로 얻을 이익이 있을 것인가?
- 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 무엇이 기회이고 장애인가?

## 아동복지 측정

### 개요

1. 아동복지 측정에 있어 자료수집 메커니즘과 관련된 윤리 문제 및 기준인구 특성으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개선방법과 OECD 보고서로부터 얻은 교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committee) 소집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OECD 아동 복지지표 기본 틀 및 OECD 회원국의 아동 복지 측정 틀로서 정책적으로 유용성 있는 지표 연구 성과 제시
2. OECD 아동 복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발된 아동 복지 기본 틀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측정가능 개념으로서 아동 복지, 이론적 분석, 경험적 사례 내용과 방법론, OECD 아동 복지보고서에 제시된 관련지표 및 현실적 한계, 부문별 아동 복지지표, 관련통계 평가 등을 다루고 있음
3. 위원회 회원은 아동 복지지표 기본 틀과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견해, 자료 관련 - 자료 품질 및 가용성 견해 등을 피력하고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 복지 관련 사업과 정책을 보고하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아동 복지 측정을 위한 제언 및 권고사항 제시 요망
4. 아동 복지 측정에 관한 OECD 보고서에서 얻은 교훈은 각국 정책입안자들의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아동 소득빈곤지표, 교육보건지표 등은 다른 아동 관련 측정 성과들과 더불어 아동 삶의 질 평가에 활용
5. 본 보고서는 크게 4대 부문으로 나뉘어, (1) 아동 복지 개념, 측정 관련 이론적 쟁점, 국가별 비교 경험 사례와 방법론, (2) OECD 아동 복지 지표 기본 틀, 측정 분야, 현실적 한계, (3) 부문별 아동 복지지표, 관련 통계 평가, 연령별/성별/국적별 아동 복지지표, (4) 아동 복지 통계 프로젝트 - 2009 아동 복지 전문가 자문 (2009. 5월), WIKICHILD 프로젝트 등

## OECD 회원국 아동 복지 개요

6. 표1은 정책중심의 아동 복지 측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질적 행복, 주거/환경, 교육적 행복, 보건,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 제시. 위 6개 분야는 각각 수개의 핵심지표들로 구성되며, 색깔과 수치로 국가별 현황 표시

- 예를 들자면, 밝은 회색 - OECD 지역 평균 이상, 짙은 회색 - OECD 지역 평균 이하, 흰색 - OECD 평균,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아동 행복 성과 달성 의미.

- 이러한 6대 부문 비교를 통해 국가간 성공/실패의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고, 국가별 취약부문을 용이하게 밝힐 수 있으며, 상대적 선두 그룹과 후위 그룹 간 비교가 가능

## 아동복지 분석

7. 아동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된 측정 방법은 현재 없으며, (첫째) 행복은 다차원 개념으로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나 (둘째) 아동들에게 직접 그들의 행복에 관해 물어보는 방법이 아동 복지 정의와 측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2가지 접근법

8. 현재 아동 복지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단면을 아우르는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 빈곤 또는 물질적 박탈과 같은 물질적 측면이 결여

9. 최근에 Ben-Arieh & Fronese는 '아동 복지는 광범위한 삶의 질을 일컫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 친구관계, 정치적 권리, 개발기회 등을 아우르며, 아동 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측정은 웰빙과 연관성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 이러한 접근법은

아동들이 스스로의 복지에 대해 표현하게 하며, 일부 삶의 단면과 지표를 들어 평가하는 것을 방지

10.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이며 정책적으로 유용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아동들이 자신의 주관적 행복에 관해 적절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한, 자료와 이론의 실질적 한계는 있음

#### 아동복지 측정의 이론적 분류

11. 아동복지, 오늘과 내일;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과 사회기술 축적에 초점을 맞춰온 발전론자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well-becoming'일 터이나, 아동 권리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OECD 보고서에 인용된 지표들은 아동 미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18세 이하를 'child'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정의를 감안할 때, 인생의 1/3을 아동으로 보내게 되므로 현재 행복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됨

12. 아동 복지, 긍정적 측면에서의 측정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측정; 어떤 이들은 빈곤아동 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아동 복지를 긍정적인 연속변수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어. 역사적으로 어린복지 측정은 문제행동,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집중한 '결합적 접근법'으로 효율성, 평등과 같은 정책적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아동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힘과 능력에 대한 측정을 누락할 위험이 있음

#### 복지측정에 아동 참여

13. 국가간 비교: 아동 복지에 관한 국제비교 시도는 UNICEF 아동복지 보고서가 대표적으로, 다차원 지표 접근법 이용. (표2) 자료 부족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터키 등 제외

- 네덜란드, 스웨덴이 가장 상위 그룹이면, 영국, 미국은 가장 하위 그룹
- 이러한 조사가 선진국 아동 복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파악하게 됨
- . 영역별로 필요한 지표 구성에 대한 분석이 없어
- . 보건/소득/교육 등 분야별 복지 측정일분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측정 부재
- . 적합한 (측정) 이론 부재로 지표와 영역별 가중치 사용
- . 자료 적시성이 낮고 국가별 개념 격차 상존

#### 아동 복지 지표 선정

14. 6대 부문; 어린이 삶의 질 측정을 위해 물질적 행복, 주거/환경, 교육, 건강(또는 보건), 위험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 6대 부문 선정

- 지표 선택; 6개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지표 선정 기준은,
  - . 가족이 아닌 아동 중심의 분석 (아동 빈곤, 행복)
  - . 가능한 한 최근(또는 최신) 지표 선정
  - . 표준화된 자료 수집에 의한 지표 선정 (국제비교 가능한 행정자료, 통계조사 자료 등)
  - . 0세 - 17세 인구 대상의 지표 선택
  - . 가능한 한 전 OECD 회원국 포함하는 지표
  - . 부문간 상호보완성 있는 지표 선택 - 한 지표가 특정 연령/범위/시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다른 지표는 이를 제외한 연령/범위/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 선택
  - . (표3) - 21개 지표
- 현실적 한계
  - . 위 표에서 보듯 많은 지표에서 국가별 정보가 부족하며, 21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만이 전체 회원국 비교 가능.
  - . 또한, 출생부터 17세까지 아우르는 지표는 7개뿐이었고, 태아/영아/유아/어린이 관련 지표는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

## 15. OECD 아동 복지 지표

물질적 행복; 아동의 물질적 행복 측정을 위해 평균소득, 소득빈곤, 교육기회박탈 3개 지표 선정.

- . 평균 소득; 도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성년 가족의 평균소득은 국가별로 격차가 있으며, 이는 1인당 GDP 격차를 반영. 하위 국가는 터키/멕시코, 상위 국가는 미국/룩셈부르크로 하위 국가보다 6-7배 높아.
- . 아동 소득빈곤; 전체인구의 평균 가족소득의 50%를 이하 가족의 미성년 비율로 작성되었으며, 국가별 격차가 매우 커. 미성년 빈곤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40명당 1명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면, 미국, 폴란드, 멕시코, 터키의 경우 5명 이상당 1명이 빈곤상태.
- . 교육기회박탈 (또는 교육격차);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측정하는 지표로, 8개 필요 자원 가운데 4개 이하 항목만을 갖는 교육박탈 상태는 15세 청소년이 가장 심각. 8개 필요 자원(또는 항목)은 공부할 책상, 조용한 장소, 학교숙제를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교과서 등. 아이슬란드/독일의 경우, 200명 가운데 1명이 교육박탈 상태에 있는 반면, 멕시코/터키의 경우, 10명 가운데 1명이 교육박탈 상태에 있어. (멕시코의 경우, 아이슬란드보다 아동이 교육박탈 상태에 놓일 확률이 34배 높아) 또한, 미국, 일본은 높은 가족 소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박탈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 및 환경
  - . 과밀; 가구내 거주자 수가 부엌과 목욕탕을 제외한 가구별 방 개수보다 많을 때, 과밀로 정의하며, OECD 모든 회원국에서 10명당 1명 이상이 과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3명의 OECD 아동 중 1명은 과밀한 환경에서 거주. 네덜란드/스페인인은 낮은 반면, 동유럽을 포함한 그리스, 이탈리아는 매우 높음
  - . 주변 환경수준; 가정/지역 내 소음, 먼지, 오염, 쓰레기 등을 측정한

지표로, 평균 4명당 1명의 아동이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스트레일리아 및 북유럽 국가는 양호한 반면 (1-2명/10명당), 네덜란드/독일은 1/3이상의 아동이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

- 교육

. 교육 성취도; 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 국가별 교육성취도 편차는 상대적으로 낮아. 상위 그룹은 핀란드, 대한민국, 캐나다 등이었고,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는 하위 그룹. 핀란드, 대한민국, 캐나다가 교육면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로 나타난 반면, 체코, 멕시코, 이탈리아는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불평등과 국가별 평균 교육성과는 상당한 상반관계에 있어, 높은 교육성과는 낮은 교육 불평등과 밀착된 연관성 가짐

. NEET 지표; 정규교육과정 이후, 취업이나 상급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표로 12명 중 1명이 NEET에 속하며, 5개 회원국은 이들의 비율이 전체에서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15-19세,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4% 미만으로 낮은 반면, 터키는 네덜란드의 12배 높아. 통상, 남성의 NEET비율이 높으나,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터키는 여성이 더 많음

\* NEET -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구직 의사가 없고 취업/교육도 받지 않은 젊은이들

- 보건 안전

. 영아사망률; 대부분의 회원국 영아사망률은 낮거나 매우 낮은 편으로,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 수준의 영아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1000명당 2~3명) 멕시코와 터키는 상당히 높아. 터키의 경우, 아이슬란드의 10배에 해당하는 등, 상위국과 하위국간 편차가 큼

. 저 체중아 출산율(low birth weight); 저 체중아 출산율은 북유럽 국가가 가장 낮았으며, 낮은 영아사망률을 보였던 일본은 높은 저 체중아

출산을 나타내. 터키의 경우, 전체 신생아 가운데 10%이상이 저체중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 저 체중아 출산은 국가별 편차가 작음

- . 모유수유 시도율(breast feeding initiation rates);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모유 수유 시도율이 50% 이상. 서유럽 국가 -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및 아일랜드는 낮은 반면, 북유럽 국가 (98%이상), 멕시코, 터키 등이 높아. 동유럽 국가(헝가리, 슬로바키아) 예방접종(홍역, 백일해)율은 98%이상이었으며, 멕시코, 터키또한 양호(90% 이상)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85%이하로 나타남
- . 신체 활동(량); 참조기간(주)동안 신체활동량을 조사대상자를 통해 직접 조사. 국가별 순위는 조사대상자 연령에 따라 상이하하며, 슬로바키아는 조사대상 전 연령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프랑스는 여자 어린이의 신체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 . 아동 사망률; 도표17은 100,000명당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에 대해 U자 형태.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 아동 사망률을 보인 반면, 주변국가인 벨기에는 두 번째로 높아. 잠재적 정신건강지표인 청소년 자살률의 경우, 뉴질랜드가 가장 높고, 그리스가 가장 낮아.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위험 행동
- . 음주 흡연; OECD 국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흡연율은 10% ~ 30%로 여성이 약간 높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제외) 음주율은 모든 국가에서 13-15세가 가장 높았고,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의 경우, 여성 음주율이 높음
- . 10대 출산율; 멕시코, 미국, 터키의 10대 출산율은 OECD 평균의 3~4

배인 반면,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10대 출산율의 국가별 편차는 매우 높아, 멕시코의 경우, 일본의 20배에 가까움

- 학교생활의 질

. 집단 괴롭힘; 정신적/신체적 괴롭힘, 따돌림 등 괴롭힘의 유형이 포괄적이고 정의가 광범위해 이라, 국가별 특징 및 유형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아. 집단 괴롭힘의 국가간 편차는 큰 편으로, 터키, 그리스 높은 반면, 북유럽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는 낮게 나타남

. 학교 만족도 (children who like school); 학교 만족도는 주관적일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함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 - 환경, 교과과정,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집단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터키 아이들의 학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국가. 체코,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핀란드는 5명 가운데 1명 미만이 학교 활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남

16. 본 보고서는 아동 복지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새로운 틀을 선보였고, 국가별, 성별, 연령별, 출신국적별로 구분하여 제공. 모든 국가에서 아동 삶의 개선 여지가 있어, 본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역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 연령별/여건별 사회적 지출, 빈곤가족을 위한 세금, 복지제도 관련 내용도 제공

- 현재, OECD 사회정책국은 아동 복지 측정과 점검을 위해, 아동 복지 전문가 자문회의 (2009. 5월) 및 Wikichild 프로젝트 등 수행

- 아동 복지전문가 자문회의; OECD, UNICEF IRC, EC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며, 관련 정책 점검을 위한 자료셋 개발이 목적. 아동 복지와 관련된 개념,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

- Wikichild; 위키차일드는 아동 복지 연구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온라인 허브로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09 아동 지표 회의 (International Society for Child Indicators, 2009, 11월)에서 공식 착수 예정. OECD 사회발전측정 글로벌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Wiki-progress아래 Wikigender와 함께 서비스할 계획. Wikichild 관련 컨소시엄; OECD사회정책국, UNICEF Innocenti 연구센터, ISCI(International Society of Child Indicators), 오클랜드 대학 등

##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 보고

### □ 워크숍 개요

○ OECD 주관 : 2008. 5. 5-7

- 목적;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요청 증가에 대한 국가통계기관의 대응,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논의
- 참가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Eurostat, OECD

### □ 국가별 현황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정책이 '위험회피'에서 '위험관리'로 변화

○ 국내법 등의 이유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해외 연구조사자의 접근 불허

○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정의 또는 관련 어휘 격차 상존

○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관한 법적 허용 기준 차이

- 일부국가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접근을 모두에게 허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특정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원천 봉쇄.

○ 국가간 자료모델 격차

- 식별 불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 식별 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

○ 접근 허용 방법 격차

- 일부 국가는 자료의 원격접근을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원격처리시스템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접근 허용

○ 다양한 보안정책

- 전용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자료센터 등

### □ 향후 계획

○ 참가국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국제기준 개발에 동의

○ 장단기 로드맵 개발 합의

○ 작업반 구성 (비공식, 잠정적으로 호주통계청이 주관)

□ 2010 회의 의제

-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수집용 웹사이트 개설
- 공식통계연구회 저널(SJIAOS)에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관련 내용 수록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공통 인터페이스 개요 작성 (이점, 비용 등)
-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비밀보호용어집 관련 정의 표준화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들이 이용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안 작성

## OECD 산업별 생산성 Database(PDBi)

### 요 약

1. OECD는 2004년 생산성을 생산하였으나 총 경제에 대한 측정과 가장 일관성을 담보하며 자본측정에 대한 개정된 OECD 매뉴얼에 일치하는 산업별 새로운 조화 생산성 측정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초 OECD 통계국과 과학 및 기술, 산업국이 합동으로 산업별 다변량 생산성(MFP) 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2. MFP에 대한 주요 측정이슈는 자본투입, 산업별 감가상각, 노동 투입이며 완전경쟁의 가설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하여 생산된 자료를 OECD DB에 등재
3. 위원회는 OECD PDBi DB 특히 EU-KLEM DB와 상호비교하며 개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 주도록 초빙. EU-KLEM DB는 현재 Groningen 대학이 유지하나 Eurostat에 의해 제도화 되는 과정 중.

### □ 배경

1. 생산성은 경제성과 측정의 중심으로 OECD는 오랫동안 경제분석에 사용하여 왔으며 2004년초 생산성 DB 공표. 생산성 측정은 1) 통계의 공통 개념과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한 관념적인 작업 2) 현존 자료의 평가와 개선 3) 점검으로서 경제분석 및 자료 품질의 비직접적 시험의 3개축으로 구성
2. 2008년 초 OECD 통계국과 과학 및 기술, 산업국이 합동으로 산업별 다변량 생산성(MFP) 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측정은 OECD 구조분석 DB(STAN)에 저장. 사업의 목적은 OECD 생산성 DB로

부터의 총 경제에 대한 측정과 가장 일관성을 담보하며 자본측정에 대한 개정된 OECD 매뉴얼에 일치하는 산업별 새로운 조화 생산성 측정의 구축임

3. MPF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격과 산출량에 대한 정보와 노동 및 자본 투입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측정문제를 증가시킴. 이 보고서는 향후 작업에 대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명확한 단계의 개요를 수록. 이 사업의 목적은 불완전 경쟁과 규모에 대한 경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한 것임

#### □ 주요 측정 이슈

##### 자본투입

1. 자본 투입의 측정은 산업별 투입과 자산형태(현금, 물량)에 대한 완전한 시계열 부족에 의해 제한을 받음. 따라서 PDBi에서 자본투입은 산업별 자산에 대한 순 자본량에 한정
2. 주된 측정 이슈는 순자본량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 자본량과 관련. OECD 매뉴얼은 여러 대안을 제안

##### 산업별 감가상각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업별 조화 감가상각률이 방법론의 핵심 요소. 현재 감가상각률 추정은 일부 제한된 국가에서만 가능. EU-KLEMS DB는 자산과 산업별로 감가상각률을 제공. EU-KLEMS 감가상각률은 현재의 OECD 생산성 DB의 감가상각률 추정치의 합계와 맞추기 위해 계산
2. 단일산업 감가상각률은 가중평균방식을 사용. 가중치는 OECD 생산성 DB 자본량 비중임. 제조업의 상각률은 국제적으로 비슷하나 서비스

산업은 국가별로 차이. 감가상각률은 산업별로 국가별, 시기별로 변화

## 노동투입

1. 노동 투입의 가격과 물량은 생산성 측정의 핵심 요소. 근로시간이 노동투입으로 선호되나 모든 통계청이 산업별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STAN DB가 산업별 근로시간의 주요 출처로 사용. 노동 투입으로서 임금은 피용자를 총고용자수로 나눈 평균 임금

### □ 완전경쟁의 가설로부터 탈피

1. Solow 잔차는 완전경쟁과 규모에 따른 일정한 보상의 가정하에 MFP 성장의 비편의 추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그러나 추정된 mark-ups가 완전경쟁의 가정을 떠났음을 함유하는 증거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중요 부문은 생산성 측정에 불완전경쟁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임

2. 편익에 대한 MFP 성장률의 수정은 완전경쟁 가정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냄. 연도에 따라 불완전경쟁을 위한 조정은 MFP 성장률에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 결론 및 향후 진로

1. 위원회는 OECD PDBi DB 특히 EU-KLEM DB와 상호비교하며 개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 주도록 초빙. EU-KLEM DB는 현재 Groningen 대학이 유지하나 Eurostat에 의해 제도화 되는 과정 중임

2. 이러한 바탕에서 PDBi는 ICT와 비ICT에 대한 자본투입으로 개발될 수 있음. 또한 OECD 생산성 DB와 PDBi간 일관성 방법과 노동분포 변화의 측정 개발로 주거 분야의 생산성도 측정. 중요한 단계는 중간재 투입 측정의 개발과 부가가치에서 총생산으로 이동한 것을 꼽을 수 있음.

불완전경쟁하의 MFP 추정 또한 규모에 대한 불완전보상에 별도의 추정치를 가짐으로써 개선 수 있음

3. 생산성 측정에 대한 OECD 워크숍 또는 회의가 통계위원회와 생산성과 관련 있는 OECD 타국의 후원으로 2010년 조직 가능

## OECD 확대 ; 회원가입 현황 보고서

### □ 개요

본 보고서는 OECD 확대를 통계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신규가입 국 대상의 통계 행동계획 (2008년 통계위원회 승인), 가입 신청국의 통계체계 및 진행 상황 등 제시

#### ○ OECD 확대 배경

2007 OECD 각료이사회는 OECD 회원국 확대를 결의하고,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및 슬로베니아의 신규 가입과 비회원국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및 남아프리카의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가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가입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을 OECD 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 논의

### □ 가입 신청국가 통계체계 검토

#### ○ 검토 분야

- 통계관련 법적, 제도적 틀; 관련법률, 제도, 정책
- 자료 품질 ; 국제비교 가능성
- 자료 부합(또는 통일성, integration) ; OECD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가능성

\* 국민계정, 금융통계, 기업통계, 기업 등록부, 국제 상품/서비스 무역, 국제수지, PPP, 생산/수요 지수, 기업동향, 소비자 설문조사, 단기경제통계는 핵심 검토분야이며, 기타 농업통계, 교육/에너지/환경/국제투자/연금/인구/고용/세액/IT, 연구개발, 과학기술/관광 통계분야의 국가별 검토 결과도 CSTAT 보고에 포함될 예정

### □ 통계측면에서 본 가입 검토 보고

- 1 단계; 법적, 제도적 통계 틀 검토; 2008. 3 ~ 2009. 6
- 검토 기준; 유엔 공식통계 기본원칙

- 검토 대상; 가입 신청국의 국가통계기관 및 국제기구(IMF, Eurostat) 제공 자료
  - 공식통계 기본원칙 준수에 관한 요약 평가서 작성
- 2 단계; 자료 품질과 통합성(또는 통일성) 평가; 2008. 3 ~ 2009. 7
    - 평가 대상; 실제 자료, 관련 메타데이터, OECD 기준에 합치하는 자료의 지속제공 능력
    - 활용 자료; 시계열 범위, 주기, 개념, 방법론, 정의, 분류체계, 국제 보고서, 국제 평가보고서 등
    - 자료 수집 방법;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 \* 특별한 경우(국민계정)를 제외하고는, 담당자가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함이 없이 인터넷과 이메일로 자료 수집/조사
    - 평가 종료일; 칠레(2009. 6. 15), 에스토니아(2009. 5. 18), 이스라엘(2009. 6. 8), 슬로베니아(2009. 5. 4), 러시아(2010 예정)
- 3 단계; 전문가 검토 보고; 2009. 5 ~ 9
    - 가입 신청국가별로 각 2개 회원국의 통계 전문가가 전반적인 통계 체계에 관한 검토 의견 제시
    - 칠레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09. 5 ~ 9)
    - 에스토니아 - 폴란드, 덴마크 (2009. 5 ~ 9)
    - 이스라엘 - 미국, Eurostat (2009. 5 ~ 9)
    - 러시아 - 영국, 대한민국 (미정)
    - 슬로베니아 - 스페인, 네덜란드 (2009. 5 ~ 9)
- 4 단계; CSTAT 결론; 2009. 10 ~ 12
    - CSTAT는 3단계에서 가입 신청국(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대상으로 독자적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3차 OECD 세계포럼(2009. 10. 26, 대한민국, 부산)에서 발표

## 2007-2008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

### □ 개요

○ OECD 각 위원회 성과 보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Program Implementation Report)로 PWB 개혁 패키지의 일부. PIR은 OECD 성과기반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

- 2003년 성과에 근거하여 제 1차 PIR 작성(2004),- 2005. 제 2차 PIR 작성(2005), PIR 매커니즘 점검(2006), 제 3차 PIR 작성(2007), 제 4차 PIR (2009)

### □ 목적

#### ○ PIR 3대 목적

- 사업계획예산 보고 감독; 예산지출, 정책 품질, 시의적절성 등
- 정책 평가
- 성과개선을 위한 학습 도구

#### ○ PIR 구성

- (정책) 품질 및 영향력/잠재적 영향력 조사
- 성과 및 예산 보고

#### ○ 2007-8 품질 및 영향력 평가

- 전자조사 활용 (품질 및 영향력 평가, 조사결과 취합, 성과 및 예산결과 보고 등)
- 회원국이외, 옵저버 국가, 가입신청국, 비회원 참가국 등 모두 참여

#### ○ 2007-8 성과 및 예산 보고

- 예산위원회, 기타 위원회, 이사회의 사업성과 및 할당 예산 적절성 등 평가

## □ 위원회와 PIR

- PIR의 본래 목적은 각 위원회 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자체평가는 아니므로, 각 위원회는 PIR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단, OECD 이사회는 다음 사업계획예산 제출이전 위원회들과 함께 최종 PIR 내용 검토
- 또한, 이사회는 각 위원회에 현재 사업계획예산 이행, 중간결과, 관련 자원 이용의 주기적 점검 요청

## 2. 제57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

1. 공식통계 작성시 모델링, 예측, 시나리오 작성/186  
(라트비아 통계청 사례)
2. 통계작성기관의 예측과 정책분석(노르웨이 통계청 사례)/197
3. 공식통계작성시 통계청 개입의 한계 : 무엇이 공식통계  
기본원칙과 공존 가능한가?(UNECE)/204
4. 사업체 고유번호 소개(스위스 통계청)/213
5. 연구, 개발 및 혁신통계 현황: 혁신통계 측정에 따른  
도전과 과제/219
6. 주택통계 심층검토/224
7. 노동비용 측정/228
8.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 행정자료에 기반한 고품질 통계  
생산가능성/236
9. 행정자료에 역점을 둔 기업체통계(슬로베니아 사례)/243
10. 외국계 기업구조와 사업에 관한 통계작성시 행정·통계조사  
자료이용 과제/251
11. 통계공표 및 전달관련 이슈/255
12. 통계 연구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자료통합 비밀보호 원칙 및  
가이드라인/263
13. 국제인구이동 자료제공 및 이용 가이드라인 : 송출국의 인구  
이동 자료개선 목적/268
14. 범죄피해자 조사 매뉴얼/273
15. 유럽통계기관장 의장단 회의보고서/276
16. 유럽통계기관장 차기 의장단 선출/281
17. 유럽통계위원회 사무국 회의보고서/282

## 공식 통계 산출시의 모델링, 예측, 시나리오 작성 (라트비아 통계청 사례)

### 요 약

유럽통계위원회 2009년 총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자료 산출을 위한 전문적 자치권의 균형 원칙과 책임”(Balancing principles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ith the mandate to produce relevant data)을 토픽으로 할 것을 2008년 6월에 선정. 위원회를 대신한 통계국은 2009년 2월 미팅에서 세미나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았고 논의를 위한 기초 노트를 준비할 것을 라트비아에 요청하였음.

노동시장예측과 같은 전통적으로 공식통계 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는 라트비아 중앙통계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

### I. 소 개

1. 이 리포트는 전통적으로 통계활동으로 여기지지 않는 활동들에 대한 라트비아 중앙통계국(CSB 라트비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론과 실제에서, 국가 통계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통계 기관들은 주제별, 기능별로 구성되지만 주로 두 가지 의 조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공식 통계 생산은 국가 통계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다른 국가 통계 기관의 서류들을 보면, 문서의 저자들이 이 국가 수준의 공식 통계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는 걸 알 수 있다. 공식 통계는 주 정부의 시스템과 독립 통계사무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통계와 비통계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공식 통계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시스템에서 같은 업무가 통계적인지 공식 통계에 상응 할 수 없는 활동인지 논할 수 있음

2. 라트비아에서는 오랜 기간 노동 시장 예측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 문서와 데이터 사용자의 의견을 강조해왔다. 2007년까지, 노동 시장 예견 업무를 주로 하는 지정된 정부 단체가 없었고, 일부 몇 개 리서치만 있었으며, 단편적 정보들만 얻을 수 있고, 예측 모델의 유용성만이 평가되었음
3. 공식 통계의 모든 통계 정보들은 내각 규정에 따라 매년 승인된 국가 통계 정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노동시장예측은 2008년 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아니었다. CSB 라트비아는 노동시장예측을 수행하는데 동의하였고,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이 유효한지 객관적으로 국가의 필요를 측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능은 국가 통계 기관의 기초 활동으로 여기기지 않는다. 확실히,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 위험은 이 때 처음 발생한다. 한편, 통계기관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기초 데이터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 CSB라트비아는 정부나 일반 대중에게 결과 발표나 분석에 대해서는 경제부와 책임을 나눔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키려 한다. 생산된 결과는 통상의 공식 통계와는 다르며, 이는 단순한 숫자를 추정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국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다. 고위험은 정치적 사용과 관련되며, 분석은 특히 현재 경제 위기의 조건이 되기 때문
4. 결과에 대한 통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관과 리서치 단체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연관되고 통계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UNECE에 의해 채택된 UN practice code(European Union Code of Practice)와 UN 공식통계

기초원칙 (UN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은 어느 것도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결과의 사용 가능성이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5. 이러한 측면과 위험 가능성에 대한 영향은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기 전에 짐작할 수 있다. 상황 분석은 구체적인 데이터의 편차 가능성과 질적인 측면에 관해 데이터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생산 신뢰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6. 그 결과, CSB Latvia는 독립적인 부서인 Statistical Scientific Research(통계 과학리서치)를 CSB 조직 내에 설치했다. 이 부서의 주요 활동 방향은 현재 폐지부서인 라트비아 통계 리서치 학회로부터 인수받은 노동시장 예측과 비즈니스 경향 조사 등

## II. 노동시장예측 - 라트비아 국가통계의 기능

7. 라트비아 노동 시장 예측은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다. 라트비아 예측 시스템 발전의 첫 번째 단계는 라트비아 대학이 연구 파트너인 발전 프로젝트 학회와 연계해 수행한 “노동시장의 공급 및 개선 선택사항 분석에 관한 장기 예측시스템 리서치”이다. 이 리서치는 유럽연합 조직펀드의 국가 프로그램인 ‘노동시장리서치’의 ‘복지부의 리서치’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행해졌다. 이 리서치의 주요 목표는 노동력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라트비아 노동시장예측에 대한 예측 방법론과 분석력을 발전, 창조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학술적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개발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새로운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견의 결과를 주 사용자를 확인시키고 마지막으로 현 라트비아 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예측 틀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두개의 노동 시장 예측 틀이 개발되었고, 하나는 단-중기 예측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예측이다. 리서치가

끝나면, 모든 결과는 경제부에 넘겨주고, 경제부의 대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가나 관찰자 입장에서 또한 리서치 프로세스에 참가하도록 함

8. 라트비아 CSB 는 경제장관의 감독 하에, 중장기 노동 시장 예측을 책임지고 있음
9.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노동 시장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측은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에 대해서도 필요
10. 라트비아의 단기 노동시장 예견에 대한 주요 책임 기관은 State Employment Agency(국가고용처)이다. 그들의 예견은 고용주의 온라인 질문지와 리서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라트비아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결원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예견의 주 목표는 다음 12달 동안의 어떠한 직업 및 자격조건의 고용인 수요를 결정하고, 결원을 확실히 하며 노동 시장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록 국가고용처가 단기 예측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예견은 CSB 라트비아에 의한 단기 예측과 겹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법론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
11. CSB 라트비아는 이러한 활동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단기조사를 실시했다. 13개국으로부터 받은 답변들을 기초로, 연습 지식, 사용된 데이터 소스, 조직적 프로세스와 적용된 방법들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한 리서치 기관이 노동시장예측을 책임지고 있었다. 오직 스웨덴에서만 라트비아와 마찬가지로 중앙통계국이 노동시장예측을 행하고 있었다. 다른 점은 스웨덴의 노동시장예측의 전통 관례에 의하고 있었고, 라트비아는 좀 더 발전된 단계에 있었음

12. 현재 CSB 라트비아가 사용하는 단기 및 중기 예측 모델의 기본은 스웨덴 공공 고용서비스를 적용한 것이다. 라트비아의 경제상황에 적용된 모듈은 장기 예측 모듈을 제거한 후 중기 예측 모듈로서 보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 예측 모델은, 모든 예측지표가 15개 경제 섹터에서 제공받고 35개 직업군으로 총계됨
  
13. 이때의 모델은 예측용이 아니다. 이것은 주로 시계열의 불충분한 경선 때문이며, 예측 오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예측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해져 가고 있다. 현재 모델에서 입력 데이터는 1997년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시리즈로 제공되고 있고, 이것은 데이터 시리즈가 예측하는데 너무 짧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을 참작해 단기 노동시장 예측 모델의 개발에 투자 및 할당한 시간은, CSB 라트비아가 라트비아 단기 노동시장 예측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번 개발된 대체 버전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14. 그러나 CSB 라트비아의 주요 업무는, 통계과학리서치의 노동시장 분석섹션으로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임
  
15. 첫 번째 임무는 라트비아 대학 연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연구하는 것이다. 중장기 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동적최적화 모델을 이용해 오차생산을 방지하고 민감성 결정모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16.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 모델은 3가지 상호 일관성 있는 모듈로 구성됨
  - 사회 모듈(인구통계학, 이주, 교육)
  - 경제 모듈(생산성 변화, 경제 섹터의 발전)
  - 노동시장 모듈(노동력 수요와 공급, 노동비용)

노동력 수요적 측면은 경제 섹터의 발전과 생산성 성장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력 공급 측면은 경제 활동 인구의 수에 변화가능성과 7세 그룹들에 대한 인구학적 예견에 의해 결정된다. 동적 최적화 모델은 다른 성장 시나리오의 검증을 얘기한다. 동적 성장 시나리오, 완만한 성장 시나리오, 약 성장 시나리오가 있다. 예측은 중기 (5년) 와 장기 (15년)로 미래 노동시장에 대해 예견한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에 대한 주요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인구학적 상황, 경제 섹터의 개발, 노동력 이주경향, 교육 시스템, 변화와 기타 요소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시간 등이 노동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임

17. 15가지 경제 섹터(NACE 분류)에 대한 동적 최적화 모델이 제공한 결과 와 예측은 35가지 직업 그룹으로 총계된다. 직업 그룹의 총계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예측 결과의 주 사용자인 교육과학부와 함께 실시되었다. 모든 직업은 관련 교육 분야를 고려하고 전문적인 자격요건이나 학습기간에 따라 분류되었다. 직업 그룹에서 직업을 나누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직업 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5개 직업군은 라트비아 공화국의 직업 분류표에 따라 4 자리수로 직업을 표시하고 있다. 처음에, 모든 직업은 120개의 직업군으로 나뉘었으나, 후에 37개 그룹으로 그리고 현재 모든 데이터는 35개 직업 그룹으로 구분되며, 심지어 18개 그룹으로까지 집약된 버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과 집계 원칙은 다른 국가들이 사용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것은 유럽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18.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 모델 발전의 다음 단계는 해당 변수를 새로 고쳐 다른 모듈로도 사용가능 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중요한 측면은 지역상황에 맞는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데이터와 지역적 차원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경제 상황은 라트비아의 다른 지역들을 다양하게 나누기도 한다. 특히 실업률이 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훨씬 높은 동부지역이 그러

하다. 다른 주요한 점은 전체 경제,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주에 대한 계산이다. 주 문제점은 이민에 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

### Ⅲ. 사용가능한 데이터 소스의 조화

19. 예측 시스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유효한 입력 데이터의 공급이다. 노동 시장 예측 시스템의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기관은 각국의 주요 데이터 원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각국의 통계기관은 노동력조사, 인구센서스, 국민계정 및 다른 지표들을 제공한다. 각국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선택된 예측방법에 따르면, 공식 통계에 적용되는 다른 데이터 수집방법은 고용주 조사나 기사업체 표본조사 등이 있음
20. CSB 라트비아는 다양한 예측 단계에 사용되는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 주요 원천이다. 사용이 거의 없는 기관으로는 국가 고용처와 교육과 학부가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다른 샘플링과 방법론 때문에 발생하는 예측결과의 편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라트비아 대학의 리서처들은 예측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고용주와 고용인들의 서베이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했다. 각각의 리서치는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필요한 질적 수준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트비아에서 CSB는 중-장기 노동시장예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 모델을 위한 거의 모든 필요한 데이터들의 공급의 기초가 됨
21.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데이터 수집의 좋은 예는 에스토니아이다. 라트비아로서는, 노동시장 예측의 주요 데이터 원천은 CSB 라트비아이며,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기능이 에스토니아 통계청이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통계청과는 별개로 에스토니아 세금 및 관세 위원회로부터도 데이터가 사용된다. 이는

거대한 정보 소스이며, 세금 징수자의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있음직한 상호부문 이동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라트비아에서는 고용인에 대한 직업 코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는 국가 수입처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고용인의 수입 및 개인 소득세로부터 강제 기여제인 국가 사회보험에 관한 리포트들이다. 라트비아 직업분류표에 따른 세부그룹의 정도를 반영한 4자리수 코드는 정성 분석 및 예측하는데 충분하다. 이것은 주변의 재정원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음

22. 노동시장예견시스템 개발의 다른 중요한 점은 유럽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들과 협력이다. 경제부와 연합해 CSB 라트비아는 노동시장의 현 상황과 중기 노동력 공급·수요 예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례 리포트를 준비한다. 이 리포트는 경제부에 의해 확인되고, 라트비아 내각에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하다. 노동시장예측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장본인인 예측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는 경제부, 교육과 학부, 복지부, 국가고용처, 라트비아 자유무역연합, 라트비아 고용주 연합(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큰 단체)과 대학임
23. 경제부는 라트비아 노동시장 예측에 대한 주요 책임 기관이다. 라트비아 경제 성장을 예견한다. (GDP 와 다른 섹터의고용 등) 이러한 예견을 바탕으로, CSB 라트비아는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을 발전시킨다. 위에 언급된 모든 기관과 부처들은 라트비아 노동 시장 자문 위원회의 대표이며, 라트비아 노동시장 예측의 일반적 조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노동시장 성장 시나리오 작성, 노동시장 예측 및 리서치, 실제 노동 시장 문제점 파악, 노동 시장 시스템의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관련 기관들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연관되어 있음
24. 노동시장예측 프로세스에 연관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따라, 중-장기

예측은 정밀한 미래 예견으로서 가정되고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미래 노동시장 경향의 중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다른 국가들은 노동시장 예측을 위해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며, 그것은 실제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유럽의 예측 시스템을 접근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직업 및 섹터의 총계와 데이터 수입에 관한 동일한 원칙들을 따라야 함

#### IV. 결 론

25. 저자는 국가중앙 통계기관이 통계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보급자, 데이터 사용자의 다른 그룹과 협력하는 긍정적인 예로서 비통계적 활동이 연계되는 경우를 설명
26. 다음은 통계-비통계 활동을 통합하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것들임
  - (a) 필수 통계적 방법론적인 정보 획득 가능성
  - (b) 통계 전문가에 의한 전문 지식함양
  - (c) 정보 유지 개발 계획에 유연한 협조
  - (d) 통계 전문가에 위한 정기적 전문 컨설팅
  - (e) 유럽통계 시스템(ESS)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음
27. CSB 라트비아가 언급한 주요 제한요소들
  - (a) 모델링 경험 및 지식 부족
  - (b) 특별조사를 위한 투자 불충분
  - (c) 국민계정 통계에 이론적 지식 부족
  - (d) 데이터 제한

(e) 예측 계산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 제한

28. 이러한 기능의 성공적 수행과 위에 언급한 분쟁을 피함으로써 통계 기관이 국가의 중요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협력파트너라는 것을 증명

## 통계작성기관의 예측과 정책분석(노르웨이 통계청)

### 요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정책 지향적 자료 산출을 위한 전문적 자치권의 균형 원칙과 책임, 그리고 규정을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 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진하였으며 UNECE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SN(Statistics Norway, 노르웨이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리서치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많은 리서치 업무를 부과해 옴.

본 보고서는 SN이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출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기술

### I. 소개

2. 노르웨이 통계법(1989)에 따르면 리서치는 SN의 의무이며 제 3조 1항에는 통계청이 조사방법을 발전시키고 분석과 리서치를 위한 통계를 개발해야한다고 명시. 1950년 의회 및 내외부적 요구에 의해 리서치 담당부서 신설 그러나 리서치 활동은 그 이전부터 해옴. 초기 국민계정 당시에는 통계와 리서치간의 시너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음

### 3. 리서치 목적

- (a)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경제, 사회에 관한 경험적 정보 제공
- (b) 의회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분석을 위한 분석 기법 개발
- (c) 품질 조정의 일부로써 통계를 분석하고 통계 생산, 공표에 대한 통계적 방법 발전

4. 특히 분석기법 개발과 관련된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국가들도 많음(유럽-프랑스, 덴마크). 그러나 대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통계기관 외부에서 수행(네덜란드 중앙기획부, 스웨덴). 모델링 활동을 SN의 리서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이유는 노르웨이 통계 뿐 아니라 거시계량경제 모델링을 위한 연간 공급-수요 테이블(supply-use table)을 담고 있는 국민계정 작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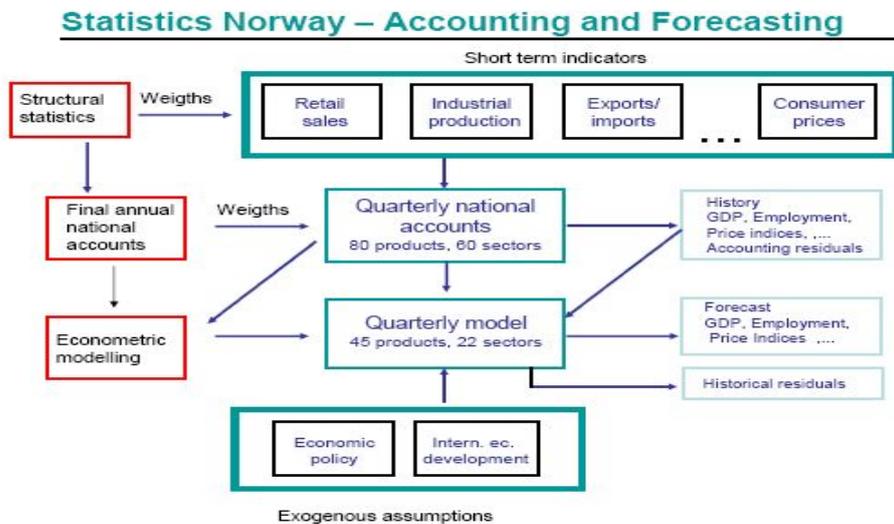
### III. 리서치 활동의 역사적 개관

7. SN은 통계에 근거한 경제 구조, 발전 분석에 오랜 전통  
1922 연간 경제 활동 조사 시작  
1950초반 월간 조사로 조사 주기 짧아짐  
1957/8 유럽 경제 침체기로 인해 국제 경제 개발 조사 시작, 직원 대폭 증가  
1960년 월간 통계가 출간되기 전까지 이 조사는 오직 중앙정부 내에서만 사용  
또한 15년간 분기 국민계정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1985년부터 분기 국민계정 생산을 다시 시작, 이 때 분석은 분기 국민계정에 따른 경제 발전 설명에 초점
8. 초기 SN의 리서치 담당부서는 국민계정, 조세 정책 및 경기 순환 연구 수행
9. 인구 사회학 연구는 리서치 부서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 사망률, 생활 여건, 인구추계(1969 시작) 연구. 그러나 초기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 밖에서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최근 대규모 이민 및 인구 추계에 대한 관심이 커짐
10. 경기순환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요구가 많아 1970년에는 계량 경제 모형설계가 중요한 리서치 업무가 됨

#### IV. 계정, 모형화 및 예측

12. 경기 순환 분석시 이론과 실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 됨. SN은 비록 공식적인 모델을 기초로 하지는 않지만, 경기 순환 분석의 중요한 파트로 계량 경제 모형 사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 이전에는 분석이 주로 각각의 경기 순환 국면에 따른 단기 경제지표의 변화 설명에 국한. 통계적 방법과 모형 없이 정확하게 경기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경기 순환의 변곡점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움. 비록 계량경제모형 또한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에게는 경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 1990년대 중반 오일 섹터가 점점 노르웨이 경제의 주요 부분이 된 1973년 이후의 노르웨이 경기 순환 역사에 초점을 둔 대규모 모형 완성
13. 통계 이론에 따르면 계량경제 모형과 예측은 매우 밀접한 관계. 응용 경제 연구와 예측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불명확하여 SN 내부의 리서치 그룹 역시 예측모델구축에 쉽게 관여할 수 없었음. SN리서치 담당 부서는 수십 년간 재정부를 위한 모델을 설계해 왔음. 자동차 제조업자는 신차 출시 전에 운전 테스트를 거치듯이 재정부는 SN 내부의 리서치 그룹의 예측을 이용
14. 경기 분석시 모형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은 모형이 과연 데이터 일관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가? 국민계정데이터의 경우 예측 모형과 데이터 생산 모형이 대개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발생 안 됨. QNA 데이터와 다른 정보에 기초한 계량경제 모형. 국민계정 수치 보정에 이용. 전통적인 통계 지표가 소실되거나 신뢰 할만하지 못한 영역에서 국민계정 수치 보정에 사용되어지는 추가적 정보가 이용가능하기 때문
15. 노르웨이 통계청의 국민계정과 예측간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노르웨이의 경제통계 핵심 활동을 나타내는 구조통계(structural

statistics)는 대부분 최종 연간 국민계정의 주요 정보원이며 대부분 사업체, 인구, 과세 등록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개 1~2년 후에 이용 가능하므로 연간 국민계정의 최종 버전은 23개월 지연되어 출간됨을 의미. 예를 들어 2006년 데이터를 담고 있는 국민계정 데이터는 2007년 2월 말에 첫 번째 출간 이 데이터는 분기 국민계정 시스템에 근거. 고용 등 2년 후에 출간되는 최종 데이터의 예측치로 간주됨



16. 분기국민계정시스템은 최종 계정과 일치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민계정 예측을 생산, (1900생산품목 대신 80개) 이 데이터 원천은 월간 혹은 분기의 단기지표이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최종 구조 통계의 선행지표라 한다. 국민계정 데이터의 개정절차를 통해 때때로 이러한 단기 지표들은 최종 계정을 작성하는데 부족한 대리지표임이 나타남. 최근 구조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산출물에 대한 생산지수는 확실히 총생산의 성장을 과소평가하는 측면. 사업체 샘플의 편향성 문제라기 보다는 단기지표가 이들 생산 활동에 몰두하는 사업체들을 완벽하게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 최종계정의 성장률 측정으로써의 단기지표에 따른 성장률을 예측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단기지표 안에 있는 가능한 체계적 편견을 잡아내는 통계모형이 고려되고 있음. 예측 목적을 위한 거시계량경제모형 구축은 분기모델이 얼마나 예측기능을 잘 수행하

는지와 관련이 있음

17. 최근 많은 기관들이 GDP 속보지표 발표

18. 계정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 활동은 동적요인 모델

## V. 정책 분석

22. 경제 정책을 조건으로 예측이 만들어질 때, 예측과 분석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SN은 거시경제 예측 공표 이전부터 정책 분석을 수행. 대안적인 조세 정책의 시뮬레이션 수행. 매년 예산안 작성기간 동안. 조세 분석과 조세 정책 연구의 경우

23. 정책분석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수행. 정책 대안은 학술지 안에. 많은 범위까지 이러한 연구는 Research Council of Norway에 의해 재정지원 대중화

## VI. 연구 활동과 통계생산의 시너지

24. 통계 기관이 사회의 주요 통계적 정보를 생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보통은 수리적 통계를 생각하고 노르웨이 또한 수리 통계를 전공한 많은 연구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결코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이 부서에서는 대개 경제, 사회, 인구분야의 연구가 수행되며 예측과 정책연구는 수십 년간 리서치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었음

25. 60년 전 국민계정이 이론적 영역에서 실제 연구 주제로 발전되면서 리서치 부서의 주요 중점과제가 되었음

27. 좀 더 일반적으로는 조직 내 리서치 활동은 통계청이 통계 이용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데이터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토의

## VII. 결론

30. 노르웨이의 두 역사적 전통 (경기 분석과 경제모형에 따른 연구)은 경제 예측이 작은 일임을 확신. 저자는 통계국의 신뢰성은 예측이 아닌 통계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믿는다. 공공은 두 기능을 분리하는 데는 아무로 문제가 없음. 아마도 통계 기관에 더 중요한 일은 통계의 신뢰성이 조직 내의 예측 및 정책 분석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일이다. 노르웨이 통계청의 이전 국민계정 데이터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떤 면에서는 최종계정의 예측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기관에게 표준 거시경제 예측과 사전적인 분기국민계정 데이터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기 국민계정 데이터가 중요한 단기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분기국민계정은 노르웨이 통계청에 의해 생산되는 중요한 모든 단기 경제지표를 요약. 만일 통계청이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통계청의 우선권(?)에 의문을 가질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예측을 출간하는 일이 통계적 정보를 해석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제공
31. 노르웨이 통계청이 예측을 하기 전, 사전적인 통계정보 및 평가가 오해를 만든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예측 오류는 피할 수 없다. 노르웨이 통계청은 연간 역사적 예측에 대한 업데이트와 요약을 보여줌
32. 경제 연구는 정치적인 분쟁으로 인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확실한 문서와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측은 대개 특정 정책변화 분석보다 덜 논쟁적

34.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통계청 직원들이 경제-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발언들을 했다. 주로 전망치에 대한 경제 조사의 특정 부분에서 나타난다. 일부 발언들은 당시 정부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로 비춰지기도 한다. 물론 정부견해와 맞서는 견해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표된 자료는 때로는 모형예측 또는 시뮬레이션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리서치나 좀 더 일반적인 평가에 근거한 경우가 있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경험은 그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측이라기보다는 통계국이 통계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사실
35. 예측 담당자로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르웨이 통계청은 적어도 예측에 대항하는 논쟁을 거부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재정부와 다른 정부기관과의 친밀한 관계는 손상이 되지 않았다. 재정부 안에 일부 직원들로부터의 비공식적 비판 대신 노르웨이 통계청의 예측활동은 현재 유용한 것으로 간주, 왜냐하면 재정부 안에 있는 모형 이용자들은 좀 더 유능한 모형 구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간주

## 공식통계 작성시 통계청 개입의 한계 : 무엇이 공식통계 기본원칙과 공존할 수 있는가?(UNECE)

### 요 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정책 지향적 자료 산출을 위한 전문적 자치권의 균형 원칙과 책임, 그리고 규정을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 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진하였으며 UNECE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현재의 자료는 자료의 생산과 공표와 관련한 통계청의 핵심 역할과 통계청 개입이 관련된 비 통계적 활동간의 잠재적 시너지와 갈등양상을 강조

### I. 소 개

1. 현재의 자료는 자료의 생산과 공표와 관련한 통계청의 핵심 역할과 통계청 개입이 관련된 비 통계적 활동간의 잠재적 시너지와 갈등양상을 강조에 집중. 공식통계 밖의 가능한 통계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이번 세미나 보고서는 분석과 예측과 같은 완전한 공식통계 영역 외 통계활동에 의해 산출될 시너지와 갈등에 초점
2. 통계청의 핵심 활동과 비 통계 분야의 양립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1992년 UNECE에 의해 채택된 UN 공식통계 기본 원칙 기준과 EU 규정과 IMF SDDS 등 다양한 규정을 적용. 기본 원칙과 양립하는 이슈 제기에 있어서 원칙과 관념적인 이해 상충이 주된 고려 사항.

통계청이 관여하게 될 비 통계활동이 통계청의 핵심활동과 같등이 제기될 지 여부와 사용자와 응답자에 의해 정립된 원칙과 일치하는지 먼저 검토

3. 일부 국가 기구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 받음. 통계청은 방법론적 이슈와 자료 공표과정 모두에서 전문적 독립성을 향유. 이러한 국가 기구는 독립성의 영역에서 정부 간섭과 자기 핵심영역과 무관하게 이해관계로 부처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같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통계청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와 비통계 과업에 내재하는 외부 고려 간의 같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부처내 이해 상충은 독립성의 영역에 대한 간섭으로서 통계청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4. 모든 기본 원칙이 비 통계 활동과 핵심활동의 양립을 평가하는데 동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음. 현재의 분석은 발생 가능한 같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핵심 두 가지 원칙인 공평성과 비밀보호에 초점

## II. 공평성의 원칙

### A. 정책 홍보 또는 정책 조언 책임과의 저촉성

1. 공식 통계 결과 공표시 공평성이 자기 책임하의 공평한 코멘트와 정책 규정 코멘트 간에는 엄격한 분리 절차가 요구.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임. EU 실천 규범 중 하나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IMF SDDS에도 통계 공표시 코멘트의 장관급 인지를 언급
2. 그러나 기본원칙으로서 공평성의 개념은 통계 공표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책임을 수반하여 통계청에 위임된 사업과 정책홍보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많은 이해 같등을 낳으므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3. 엄격한 분리 원칙은 통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홍보목적, 준비, 실행 평가 과정의 빈번한 사용에는 갈등이 생기지 않음. 이것은 공식 통계의 적합한 핵심 요소로서 타 기본규정으로 명시.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책임은 정책 사용자와 함께함. 통계청에 대한 공평성의 개념은 통계청이 사용자 분야의 합법적인 특권과 관련된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것을 요구. 모든 통계청은 정치가, 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수행, 착수, 홍보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는 아니 됨. 이러한 원칙은 사용자에게는 자유로워 어느 사용자라도 정보출처를 인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해석, 분석, 개념 변경을 할 수 있음
4.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분리는 통계청이 수요파악을 위해 정책 부서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음. 또한 통계청 직원이 정책부서에 자료의 성격과 품질, 적합한 분석도구 및 방법 측면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도 허용. 정책부서의 요청에 따른 맞춤 통계의 제공도 통계청의 책임이 자료의 품질, 생산 절차에 한정되는 한 허용. 통계청과 정책부서와 통계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
5. 공평성은 정책부서 또는 특정 집행부의 승진 관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 정부의 승진업무와 통계청은 분리되도록 명백한 제도가 있어야 함. 가능한 한 동일인이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일부 통계청은 정책토론에 사용될 편차 때문에 정책부서에 공표된 자료의 맞춤형 통계로 제공하기를 주저. 공식 통계와 정책 지향 기능과의 위와 같은 너무 엄격한 분리는 불필요하며 공식 통계를 정책평가, 시행, 준비 등에 사용도 가능. 심각한 통계의 오해석, 오사용은 기본 원칙 4항에 따라 통계청을 공식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관계는 언론 및 모든 사용자에게도 적용

## B. 비통계적 책임과 양립할 수 있는 사례

1. 공식 통계의 생산과 공표과정에서 공평성 규정이 저촉되지 않는 여러 사례가 존재하는데 지도 제작이 이에 해당. 한 기관에 공식통계와 지도제작의 결합은 멕시코와 브라질의 오랜 전통.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자의 기능은 목적에서 매우 유사. 양 기능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특히 인구총조사와 농업총조사에서 명백하게 나타남. 공식 통계와 같이 공식 지도도 정확성과 전문성을 내포하여야 함. 유사한 결합은 환경과 기상학적 현상에 대한 공식통계, 자료수집 및 처리활동은 공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
2. 또 다른 사례는 통계청장이 국가선거의 감독자가 되는 사례로 독일과 체코가 채택. 선거의 투명성으로 통계청장의 공평성 관념이 강화. 책임감은 결과 집계와 공평성에 집중되어야 함. 통계청이 이 과정에 한 부분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르웨이 경우처럼 공정성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초기 결과예측은 흥미로운 경계선이 될 수 있음

## C. 통계청 이외의 공식통계 생산자에게서 가능한 갈등

1. 국가적 수준에서 통계청에 비통계적 업무 부여는 공평성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종종 시행되기도 함. 이는 통계청이 공식통계의 생산과 관련 업무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통계청이 비통계적 업무를 부여 받으면 통계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음. 통계업무와 비통계업무와의 결합은 통계청 이외 기관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통계업무를 등한시 하는 경향
2. 부처 내 공식통계 기능을 통계법이 적용 가능한 특별 단위조직에 부여하고 통계청 내 비통계 업무도 책임이 부여되는 단위조직에

부여해야 함을 고려. 통계 담당부서가 부서 내에서 요구하는 여러 통계 수요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자문과 이러한 통계의 한계를 설명하여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계관련 부서 직원이 정책부서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

3. 통계와 정책홍보와의 동일 조직으로 결합은 국제기구 특히 UN에서 종종 볼 수 있음. 2006년 UN에서 추인된 국제통계 활동 관리 원칙은 통계 출판 분야에서 통계적 및 분석적 코멘트와 정책 처방 및 정책 홍보 간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원칙의 채택으로 명백한 구분이 안 된 조직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채택하는 속도가 보다 감소하였으며 결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경우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음
4. 많은 국제기구는 통계활동을 정책평가, 준비와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으로 간주. EU 위원회를 제외한 조직의 핵심 업무가 공식통계의 생산과 공표라고 유추할 수는 없음. 따라서 국제기구의 통계조직은 통계청이 아닌 부처내의 통계업무와 유사

### Ⅲ. 비밀보호 원칙

#### A. 통계 시스템에서 자료의 통계만을 위한 사용

1. 비밀보호 원칙은 첫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 시스템 내에서 통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 당연한 귀결로 비통계적 사용을 위해 유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임
2. 통계 비밀보호에 관한 많은 토론이 비통계적 사용에 대한 금지를 채택하여 유출 위험 회피에 관한 주제에 집중. 통계업무와 비통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계청의 관점에서 개별 자료의 통계와 비통계 업무간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고려되어야 함. 추가로 명확한 구분이 통계청이 응답자에게 서약의 핵심 부문임. 출처가 다른 개별

자료를 결합하자면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전제조건이며 타 정부부처에서 비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3. 통계청이 응답자에게 수집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명백한 서약과 사용의 한계를 존중하는데 100% 따라야 함.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는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자료원별로 모든 자료에 적용. 타 행정기관 소지 자료를 통계 시스템 특히 통계청에서 사용할 경우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비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청이 아닌 원 행정자료 관리 주체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료의 통계청으로 유입은 합법적이지만 반대방향으로의 자료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이 소위 일방통행 원칙임

## **B. 행정 목적을 위한 자료 작업에 대한 책임의 불 양립성**

1. 통계청의 비통계 활동에 대한 이것의 의미는 비통계 활동에 절대 개별 자료에 관계되는 책임에서 100% 벗어나야 함을 의미. 이러한 활동은 1) 사업체 또는 인구의 행정 등록 2) 개별 자료에 대한 증거 보관 3) 타 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유지한 행정자료에 대한 확실한 성격유지 책임을 들 수 있음
2. 일부국가에서는 통계청이 타 부처보다 더 나은 정보와 통신기술을 보유하며 자료 수집과 처리 경험이 풍부함. 효율성의 관점에서 통계청에 상위 업무를 위탁할 유혹을 갖지만 효율성의 관점은 통계청의 신뢰 손상에 필적할 수 있음
3. 중앙 계획경제하의 일부 통계청은 통계업무와 비통계 업무 구분 없이 사업체 등록 업무를 담당. 이러한 구분에 대한 소개가 별 어려움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행정자료 등록을 담당할 외부기관 선정과 법적 장치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문 중의 하나임. EU 지역 구가에서는 책임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통계청이 품질개선과 통계적 등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

4. 또한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와의 경계를 예외 규정을 두어 타 부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용도를 위해 확실한 개별 자료를 공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요청은 행정자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자료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유일한 활동은 비밀보호를 위해 식별 자료를 제외한 지도 형태의 등록으로 통계업무 및 비통계업무의 구별이 제외됨
6. 통계청이 행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약 행정 또는 사법 목적으로 등록된 행정자료는 동일한 형태로 보관되어져야 한다면 통계적 목적으로 개별 자료를 편집하거나 보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행정자료에 사용된 정의와 분류는 통계 기준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통계청은 반드시 행정 자료의 편집, 보정할 권리를 주장할 것임
7. 통계적 등록 자료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공식통계 이외의 통계목적에도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연구,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표본 설계에는 사용 가능. 통계청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 자료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 매칭, 응답자로부터 추가 수집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어야 함. 상기 이유와 응답자 부담의 제한으로 일부국가는 개별 자료의 비통계 분야의 사용을 제한

### C. 다목적 자료 수집

1. 통계청이 다목적 즉 통계목적 및 행정목적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관련된다면 어떻게 비통계 목적의 사용금지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는

특히 센서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위한 CES의 권고안 17조에 이중목적으로 센서스를 활용할 국가와 자료수집 및 개별 자료의 비통계적 사용에 관해 규정. 왜냐하면 센서스는 완전히 등록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다양한 등록 자료의 개별적 update는 조정과 행정적 사용의 특별한 법적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기 때문임. 갱신된 행정자료의 사본이 통계청으로 이송되어 통합될 때 비통계 목적 외 사용금지는 타당하게 됨

2. 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효율성 획득이 응답자로부터 이중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복잡성 보다 중요. 표본 조사나 일회성 조사는 조사 대상에게 고지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자료수집의 책임은 반드시 통계청 외의 부서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통계청은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음. 자문과 조언은 행정목적 으로 수집된 자료가 통계청으로 이송 후에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응답자에게 고지
3. 통계청이 타 부처의 행정 목적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과 처리에 공식 통계의 2차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조언을 하는 방법이 있음. 비밀보호 원칙은 통계청에게 개인과 기업에 반하여 행정 본질의 결정에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됨. 또는 비행정적 목적의 자료수집, 제출, 자료처리를 하는 기관으로 보여도 안 됨

#### IV. 결 론

1. 공정성과 비밀보호는 통계청이 책임을 가진다고 가정되는 비통계 활동의 형태에 명백한 한계를 부과. 이 두 원칙은 통계청의 신뢰와 신용의 초석이므로 원칙에 반하는 업무를 할당을 받아 원칙을 위협에 빠트려서는 안 됨. 비통계업무가 공식통계와 결합하여 공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있음. 그러나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비통계 분야에 대한 비밀보호 원칙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함. 통계청에 축적

된 경험이 타 부처 행정자료 수집과 처리에 매우 유용하지만 경험을 적합한 자문, 조언, 협조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생산을 통계청에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되고 있음

## 사업체 고유번호 소개(스위스 통계청)

### I. 소개

1. 2010년 말까지 스위스는 모든 사업체에게 UID(Unique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체 고유번호) 부여 계획  
2007년, 정부는 기존의 BER(Business and Enterprise Register)에 기반한 UID 도입을 FSO(Federal Statistical Office)위임  
중기 이후, 현재의 모든 행정상 ID-특히 상업 등기(Commercial Register)와 부가가치세-는 UID로 대체
2. UID 도입은 사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창업 유발  
행정기관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체 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 자원과 비용이 절약
3. UID 도입은 그 업무의 복잡성과 Statistical register(BER)과 administrative register(UID)의 밀접한 상호 관계로 인해 FSO의 도전과제가 될 것임. 이는 스위스의 총체적인 경제 통계에 영향을 미치나 대부분 통계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II. 제 안

#### A. 요구 사항

4.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게 UID를 도입  
UID 도입의 정치적 합의 도출

5. UID는 사업체에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으며 가능한 UID 도입·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절차와 IT 시스템의 수정을 최소화. FSO에 UID 도입·운영을 위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6. UID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business)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사업체와 정부 사이의 모든 접촉이 이 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모든 행정 식별번호가 UID로 대체
7. 2011년 1월 정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법률 초안 준비 중, UID로 완전 대체 될 때까지 5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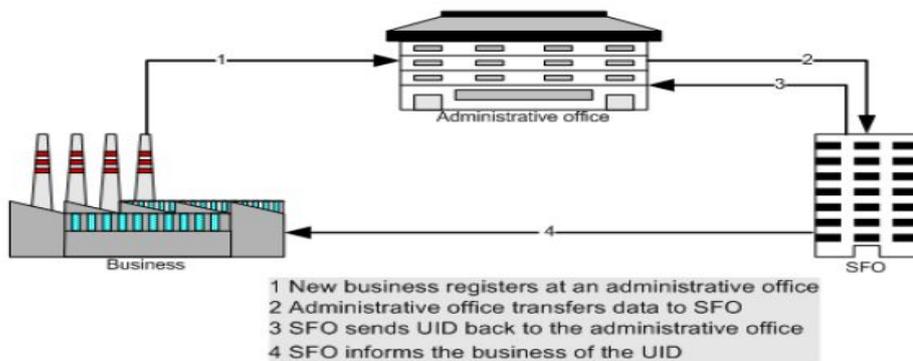
## **B. UID register**

8. UID 등록부(register)에는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체 정보(이름,주소 등)만을 포함. 거래액, 종사자수와 같은 통계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데이터는 BER로부터 가져 옴. 가능한 최신의 완벽한 정보를 얻기 위해 BER은 상업등기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와 자동적으로 교환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9. 현재 구상하고 컨셉은 BER과 UID가 서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 **C. 정부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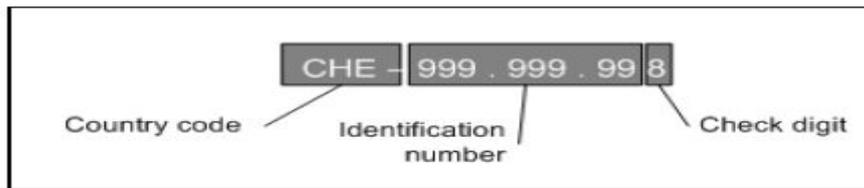
10. 각각의 행정 기관에서 사업체에 대한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BER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개념과도 불일치하므로 UID와 BER간의 조율이 우선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시계열상 편익(bias)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11. UID도입으로 사업체에게 추가적 의무를 지우지 않게 되면 UID 등록부에 변동사항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지 않을 우려. 입법을 통해 행정기관이 신규 사업체나 기존 사업체 변동 사항에 가능한 빨리 UID에 등록하도록 요구.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부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자동화되어야 함
12. 신규 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은 UID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UID 등록부에 전달. 수많은 확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몇 초 안에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UID번호를 인식. 그 데이터는 즉시 다른 행정기관도 접근가능하며 후에 UID 등록부 내 데이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확인 수행
13. 연방, 주, 지방 자치 정부 및 각종 기금 관련 공단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 이러한 맥락에서 등록되는 모든 정부의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맞는 절차의 치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



## D. UID

14. BER 번호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정부 기관 사기업체에 의해 행정목적으로 사용, 8자리로 구성되며 UID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것임. ISO 3166-1 기준에 따라 국가 코드가 사업체 번호보다 먼저 부여



## E. 데이터 보호

15. UID 등록부 내의 데이터는 비록 민감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보호는 중요. 행정 기관의 UID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대중의 접근은 제한해야 함. 예를 들어, 사적인 개별들은 오직 한개의 질문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UID 등록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전체 주소 목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III. 장점

16. 정부는 UID가 행정 기관들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간편하게 할 것으로 전망. UID에 등록된 데이터 수정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보유 할 수 있어 절차상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꾀함. 사업체 또한 각기 다른 행정절차에 따라 다른 사업체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음
17. 통계 영역에서도 명확한 사업체 식별과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 원천 (source) 획득한다는 장점
18. 정부를 통한 명확한 사업체 식별을 통해 FSO는 지금까지는 직접 조사에 의해 수집될밖에 없었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원천 개발이 가능해져 저비용으로 최신의 자료를 제공
19. 행정기관은 등록 시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BER은 최신의 완벽한 데이터를 획득. 특히, UID는 소규모 사업체,

1인 사업체 및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을 모두 포괄

#### IV. 향후 계획

20. 2011년 1월 1일 스위스 내 모든 사업체는 UID를 부여받고 행정 기관 접촉시 이 번호를 이용, 그 때까지 이를 위한 법적 기초, IT 시스템 구축해야 함

##### A. 입법

21. 스위스 지방 자치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상위의 목표를 존중하면서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용, 조율이 중요  
2009년 말까지 입법 초안이 마련  
2010 상반기 중 의회 승인  
2011 1.1 시행

##### B. IT System

22. UID 등록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표준 인터페이스 필수

#### V. 전망

24. UID의 신속한 도입은 정부, 사업체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으며 이를 목표로 하지도 않음. 중요한 점은 향후 UID 시스템의 확장과 발전. 사업체의 자발적 등록, 지부 단위 식별. UID 사용에 대한 의무, 신규사업이나 정보 변동에 대한 보고의무. FSO의 정밀한 등록 관리 등이 요구

## VI. UID와 신뢰보호 원칙

26. UID는 BE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통계와 행정적 업무간에 혼란 유발 가능성 존재.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조직적, 기술적,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음. 일찍이 BER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가능성 배제. 행정 데이터를 포함하여 UID등록부에 통합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완벽히 BER로부터 분리됨을 의미
  
27. 데이터 조항 안에 가능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야만 통계 조사를 대체 할 수 있음. 이는 1차적으로 데이터가 FSO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수집됨을 의미. UID 등록부에서 BER로 전달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데이터인지 확인

## 연구, 개발 및 혁신통계 현황 : 혁신통계 측정에 따른 도전과 과제

### 요 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6월 “사업체 통계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 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인하였으며 스페인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현재의 보고서는 스페인 연구 개발 혁신 통계의 개관과 극복하여야 과제와 장애와 가능한 해법을 제시

### I. 소 개

1. 스페인에는 이 분야의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 R&D 통계와 기술혁신통계 2종이 있음
2. R&D 통계는 64년에 시작하였는데 이후 많은 기관이 개발에 관여하였으나 86부터 통계청이 수행. 자료 수집은 OECD 권고안 “연구 및 실험적 개발에 대한 조사 규범”의 방법론에 따름. 지침서가 최근 개정되어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업체는 R&D 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3. 2001년까지 R&D 통계는 전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R&D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로 6,000여개 업체가 대상. 조사대상은 새로이

출발하는 업체 또는 처음으로 R&D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인식하기가 어려워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음. 또한 조사는 격년제임

4. R&D 통계의 목적은 국가적 R&D 활동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측정하여 과학과 기술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5. 1992년부터 R&D 조사에 추가하여 기술혁신조사가 짝수 년에 시행. 일부 기본 R&D 질문이 조사에 포함
6. 랜덤포본을 사용하는 잠재적 연구 회사의 센서스와 연계되는 센서스를 매년 실시할 계획

## II. 스페인의 R&D 및 혁신 통계의 현황

### A. 기업체 혁신 통계와 R&D 통계

1. 공동 표본은 매년 R&D 활동을 수행하는 전년 자료와 기금신청 기업, 세금감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한 26,000개의 고정 기업체 디렉터리에서 추출
2. R&D 활동으로 공공기금을 수령 정보는 매년 직접 update 하도록 제출되어 전년 자료와 연계하여 수정
3. 디렉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26,700개 업체가 중앙 기업체 디렉터리에서 추가되어 최종 표본은 53,300개 업체임

## III. 도전과 과제 : 가능한 해법

### A. 혼합시스템을 사용한 표본 추출

1.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표본이 혼합 시스템의 의미에서 추출. 시스템은 혁신 기업과 혁신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유일한 센서스에서 자료 수집. 센서스는 연간 R&D와 혁신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랜덤 표본으로 마무리

## **B. 혁신(신 오슬로 매뉴얼 2008)**

1. 혁신조사는 기업체에 경제적 영향, 혁신활동 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기업체 혁신 과정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2005년 개정된 신매뉴얼에 의하면 혁신의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시장 혁신과 조직혁신 개념이 추가
2. 서비스 경제에서 수행하는 혁신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2008년부터 시계열이 단절될 것임. 2006년부터 여러 시험 조사를 거쳐 2009년 첫 시계열을 발간할 예정이며 시계열 연결을 할 예정임
3. 2008년 Eurostat 권고안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 두 가지 항목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사표 마지막에 배치

## **C. 자료 수집 개선**

1. 공공부문 자료는 INE 소유 과학 및 기술 전문가에 의하여 수집하고 회사 자료는 규모 때문에 INE 특별 단위에서 수집
2. 조사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집된 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1) 특화된 자료 수집 팀을 구성하여 매년 조사표 검토 시도 2) 매년 수집되어 사용된 부수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표 완성 에러 검색 시스템 개선 3) 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치구의 회사와 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를 할 계획

## D. 정보 접근

1. 연구자들은 저장도구가 없는 Ethernet을 이용한 제한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 식별자와 자료 합계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파일에 접근 가능
2. 자료이용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반드시 통계청과 접근 파일, 작업인원, 목적, 연구기간에 대하여 계약을 맺어야 함. 정보 접근은 보안을 위하여 오직 수도인 마드리드에서만 가능

## IV. 생명공학 통계

1.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 자료는 기술적 혁신 조사에 부가하여 잠재적 생명공학 업체를 대상으로 수집
2. 생명공학분야의 국가적 R&D 활동의 산출 총량은 1) R&D와 관련된 경상 및 자본 비용을 포함하는 국내 생명공학 분야 R&D 지출 2) 인력을 조사
3. 2006년부터 생명공학 통계의 범위가 생명공학 관련 활동과 분석, 최종 응용분야, 생명공학 제품과 과정을 개발하거나 영업을 방해 하는 요인까지 확대

## V. 향후 계획

### A.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대한 지출의 지역화

1. 본부에서 선택된 기업은 R&D 지출을 자치시 별로 지역화해 주기를 요구 받음. 많은 경우 기업은 혁신의 장소는 무시하므로 매우 힘든 작업임. 또한 지역화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조사 항목과 충돌 가능성

## **B. 건강관리 분야의 R&D 지출**

1. 건강관리분야의 R&D 지출이 저평가 되었다고 평가 되어 통계청은 병원 분석을 위해 외부 자문회사를 고용. 건강에 대한 보다 나은 추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적합한 조사표를 개발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요인을 찾지 못하였음

## **C. 건설, 숙박 및 기타 분야의 혁신 지출**

1. 이 분야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통계청은 일부 호텔과 건설 회사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개발. 3개 분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조사표 설계가 목적

## 2008 10월 & 2009 2월 의장단 회의 결과; 주택통계 심층검토

### □ 요약 (또는 개요)

CES 의장단은 지난 2008년 2월 회의에서 주택통계를 2009년 2월 의장단 회의 심층검토의 주제로 선정하고 이 분야 국제협력, 당면 과제 및 해법 등 심층검토. 본 보고서는 국가별 주택조사 개요, 주택통계 관련 국제협력활동, 과제 및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의장단 회의 결과 또한 수록.

### □ 국가별 주택통계 범위

#### ○ 주택통계 관련 쟁점사항

- 빈곤국가의 사회만족도 향상, 노령화, 국내/국제 인구이동, 사회적 약자(장애 및 노령인구)의 주거현황, 주거 밀도 등
- 주택 투자/건설/철거/용도변경/개조
- 거주여건 변화
- 주택개발, 주거지출비용
- 공공 주택
- 빈곤, 홈리스, 환경위생
- 도시화 과정, 사회 배제, 계도형성 방지
- 경제발전- 주택 가용성 및 인구이동에 대한 노동시장 의존도
- 건설부문 고용
- 공간통계, 도시 및 환경 폐기물, 에너지 소비, 기후변화

#### ○ 자료 원천

-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 행정자료 이용 (예; 건축허가~준공검사필증; 건설통계 집계)
- 개도국의 경우, 주택통계 산출체계가 미비하여 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존

○ 총조사 가이드라인

- 유엔 인구주택 총조사 원칙과 권고안
- UNECE 인구주택 총조사 권고안; 2011년 EU지역 총조사 기본 틀로 사용 계획(예, 총조사 설계 및 실시, 지역별 자료비교 등)
- 주택 총조사를 통해, 행정단위별 주택규모/소유형태/주거여건 및 관련 건물정보/환경위생/ 시설 정보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주거이용(방 형태), 다가구 주택, 온수 사용여부, 하수처리형태, 난방연료 종류, 장애인 시설 구비 현황 등을 부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정의

- 주택 총조사 자료를 제외한 국제 비교 가능한 주택 통계 부재
- 주택통계 항목 정의 표준화 필요; 가구, 주거, 방, 사용가능한 바닥면적, 건물형태, 소유권, 주거비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상이.
- 주택 및 건물 건축허가의 경우, EU 외 국가(스위스, 캐나다,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터어키) 와 EU 국가간 정의는 대동소이하고, 허가 발급기관만 일부 차이.
- 입주완료(dwelling completed), 신규입주(new dwellings) 통계 작성 기준 필요
- 사회주택 (또는 복지주택, social housing) 정의 부재. 포괄적으로 사회주택이란, 비영리단체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건설한 주택으로 자력으로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세대에게 시장가격 또는 그 이하로 임대해주거나, 재정적 지원 제공함으로 정의
- 홈리스 정의 부재

□ 주택통계 관련 국제기구활동

○ 국제기구

- 주택통계는 유엔통계청, UN-HABITAT, UNECE, WHO 연구과제
- 유엔통계청, 1971년~ 주택 총조사 자료를 통한 국가별 주택 여건/규모 통계 수집

- 유엔통계청, 2006년~ 인구연감 자료조사 시스템에 주택통계 조사표 수록
- UN-HABITAT, 도시지표 및 MDG 작성 (환경위생, 식수, 영구주택/거주 인구 등)
- UNECE, 연말 주택 재고(stock), 연간 주택 공급, 바닥면적 사용 및 기타 정보 제공
- WHO, 주택과 정신건강/주거 안전과 사고/실내 공기오염도/거주환경과 신체활동 등을 주제로 연구조사 실시
- Eurostat, 소득과 생활여건 조사(EU-SILC)에 주거관련 항목 수록 외 부동산 투자/관련 제조, HICP 연계 임대가격지수 등 연구조사
- 기타, Euroconstruct,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European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또한 관련 통계 수집 및 제공

○ 국가통계기관

- 주택통계 작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 64개국 통계기관 웹사이트 조사결과, 선진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일수록 광범위한 주택통계 제공
- 관련 통계는 데이터베이스(미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등) 또는 테이블, 출간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유료 출간책자 외 자료 접근이 불가
- 대다수 국가의 경우, 국가통계기관이 주택조사를 주관하거나, 정부기관 공동으로 실시. 다만, 포르투갈(National Housing Institute)과 폴란드(Institute of Urban Development)는 별도기관이 담당

□ 쟁점사항 및 과제

- 주택통계 원천; 총조사 및 표본조사, 행정자료 등 서로 다른 자료원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통계작성 체계 및 일관성 있는 정의 및 개념 필요
- 주택통계조사 협력; 중복조사 및 자료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 - 통계기관,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 등-간 협력 필요

- 주택조사 지리적/주제 범위; 국제비교를 위한 완전한 자료작성을 위해 분야별 자료 보완 필요 (예, 주택정책 및 재정지원 수단, 홈리스, 사회배제 등)
- 조사 가이드라인; 근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야
- 주택통계에 대한 정부 요청사항; 센서스 기반의 주택분석 자료는 국가 주택정책 수립과 실시를 위한 필요 통계이며 기업에게도 (전략수립을 위한) 필요한 정보로 신뢰성 있는 주택 및 건설 통계를 작성하여야
- 정보 이용가능성 문제; 불규칙한/지연된 자료 공표(또는 출간) 으로 인해 시의 적절한 자료 이용 불가, 통합성 부족 (다양한 정보원천 등)으로 인한 국제 비교성 저하,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 부족, 출간책자의 높은 구매비용 등 선결 과제

□ 발전 방향

- 주택통계와 기타 통계 결합(또는 통합); 주택통계와 환경통계/공간통계 간 결합, 도시화과정 규명을 위해 주택통계와 사회/경제통계 간 결합 등
- 국제수준에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작성
- 총조사 자료 활용;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활용도를 개선하여 지역별 주택수요 파악, 보건/소득관련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지역별 사회정책 분석(홈리스, 주택품질 등)
- 국제기구와 UNECE 간 협력 강화
- 단기지표; 현재 변화(주택가격, 부, 건설, 주택이용 등)를 반영할 수 있는 단기지표 작성
- 국제 분석; 평균 자료가 아닌 여건별 분석자료 산출 (예, 주거 여건별 생활 인구수, 주거여건 구분- good, average, bad, very bad)
- 현대 정보통신기술 활용
- 주택통계 신뢰성 및 가치 향상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허용

## 노동비용 측정

### 요 약

2006년 총회에서 유럽 통계위원회는 진행 중인 주요 통계 과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 인지. 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8년 2월 총회에서 OECD에 노동비용 통계에 관한 심층 분석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

현재의 보고서는 현 국제 활동 개관과 가능한 향후 활동을 제공. 보고서는 2008년 12월 회의 회원의 전자 자문을 통한 여러 국가의 코멘트와 2009년 2월 회의 시 사무국의 코멘트를 고려

## I. 소 개

### A. 배경과 내용

1. 노동통계에 관한 보고서를 ILO가 준비(2005)하였으나 노동비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흥미로운 논쟁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활동을 권고. 아래는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임
  - 1) 실업 : 비록 회원국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조사를 수행하지만 Eurostat을 통한 실업추계의 개선
  - 2) 근로시간 : 2006년 8월생산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에서 본 국민계정 상 피용자 근로시간 발간
  - 3) 빈자리 : Eurostat은 2008년 12월 빈자리 통계에 대한 워크숍 개최
  - 4) 분류 : 국제산업분류(ISIC) 4판을 2008년 8월 11일 공식 공표. 직업 분류도 update 되어 2008년 ILO에 의해 추인되었으며 동년 2월 UN 통계위원회에도 제출

- 5) 근로 시간 : 2007년 11월말 노동시간과 보상통계에 대한 OECD Paris 그룹은 ILO 1962년 근로시간 측정 결의 개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 2008년 12월 노동통계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표결
2. 노동비용에 관한 본 보고서는 국제수준에서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가수준에 대하여는 토의가 없었음. 유럽국가의 임금비용지수의 경향은 미국 노동부의 “임금비용지수 및 피용자 보상비용”과 유사하므로 제외. 노동통계국은 다량의 노동비용 dataset을 보유하여 국가별 조화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3. 노동비용 용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개념과 의미, 사용을 나타내므로 통계분야의 국제 비교성을 가져오기 위한 두 가지 주된 시도는 아래와 같음
    - 1) Eurostat이 모든 EU국 노동비용지수 개발과 공표
    - 2) 단위 노동비용과 관련 DB에 대한 OECD 시스템 개발

## **B. 주요 개념**

1. 노동비용 통계는 피용자 소득 관점보다는 사용자 비용 관점에 바탕. 노동비용은 피용자 보수 관념 보다는 광범위한데 고용에 있어서 피용자에게 일어나는 제반 비용으로 표1에 세부 묘사
2.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임금률, 소득, 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요구. 이러한 통계는 국가내 및 국가간 시간별 노동비용 생성의 비교에 사용. 통계 집계 빈도는 사용자 요구에 의존하며 가용자원과 응답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균형 하에 결정

## II. Eurostat 개발 노동비용 및 노동비용 지수

### A. 개 관

1. Eurostat이 수집하고 발간한 노동 비용통계는 연도간, 연도별 및 분기 자료로 구성되어 노동비용에 대한 수준별, 구조별, 단기지표의 종합적이며 세부자료를 제공. 모든 통계는 지침(CE 530/1999, 1737/2005, 450/205)에 정의된 노동비용에 관한 조화된 정의에 바탕
2. 분기 노동 비용에 관한 EU지침 450/2003은 LCI 자료 제공을 위한 회원국에게 기본 지침을 제공. EU정의를
  - 1) 노동비용지수는 시간별 고용에 따라 피용자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의 단기적 지표. 노동비용은 피용자 총보수와 간접비용의 합계. 피용자 보수는 급여, 보너스, 사회적 기부의 가치, 소득세 등을 포함. 간접비용은 지불한 보험금, 피용자에게 연계된 세금에서 보조금 공제, 지수는 자국화폐 기반으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음
  - 2) 지수는 경제활동 분류(NACE)별 경제활동을 고정화 하여 연별로 연쇄하여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의거 산출
3. 분기별 지수는 생산요소로서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압력을 측정. 자료는 크게 “임금 및 월급”과 “피용자 사회보장 지출에 지불된 세금에서 고용자 수령 보조금 공제” 구분 가능. 1996년부터 Eurostat 지역 분기별 자료를 공표하여 현재는 모든 EU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포함
4. EU 회원국에서 수행한 노동비용조사(LCS)를 통해 노동비용에 관한 구조적 정보 수집. 조사는 10인상 사업체별 세부 노동비용 자료, 근로시간 및 근로 비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
5. 정보는 규모별, 경제활동별, 지역별로 분류. 자료는 대부분 총화임의 추출에 의해 각국 통계청에서 수집. 또한 자료는 “월간노동비용과 평균

시간당 노동비용"을 포함하며 비용별로 이용 가능

## B. 현재 Eurostat 노동비용 지수 작업

1. EC 지침 224/2007(노동비용지수에 의한 경제활동)이 최근의 개정. 이 지침은 450/2003을 Update 하였으며 공공부문을 포함하도록 지수 범위를 확장하는데 관심
2. 2009년 출간예정인 공공부문을 포함한 자료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2009년 폐기 될 예정이며 LCI의 이름을 NACE 1.1에서 NACE 2로 변경할 예정
3. 품질관리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지수의 탄력성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계열로 확장할 예정

## Ⅲ. 노동 비용과 관련 지표에 대한 경제적 협력 결성 및 시스템 개발

### A. 개 관

1. 단위 노동비용은 산출물 당 평균 노동비용을 측정 한 것으로 실 산출에 대한 노동비용 비율로 시간당 노동 생산성에 대한 단위 평균 노동비율과 같음. 단위노동비용은 생산성과 생산비용중 임금과의 결합 효과를 나타내 줌. 국가별 노동통계를 사용하여 단위 노동비용을 산출하는 능력이 최우선이므로 이번 섹션은 OECD의 회원국과 EU 국을 망라하는 최근 작업과 타 국제기구와의 공조에 초점. 노동 통계 방정식 이슈가 제기 되었음
2. 단위노동비용은 피용자당 비용 감축에 의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킴 으로서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두 가지 또는 혼합전략이 가능

3. 국제비교 관점에서는 물가의 단기 변동, 경제구조의 차이로 국가간 일치하지 않아 일부 항목은 집계과정에서 상쇄시킬 수 있으나 세부 항목의 산업과 생산 구성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
4. 단위 노동비용과 관련지표 OECD 시스템은 노동비용에 대한 국제적 비교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경제 분석가 사회의 관심에 따라 개발. 2007년 중반 새로운 시스템 공표는 대학, 각국 자문단, 각국 통계청과 중앙은행, 국제기구 및 OECD 경제국의 도움 하에 OECD의 4년간의 작품으로 2005년 OECD 단기 경제통계 작업반 회의에서 피드백을 받았음

## B. 방법 및 범위

1. 시스템은 아래의 분기별로 갱신되는 분기 및 연간지표로 구성되는데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방법을 사용
2. 분기 지표
  - 1) 단위 노동비용 지수 및 성장률 : 원계열, 계절조정, 추세치
  - 2) 총 노동비용 : 통합되지 되지 않은 국가별 임시 원계열
  - 3) 실질 생산 : 통합되지 되지 않은 국가별 임시 원계열
3. 연간 지표
  - 1) 단위 노동비용 : 지수, 수준, 성장률
  - 2) 총노동비용 : 자국 통화 수준
  - 3) 실질 및 명목생산 : 자국 통화 수준
  - 4) 총 고용 및 고용률
  - 5) 환율조정 단위노동비용 : 지수 및 수준(\$)
  - 6) 노동 소득 점유비 : 지수 및 수준
  - 7) 단위 노동 투입당 노동 생산성 : 지수 및 성장률
  - 8) 피용자당 노동생산성 : 지수, 성장률, 수준

- 9) 단위 노동 투입당 노동 보상 : 지수 및 성장률
  - 10) 피용자당 노동 보상 : 지수 및 성장률 및 수준
  - 11) 근로시간별 피용자당 노동 보상 : 지수 및 성장률 및 수준
  - 12) 단위 노동 투입 지표별 노동 보상 : 지수 및 성장률(US \$ PPP 조정)
  - 13) 피용자별 노동 보상 : 지수 및 성장률, 수준(US \$ PPP 조정)
  - 14) 시간당 노동 보상 : 지수 및 성장률, 수준(US \$ PPP 조정)
4. 지표는 38개국(EU와 결합한 OECD), 유로 지역, 주요 7개국에 대하여 아래의 경제 활동으로 이용 가능
- 총 경제, 제조업(ISIC D), 산업(ISIC E), 건설업(ISIC F), 도소매, 운수, 통신(ISIC G-I), 재정 및 사업서비스(ISIC J-K), 시장서비스(ISIC G-K), 농업을 제외한 사업 분야(ISIC C-K)

### C. 연간 총 노동 비용

1. 총 노동비용의 목표 변수는 SNA93에 의해 추계된 피용자 보수로 자영업자는 피용자보수를 사업체 종사자의 총 노동시간에 대한 자영업자의 총 노동시간 비율을 곱하여 조정. 이 변수는 임금, 월급, 보너스, 노동서비스와 관련된 지급, 연금관리에 대한 피용자 기여, 간헐적 및 주기적 지급, 생명보험과 노동사 보상을 포함한 노동비용 대부분을 포괄. 그러나 피용자 보수는 피용자 훈련, 복지 혜택, 채용, 고용세, 기타 부가세는 제외. 자영업자의 시간당 보상이 사업체의 보상과 같다는 가정은 국가별, 경제활동별로 타당성에 차이가 있을 것임

### D. 분기 총 노동 비용

1. 총 노동비용의 목표 변수는 SNA93에 의해 추계된 피용자 보수이지만 자료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총임금 및 월급, 적합한 노동 투입 측정에 의해 계산된 노동비용 지수, 평균시간당/주당/월별 소득선호로 대체 변수로 대체. 분기별 자료는 연간자료를 벤치마킹하였음

## E. 국제 협력 기회 및 관련 이슈

1. 2007년 노동통계국(BLS)과의 밀접한 협조로 비교사업이 시작. BLS와 OECD가 각각 독자적으로 발간한 15개국의 대부분 ULC 계열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두 계열간 국가별 차이의 원인은 총노동비용에 대한 조정, 자료제한, 자료출처에서 나타났음
2. 유럽 중앙은행은 NACE 산업분류에 바탕을 둔 6개 경제활동별 유로 지역 분기별 ULC 지수 발간
3. OECD는 현재 ECB와 시스템상 내용 차이에 대하여 토론중이며 양 기구의 공조방안을 검토 중
4. 추가 이슈는 ECB가 토론에서 강조하였듯이 현재는 단위노동비용 계산 방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없다는 것이며 사무국은 이 이슈를 위원회에 상정하기를 희망

## IV. 가능한 향후 작업

1. ILO 노동시장 주요지표(KILM) DB는 31개국 전체산업, 23개국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모두에 대한 연간 자료를 보유. 자료의 품질보장과 방법의 타당성확보를 위해 ILO와 OECD의 공동 국가에 대한 비교 가능성연구 가능성이 있음
2. 향후 협력 가능 분야는 가이드라인으로 Eurostat 상황에 따라 UNECE 국가 간 LCI 조화임
3. 국민계정의 고용과 근로시간 : 보고서가 국민계정 노동 투입 측정의 통합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 중. 보고서는 OECD/Eurostat 질문지 결과에 바탕을 둔 세부

가고 통계표를 제공할 예정으로 피용자수와 근로시간에 대한 수량적 영향이 측정될 예정

4. 국민계정으로 노동계정 통합은 노동투입에 대한 기본 자료원이 국가 통계시스템 내 통계 요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힘든 과정으로 관명. 경제분석에 국민계정 기반 노동 투입 추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러한 추정치와 원자료 품질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 같은 사례가 근로시간 자료에도 발생
5. 평균 연간 근로시간 표준화 : 이 장기과제의 목적은 30개 회원국과 10개 참여국에 대한 표준화된 평균 연간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 DB 구축
6. 이 지표의 단위는 법정 휴가에 개별 적용한 피용자별 연간 최고 법정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음. 지표는 법정 근로시간, 일수 혹은 주일과 타 지표(출산휴가 정도, 질병관리, 파트타임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디센티브)에 나타난 법정 최고치를 혼합
7. 지표는 단위노동비용, 노동생산성 등 주요 경제지표의 국가간 비교성 증대의 도구를 제공할 것임

##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 행정자료에 기반한 고품질 통계생산 가능성은?

### 요 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6월 “ 사업체 통계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 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진하였으며 포르투갈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현재의 보고서는 포르투갈의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시스템 구축과 구축된 자료를 현 통계 생산에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는 4개 공공기관의 합동 작품으로 일관성 있고 조정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 양질 통계에 대한 시스템의 영향과 시스템 사용의 장점은 토론할 것임

### I. 소 개

1. 포르투갈 통계생산은 2006년 기업체자료를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간소화된 사업체정보시스템(IES)인 행정자료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 IES는 4개 공공기관의 합동작품으로 일관성 있고 조정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 IES는 일정 시기에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수행. 동시에 기업체의 통계 분야를 포함한 법적의무에 부합하여야 함
2. 이 보고서는 포르투갈의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시스템 구축과 구축된 자료를 현 통계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 포르투갈의 현 통계 시스템은 사업체구조 통계 규제 범위 내에서 통계생산을 금지하지

않음. 오히려 IES는 국내무역 및 국민계정 자료를 포함하는 통계분야를 포괄. 양질통계에 대한 시스템의 영향과 시스템 사용의 장점은 토론

## II.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시스템(IES)

1. 포르투갈 통계청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 노력에 비해 결과는 특히 사업체 통계 분야에서 미미. 2005년 포르투갈 기업체에 대한 일부 행정/과세 자료의 이용이 가능. 그러나 조사는 여전히 수행되었으며 국민계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이 필요
2. 2006년 초 포르투갈 정부는 기업체와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료의 간소화와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 다수의 국가 공공기관이 행정자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에 참여. 시스템은 동시에 아래의 기업체의 법적 의무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
  - 1) 재무부(국세청)에 대한 연간 회계 및 세무 보고서
  - 2) 상업적 레지스트리 등록에 있는 회계보고 기록
  - 3) 통계청에 제출한 사업체 통계자료로 유럽 통계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3) 통계목적으로 중앙은행에 제출한 회계자료 보고서로 유럽 중앙은행 통계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IES는 1월 17일 법률 8/2007호로 제정. 시행은 모든 이해기관의 참여로 가능. 타 기업에 SW를 판매하는 기업과 보험 및 금융 감독자도 참여.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책지원이 가장 핵심요소임
4. 일단 시행되자 시스템은 모든 참여기관이 행정부담을 경감하며 축정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수용하고 인식. 이는 시스템개발을 상호협조적으로 하였으며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수요를 인지, 공동수요에 대비한 개념과 정의의 조화로 가능. 각 기관은 IES에 포괄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대하여 보고 금지. 동시에 전자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4가지 의무사항을 충족하므로 기업체에게는 초기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익

5. 포르투갈 통계시스템은 1개 자료원에서 생산한 기업체에 대한 기본 통계 자료와 완전히 통계적 수요에 따른 정의를 처분하여야 하며 사업체 구조통계의 생산이 6개월 단축

### Ⅲ. 사업체구조통계 생산에 있어서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시스템의 영향

#### A. 사업체 통계 조사

1. 통계청의 IES 참여 초반에는 완전한 행정자료 이용으로 연간 사업체 통계조사(SBS) 폐지가 목표. 이러한 목표는 IES 시행 첫해에 달성되었고 IES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
2. 구 표본조사자료와 IES 자료의 비교는 다른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단절이 없으며 자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완전한 결론. 반면에 모든 기업체 자료가 이용가능 하다는 사실은 자료의 품질을 보장
3. 그러나 SBS에 의해 수집되던 일부 부문별 통계자료는 IES를 통해서는 수집 불가. 이러한 정보 수요는 존재하는 타 통계에 통합하거나 수요에 맞추어 새로이 생산. 이러한 경우 사업체통계조사에 비해 적은 샘플 조사로 대체
4. 행정자료의 활용으로 사업체 구조통계 및 사업체수 통계, 분야별 통계의 일관성 향상. 많은 연구와 사업이 다른 출처로부터 생성된 통계자료의 일치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중

## B. 기타 사업체 조사

1. IES의 시행으로 종사자수 같은 IES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는 타 조사에서 삭제. 따라서 통계청 내 DB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
2. 따라서 표본 조사는 IES 참여 기업체의 표본자료 또는 IES 결과자료로부터 각각 자료 수집이 가능
3. IES의 사용과 행정자료의 활용은 모든 사업체 통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회. 조정된 표본은 동일 기업체에 대한 응답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동시에 정의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IES에 바탕을 둔 통계 자료는 상대적인 일관성을 보장. 일관성 확보를 위해 calibration 기법을 사용

## C. 국제 무역 통계

1. IES는 EU 국내외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무역 통계와 비교. VAT 과세 자료와 VAT 정보교환 시스템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역내 무역은 통계 시스템보다 보다 많은 정보의 출처임
2. VAT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자료보다 IES시스템과 Intrstat 시스템의 방법론이 보다 유사하여 역내 무역통계 분석에 IES의 효용은 광대. 2006년 사업체 수준에서 자료를 점검하여 국제 무역통계의 품질이 많이 향상

## D. 국민계정

1. 국민계정 생산통계의 수준별 및 종합별 자료에 대한 단일한 자료원이 없기 때문에 조사자료, 행정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에 의존
2. IES는 국민계정의 통계적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계정 추계에 사용되는 세부항목은 통계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함. 사실 IES의 결과로 국민

계정은 생산, 수입, 수출, 고용 변수에 접근 가능. 후반부에는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자료도 이용 가능. 추가로 국내외 시장별 사업 활동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접근도 가능

3. IES와 협력하여 국민계정 통계 생산은 아래의 이점이 있을 것임

- 1) 추정과 추계과정으로 통계적 에러를 제거하여 법인 분야로 적용 범위 확대 가능
- 2) 공급과 소득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단일 정보원
- 3) 생산, 중간소비, 총부가가치, 고용, 피용자 보수, 잉여, 수출입과 같은 국민계정 요소의 비교와 타당성 검증을 가능하게 함

#### IV. 행정자료 활용과 품질 개념

1. 조사에 의한 통계자료의 품질이 행정자료로부터의 품질보다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가 통계작성기관은 조사를 통하여 엄격한 보고 사항을 보유하나 행정자료는 일반적으로 국가통계기관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데 기인
2. 따라서 행정자료 활용으로 응답부담 경감과 통계의 품질향상은 상호 배척관계임. 행정자료는 통계생산에 필요한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모든 단위를 포괄하지도 못함. 또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정보관리 방법이 불명확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시한에 자료이용을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반드시 추정치를 생산하여 타 정보원 또는 통계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비교하여야 함
3. 이러한 요인은 여러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을 주저하게 할 것임. 여러 자료원에 대한 품질, 자료의 추정 또는 결합에의 통계적 어려움에 대한 의심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임

4. 여러 국가 통계기관의 요구 및 이해관계와 통계수요를 결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각 기관은 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각자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변경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모든 참가 주체 특히 일부 기업체와 시민은 많은 이익을 보고 싶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5. 포르투갈의 IES 시스템은 행정자료의 활용에 따르는 단점을 최소화 하여 혁신적임
  - 1) IES가 광범위한 사업체 구조통계를 포괄하여 고수준의 일관성을 보장
  - 2) 전자 전송이 약 2000개의 내검 원칙을 소장하여 초기단계에 자료의 일치성 보장
  - 3) 통계청의 활동적 참여로 초기단계부터 통계수요를 보장 받아 조사 항목, 조사단위, 정의, 조사시기의 보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수확

## V. 결 론

1. 조사통계와 행정자료와는 차이가 존재. 행정적 또는 통계적 부담이 기업체 응답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행정자료의 활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행정 부담 중 통계적 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부담 감소요청 압력이 있음. 이는 제공된 정보로부터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거나 보다 약한 법적의무로 인식, 또는 통계적 부담은 종종 타 통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임
2. 결과적으로 통계 시스템이 피할 수 없이 따라야할 경로는 조사를 대체 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 하에 통계청은 조사대상, 범위, 통계조사 단위, 자료검증, 여러 자료원의 결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임. 행정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일관적이며 통합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임

3. IES 시스템은 통계청의 직접 참여와 타기관의 통계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보고된 통계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4. IES 시스템 개발은 모든 포르투갈 행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인식. 기업체는 동일한 정보를 상이한 시기와 형식으로 4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였음. 기업체가 정보기술시스템을 채택하는데 드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음
5. 전체적으로 포르투갈 통계시스템에게 IES는 조사대상의 확대, 일관성, 정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사업체 통계의 정확성을 향하여 도약을 하게 해 주었으며 통계의 품질에 대해서는 다방면에서 고려중임

## 행정자료에 역점을 둔 기업체통계 : 슬로베니아 사례

### 요 약

유럽통계기관장회의는 2008년 6월 2009년 정기회의 세미나로 기업체통계의 전략적 이슈를 주제로 채택. 총회를 대신하여 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세미나에 대한 개요를 승인하였고 슬로베니아에게 토의 안건을 제공할 노트 준비를 요청함

이 노트는 슬로베니아에서 기업체통계의 생산에 대한 통찰을 제공. 이런 접근방법은 등록에 기반 한 행정자료 출처의 활용으로 특징됨. 이 노트는 법적근거, 기업체등록, 고용의 행정등록 그리고 연간 회계보고서와 부가가치신고가 어떻게 통계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지를 설명. 기업체 통계에 대한 행정출처 이용의 이점, 단점 그리고 도전 또한 토의

### I. 소개

1. 기업체통계는 두개의 주요 도전에 직면 즉, 고품질의 통계를 제공하는 것과 행정부담경감에 대한 책임(commitment)임. 이 두 목적은 상충되고 자기 배제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달성될 수도 있음. 자료는 슬로베니아 통계시스템의 접근법을 설명. 통계시스템은 등록에 기반 한 행정자료원의 활용이 특징. 자료는 법적근거와 두개의 가장 중요한 기반요소 즉 기업등록과 고용통계등록으로 시작됨. 자료는 4장의 주요 행정자료원으로 연간회계보고서와 부가가치 신고와 5장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계로 이어짐. 6장은 이점, 단점 그리고 도전에 대해 설명. 7장은 결론.

## II. 법적 문제

2. 행정자료원 사용의 전제조건은 법적인 근거임. 슬로베니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법률은 다음을 관리하는 국가통계법임
  - (a) 통계조사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모든 기존 자료원에서 자료를 수집할 권한을 가짐. 수집 자료의 관리와 유지에서 행정자료 수집물(기록, 등록, 데이터베이스 등) 소지자와 통계조사 프로그램이 자료제공자로 규정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유효한 표준(예, 국가표준인 분류, 사람과 사업의 식별)을 이용해야 함
  - (b) 업무담당분야의 통계를 수집하고 통계조사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관청은 통계청의 사전 의견을 받은 후 관할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근거를 정의해야 함. 사실상, 담당자는 담당분야에서 새 행정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행정자료를 수정하기 전에 통계청에 통보하고 의견을 구해야 함
  - (c) 통계청은 법적 근거나 개인의 서면 동의하에 관리되는 여러 행정자료 수집물의 식별 가능한 개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법에 따라 등록관리자는 모든 요청자료를 무료로 통계청에 제출해야 함. 통계청은 개별 자료 수집물의 모든 자료를 상호 연결할 수 있고 이것을 통계조사 프로그램에 반영됨
3. 위에 나열된 국가통계법 규정은 행정자료원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요소를 제공. 모든 기존 기록에서 개별 자료를 확보할 권한과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허용은 그것들을 등록 지향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나타냄. 경제통계 목적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등록은 기업체 등록과 고용통계등록임

### Ⅲ. 등록

#### A. 기업등록

4. 슬로베니아의 기업등록(슬로베니아 행정기업등록)은 법적 혹은 제도적 형태나 크기에 관계없이 가족농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영리나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슬로베니아의 모든 사업주체의 기록을 포함. 현재 형식에서는 기업등록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02년 까지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관리. 2002년 이후 등록은 공공 법적기록과 관련 서비스 (PLRRS)을 위한 슬로베니아 기구의 관리 하에 둠
5. 등록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출처는 법정등록(현재는 기업등록으로 완전히 통합)과 새로운 사업의 등록과 이미 등록된 단위의 변화와 중단에 대한 기업등록에 자료를 제공하는 기타 주요 등록 예를 들어, 내무부는 정당과 사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부는 예술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노동부는 무역 노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부처는 등록 의사, 재향군인, 화학자, 형사, 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 중·소규모의 독점 소유자에 대해서 기업등록은 주요 등록역할을 함. 정부 단위는 그들이 규정한 법의 토대 위에서 등록되고 갱신됨
6. 등록과 동시에 등록의 각 단위는 존재하는 동안 바뀌지 않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됨. 그 개체는 활동을 중단할 때 이 식별번호는 다른 개체를 나타내는 데는 사용될 수 없음. 이 식별번호는 모든 등록자료와 기타 행정자료 간 연결요소임
7. 기업등록의 단위에 기록되는 특성은 많음. 경제통계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식별번호, 기업명, 주소, 활동(경제활동분류의 슬로베니아 판인 표준분류활동), 기관부문(유럽계정과 일치하는 기관분야의 표준분류), 법적조직형태, 자본금의 원천, 설립국가, 소유형태 등

8. 기업등록부는 따라서 경제통계와 관련된 모든 단위를 포괄. 등록부는 단위 선택을 위한 가장 철저하고 폭넓게 가능한 틀을 제공. 그러나 또 다른 등록부는 경제활동인구 즉 고용통계등록부 결정에 사용됨

## **B. 고용통계등록**

9. 고용통계등록부는 SORS가 관리. 이 등록부는 소위 M서식(M-forms) 예를 들어 의무 사회보장과 고용자료 등록부 자료로 갱신. M-서식으로 사회보장기여금(비법인을 포함한 기업단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록을 노동, 사회와 건강보장과 통계 법제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 그들이 보험 신청, 보험 기간중 자료 변동 그리고 보험 탈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임. M-서식 취합과 자료입력에 대한 관할기관은 건강사회보장기금임. 기금은 또한 SORS를 포함한 자료 관리기관에 자료를 배포
10. 등록부의 관찰단위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을 갖거나 슬로베니아의 영토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5세 이상이고 은퇴하지 않은 사람임. 고용은 임시직이거나 종신고용, 전업이나 파트타임일 수 있음
11. 등록부 단위의 특성, 상황 그리고 관련성은 M-서식, 중앙인구등록부 그리고 기업 등록부에서 확보하는 데 이 사항들은 개인이나 기업 실체에 대한 동일 식별자와 연결. 고용통계등록부상 단위에 기록된 특성은 많은 데 예를 들어, 개별 식별번호, 전문적인 자격수준, 교육, 개인이 수행한 직업, 교대근무, 고용기간, 작업시간, 보험시간, 보험 가입 및 고용원 지위, 기업식별번호, 활동코드(activity code), 법적 구성형식(legal organizational form), 기관부문 등
12. 고용통계등록부가 포괄하는 고용은 국민계정에서 추정되는 전체 국내 고용의 약 85%를 대표. 주요 차이는 농부와 무급 가족종사자(비포함

고용의 8%), 자영과 제2직업으로 사업을 하는 기타 사업자(3.3%), 두 가지의 특별 형태의 계약 하에 활동하는 사람(1.4%), 임시고용기관을 경유하여 일하는 학생(1.3%) 그리고 불법 및 감춰진 근로(0.6%)가 차지

13. 경제통계에서, 등록부는 세 가지 목적에 주로 사용. 첫째 목적은 고용자 수치를 추정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기업등록부의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수를 추출하는 것. 이 점에서 등록부는 사업체를 다루는 대다수의 통계조사에 대한 2차적인 표본틀을 결정. 세 번째 목적은 행정자료뿐만 아닌 통계출처 모두에서 무응답을 추정하는 것임

#### IV. 자료출처

14. 경제통계에서 다양한 자료출처를 이용. 이 자료는 통계생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개의 행정출처에 초점. 이 두 출처는 연간회계보고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임

##### A. 연간회계보고서

15. 엄밀히 이야기해서 연간회계보고서(손익계산서 및 수지계산서)는 전적인 행자자료는 아님. 이것은 회계보고서의 일반 공개 목적, 통계목적 또는 통제목적으로 수집. 그 자료들이 수집되는 목적과 법적근거는 회계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상이

16.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연간회계보고서는 9종임

- (a) 법인 연간회계보고서(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유한합명, 유한책임협동사회 등)
- (b) 소규모 비법인기업 연간회계보고서
- (c) 대규모 비법인기업 연간회계보고서
- (d) 간접예산단위(학교, 병원, 유치원 등)의 연간회계보고서

- (e) 직접예산단위(부처, 법원, 정부 조직, 도시 등)
  - (f) 조합의 연간회계보고서(사회, 문화, 오락, 스포츠, 사냥, 낚시 조합 등)
  - (g) 개별 법령의 법인의 연간회계보고서(무역노조, 기금, 농업 집단, 정당, 의회 등)
  - (h) 금융기관의 연간회계보고서(은행, 저축은행, 저축 및 개부기업)
  - (i) 보험기업의 연간회계보고서(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연금회사)
17. 첫 언급된 7개의 회계보고서는 PLRRS가 수집. 이러한 수집의 법적 근거는 모든 기업체(예를 들어 회사법, 사회법, 장애인 기구법, 회계법 등)는 그 회계보고서를 공표해야한다고 규정한 상이한 형태의 기업체에 대한 국가통계규정과 법률에 있음. 따라서 자료는 통계목적, 회계보고서의 일반 공표 목적 그리고 통제목적(예산단위에 해당, 부분적으로 비법인 기업에 대해 적용). 사용되는 조사표는 이런 상이한 필요에 맞게 채택되고 기관간 합의됨. 조사표의 내용을 정하는 주체는 슬로베니아 감사원과 협력한 PLRRS 임. 예외는 재정부가 규정한 예산기관에 대한 조사표임. 상이한 기관에 대한 조사표가 슬로베니아 감사원이나 재정부가 규정한 회계계획에 맞추고 언급. 모든 회계보고서는 SORS에 모든 고유번호를 갖고 개별단위로 있음
18. 금융기관의 회계보고서는 슬로베니아 중앙은행이 수집하고 보험기업의 회계보고서는 보험감독기관이 수집. 이 두 형태의 회계보고서는 주로 통제목적으로 수집되고 집합체로 SORS에서 구할 수 있음
19. 회계보고서는 비법인 기업(이들 자료는 가계의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득세신고에서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모든 고유번호를 가진 개별단위로 세금당국이 SORS에 제출됨), 개별 농부(농업에 대한 경제계정으로 추계) 그리고 종교단체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경제를 포괄. 모든 기업체는 그 활동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전체가 포괄범위임. 응답률은 높은 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형태인 법인은 고용측면에서 98.5%이고 예산단위와 금융기구의 응답률은 100%해당, 단체는 최악으로 5% 해당

## B. 부가세 신고

20. 부가세 신고는 행정목적으로 세무당국이 수집. 신고는 부가세 책임이 있는 모든 기업체가 제출. 기업체는 상이한 빈도로 신고서를 제출 즉 대다수의 기업체는 월단위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기업은 분기 단위로 제출. 자료는 매월 월 종료후 약 50일이후 SORS에서 구할 수 있음. SORS로부터 수령한 데이터베이스는 세금부가번호를 포함한 모든 개별 신고서 자료를 보관
21. 현재, 21개의 변수가 부가세 신고에 표시. 경제통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재화의 기타 EU 회원국에 제공,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기타 EU 회원국으로 부터의 재화 획득, 부동산 구입과 기타 고정자산 구입
22. 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모든 기업체가 부가가치 체계(부가가치 시스템은 25000유로 이상의 12개월 거래액을 갖는 모든 기업에 의무적)에 있으므로 포괄적임. 부가가치시스템 단위는 소규모 즉 부가가치시스템에서 국가경제의 전체거래량의 99% 이상이 포함. 따라서 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활동 중인 기업 단위를 포함하고 통계조사, 무응답의 처리 그리고 공제 전 액수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자료로 이용

## V. 생산된 통계

23. 위에 언급한 자료원은 경제통계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 단기 기업 통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 신고임. 부가세 신고는 많은 서비스 산업 즉 소매거래, 도매 거래, 수리, 호텔과 식당, 운수, 창고, 커뮤니케이션, 거래활동 및 기타 서비스 활동의 거래량 추계를 직접 사용. 언급된 통계는 부가세신고만을 이용해서 생산되지 않음. 즉 관찰된 현상의 통계정의에 충분하고 가장 중요한 보고단위와 계속

연락하기 위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래량 자료는 전통적인 통계조사에서 직접 수집. 서비스 조사에서 관찰 기업 수는 약 15,000개이고 그중 740개(5%)는 조사표도 보고

## 외국계 기업구조와 사업에 관한 통계작성시 행정/통계조사 자료이용 과제

### □ 개요

CES는 '기업통계 전략 이슈'(strategic issues in business statistics) 2009 세미나 주제로 정하였으며, 의장단은 CES를 대신하여 노르웨이 통계청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본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외국계 기업) 구조와 사업 관련 통계 작성에 있어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르웨이 통계청의 통계조사 모집단 선택과 작성에 관한 해법, 통계품질, 관련 비용과 효용 등을 제시

### □ 노르웨이 통계청 사례 외국계 기업 무역통계(FATS) 작성

#### ○ 1차 시범조사

- 기업 활동별, 최종 기관단위별 상품/서비스 무역 수/출입 자료 조사
- FATS 작성을 위한 서비스 수/출입 통계조사 수정
- FATS 작성을 위한 관세청 상품무역 자료 가용성 평가

#### ○ 2차 시범조사

- 구조적 기업통계 및 R&D 통계 특성, 경제활동분류(NACE R1.1)에 따른 기업 활동 분류, 기관단위(UCI)별 국적 조사
- 구조적 기업통계(SBS)를 이용하여 외국계 기업 수/근로자 수/생산가치/회전율/요소 비용별 부가가치/상품, 서비스 구매규모/인건비 관련 통계 작성
- 고용규모별 외국계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및 지출 조사 등

- 연도별(2000-2006) 모집단 주주명부, 외국인 소유권 기록, 통계청 기업 등록부 등

□ 모집단

○ 국세청 주주명부(Tax Directorate's Register of Shareholders)

- 노르웨이 기업 주식통계, 명목자본, 외국인 주주 배당금 관련 통계 작성 (표1)
- 자료보완을 위해, 연간 자산/부채 총조사, 기업 보고서, 기업계정 등 활용

○ 노르웨이 통계청 기업 등록부(CRE, Central Register of Enterprises)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법인기업 및 외국인 소유권 정보

○ 노르웨이 기업의 외국인 지분(또는 소유권) 기록 (SIFON-register)

○ 최종 소유자 국적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와 기관단위(UCI)별 등록 국적을 추적한 결과, 주주 명부상 국가, 본사 위치,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와 일치.

○ 최종 기관단위(UCI, Ultimate Controlling Institutional Unit) 작성을 위해, 연관계정, 기업 홈페이지,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정보가 불충분한 소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를 최종 소유권자로 추정. 조사결과, 규모별로는 스웨덴이, 부가가치별로는 미국이 노르웨이 내 최대 외국계 기업 소유국가로 나타나. (참조 도표 1)

□ 기존 자료원천을 활용한 FATS 생산

○ FATS 작성을 위해, 외국인 소유 기업을 산업/고용규모/UCI 소재지 별로 분류하고, 기관부문별로는 비금융 기업(S.11)/준법인 기업(S.14)은 포함, 금융기업(S.12)은 총계 작성시 제외

○ 국민계정 통계가 기업(enterprise)이 아닌 사업체(establishment)를 주요통계 단위로 되고 있고, 노르웨이 주요산업 석유/가스 탐사, 해양운송, 전력 등- 경제조사 또한 사업체(establishment) 단위로

실시되고 있어, 기업단위별 FATS 작성을 위해, 기업별 산업경제 테이블을 작성하여 통계청 웹사이트에 게재

- 2006년 현재, 근로자 5명 중 1명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탐사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전체 고용의 35% 차지.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37%(고용), 40%(부가가치) 차지

□ 노르웨이 통계청의 구조적 기업통계(SBS) 생산 체계

○ 행정자료 활용

- SBS는 국세청 표준산업양식(SIF, standard industry form)을 기준으로, 기업체 단위별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부가세 기록에서 회전율을, 고용자/피고용자 기록에서 고용자 수 활용.

○ 통계조사

- 투자, 정보통신기술 관련 장비 지출, 기업의 사업체 단위별 분류 정보 등을 SBS 통계조사에서 수집

- 누락정보에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누락기업은 주식회사로, 손익 계산서/대차대조 수치는 재무제표 자료 활용

- FATS 모집단에 SBS 자료를 활용한 결과, 표 2와 같은 산업별 분포를 보임. 표2. 국내 상주 외국계 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 SIFON(외국인 지분 등록부) 및 CRE(통계청 기업 등록부), 무역 통계 조사 등을 외국계 기업 무역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

○ 서비스 무역 자료 원천

- 통계조사 서비스 무역수지 조사, 수상 운송업 SBS 조사
- 서비스 수출입은 활동별 상품분류(CPA)에 따라 분류

- 그룹 내 서비스 무역(intra-group trade)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 CPA 코드별로 분류
- 상품 무역 자료 원천
  - 월간 해외무역 통계, 관세영역 이외 국경무역 자료, 외국인 소유권 변동자료 등
  - 그룹 내 상품 무역은 별도 조사 없이 월간 해외무역 통계 활용
- 시범조사 결과
  - 2006 외국계 기업의 서비스/상품 무역이 노르웨이 전체 서비스/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룹 내 무역 또한 전체 기업대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FATS 품질 문제
  - 2009년 3월 현재, Eurostat과 공동으로 자료검증- UCI 지리적 분류별, 활동분류별, SBS 특성별- 과정에 있으며, 수출/회전율, 수입/상품 서비스 총구매간 일관성도 검증
  - 일부 산업(NACE 11, 40, 41)의 경우, Eurostat 보고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여, NACE11의 SBS 보고 시 절사표본 활용
  - SBS 표본 작성시 시간차로 인해 자료 중복 발생. 산업간 보조기업 처리 불일치. 비용대비 효용을 고려하여, FATS-R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며, 향후 상세수준보다는 총계수준에서 자료 일관성 검증을 실시할 예정

**통계 공표 및 전달관련 이슈 :**  
**2009년 CES 총회에서 심층연구 주제로 세션 토론**

요 약

사무국은 2008년 2월 회의에서 통계 공표 및 소통, 출판에 관한 주제를 심층 연구 주제로 선택. 또한 사무국 회의에서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전에 총회 세션에서 심층 연구의 토론 주제로 선택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결정. 이러한 접근법은 2009년 총회에서 시험할 예정  
2009년 2월 사무국은 보고서 개요를 승인하고 UNECE secretariat와 Steering Group에 2009년 2월 총회 세션에서 이용할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  
회의에서 토론에 이어 주제는 2009년 10월 사무국이 심층 검토할 예정.

**I. 배 경**

1. 사무국은 매년 5개 통계 주제별로 심층 연구 수행. 연구는 관련 이슈 분석, 현존하는 기준 점검, 향후 개발 수요를 포함하며 잠재적 중복과 겹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국제기구와 공조
2. 과거에는 사무국 회원과 옵저버만 관여하였으나 2008년 10월 사무국은 검토가 타 CES 회원 참여로 인한 input 향상과 이러한 input은 연간 총회에서 검토 주제로 토론될 때 최적이라고 결정하여 2009년 총회 세션에서 시험하기로 결정

**II. CES 총회 세션 토론의 목적**

1. 토론은 모든 회원국에게 input을 구하므로 회원국에게 동 주제에 관한

통계 조직의 변화를 인지하고 국제기구가 통계청을 도울 방안을 요청. 초점은 아직 국제수준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고 가능한 복제분야에 맞추어져야 함

2. 토론의 성과는 2009년 10월 사무국 심층 검토의 input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6월 CES 회의의 토론은 이 보고서가 바탕이 될 예정

### Ⅲ. 통계 공표와 소통에 관한 현재 활동

1. 여러 국제 그룹이 통계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자원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데 현 UNECE 지역에는 다음을 포함
  - 1) UNECE 작업반 : 2004년 10월 설립된 통계 공표 및 소통에 관한 Steering Group으로 그 목적은
    - 통계 공표 및 소통에 관한 경험 교환 촉진
    - 국가 및 국제적 경험을 요약하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 그룹은 2006년 1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드는 법'(작가에 대한 가이드)을 발간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제공
    - 2004년에는 '언론과의 소통'(통계조직을 위한 가이드)을 발간
    - 통계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3차 가이드는 2009년 중반 발간 예정
  - 2) Eurostat이 그룹의 정규 회의를 조직하여 관련 이슈 토론을 위해 회원국 전문가 초빙. Eurostat의 주 기능은 유럽 지역의 비교 가능한 통계정보를 만들어 발간하는 것임. Eurostat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 생산 자료를 병합하고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 기능. Eurostat은 EU 지역의 주 통계 제공자이며 공표하는 대부분 자료는 최대한 조화된 것임
  - 3) 국제 마케팅과 산출 DB위원회(IMAODBC) : 국가 및 국제 통계 조직의 소규모,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개최되는 연간 회의

- IMAODBC와 UNECE 작업 세션과의 잠재적 중복 가능성을 2006년 9월 토론에서 제기되어 2006년 2회의 회의 참석자의 토론으로 조사. 결과는 두 그룹은 충분히 다르며 다른 수요를 나타내고 있었음. IMAODBC는 좀 비공식환경을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보다 기술적인 공표 이슈 특히 기술적 솔루션과 마케팅, 공표 전략간의 관계에 초점. UNECE는 공표 및 소통의 관리와 조직에 집중하며 IMAODBC와 다르게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 양 그룹 회원 간의 동질성 공유 2) UNECE가 연간 IMAODBC에 참가하여 최근 update제공 3) 전에 토론된 이슈를 아젠다로 구성하기 위해 양 회의 일정의 간격 유지로 중복에 대한 잠재적 의식유지와 노력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음
- 4)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 OECD 회의 : 2008년 스웨덴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2007년 로마 회의에서의 역동적인 그래픽과 2007년 제2차 세계포럼에서 조직한 '정보를 지식으로 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의 연장선상임
2. 이러한 세미나의 목적은 통계를 지식과 결정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도구 개발에 기여임
3. 병행하여 학문 출판과 연구사서 사회에서는 자료 발견성과 관리에 관심이 증가하는데 1) 과학과 기술 정보에 대한 국제 위원회(ICSTI) 2) 사회과학 정보 서비스와 기술에 관한 국제 협회(IASSIST) 3) 미국 도서 협회의 정부 문서 라운드 테이블(GODORT), 과학과 기술에 관한 독일 국립도서관(TIB)을 포함

## IV. 이슈와 과제

### A. 소통 관리

1. 통계의 소통은 사용자와 생산자간 대화로 출판, DB 구축 등을 통하여 통계를 전파하는 공표와는 차이. 소통활동은 1) 소통 및 출판 전략 개발 및 시행 2) 평판 모니터 3) 미디어 모니터 및 서비스 4) 뉴스 공표 준비 5) 웹사이트 유지 6) 출판물 판매 7)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와 관계 구축 8)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9) 디자인 혹은 스타일 기준 시행 10) 동료 교육 11) 언어 편집과 개선 12) 내부 소통망 유지를 포함
2. 통계 조직 내 소통활동을 관리하는 현 방법은 지속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일 것이나 연구는 조직의 계층적 개발의 결과임을 제안. 전통적으로 조직은 공표와 일부 미디어 채널과 일방향 통행에 초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부터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소통과 공표 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하였고 사용자를 다양화
3. 소통은 전문 분야이므로 단일 조직을 창설하여 전문가를 유치, 채용과 조직의 이익 증대를 위해 전문가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집권형의 장점. 단점은 최고 관리자가 소통의 전략 측면에만 관심이 있을 경우 집권형 소통 단위를 타 운영단위와 동일 시 하는 경향이 있어 최고 관리자에게 직보하지 못할 수 있음
4. 2008 UNECE 작업 세션의 토론은 각국의 통계 시스템이 소통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을 나타내 주었음. 기능의 정착은 효과성에 영향을 줄 것임. 관리 과정은 통계자료의 소통이 공표활동과 관련 기술적 내부구조 관리와 동일한 관심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B. 통계 조직의 윤리와 독립성

1. 윤리와 독립성은 통계조직의 기본적 이슈로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과 유럽통계 작성의 규정(Code)에 반영되어 있음. 통계 조직은 독립성을 반영하는 공표와 소통 전략을 개발하는 도전에 직면
4. 윤리적 소수자 혹은 특수지역에 대한 자료는 이러한 소수자 및 지역에 부정적인 관점을 주거나 반영할 위험이 있음. 통계의 제4 기본원칙에 따르면 통계 기관은 자료의 잘못된 해석에 대응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정. 이는 미디어와 정책의 주기적인 모니터가 필요한데 더 많은 토론이 요구됨
5. 품질과 신용의 소통<sup>1</sup> 통계 조직의 핵심 이슈. 한편으로는 고품질 통계 공표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류 발견시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 개발이 필요
6. 엠바고 정책에 있어서 CES 회원국 중 일부는 모든 공표 전 접근을 금지하고 일부는 미디어와 정책결정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제한된 사전 공표를 지원

## C. 자료 시각화와 통계의 소통을 위한 도구

1. 많은 통계조직이 통계 DB에 접근을 허용하여 통계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종종 일련의 시각 도구에 의해 보충됨
2. 새로운 웹 기술은 통계조직이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변경. 블로그, wikis, 사회적 네트워크가 새로운 채널을 제공. 사용자에게 코멘트 혹은 자료 등재, 관련 정보는 중간 제공자의 증가로 통계자료 공표와 소통에 새로운 장을 부여. 많은 쌍방향 기술 사용은 과학이 아닌 이성에 기반을 둔 특정한 이익집단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와 모니터가 필요

3. 자료의 표현은 점차 통계생산 과정의 핵심부문으로 고려되므로 통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통계표, 그래프, 기타 표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련의 '자료를 의미 있게' 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

#### **D. 도달 취약 그룹과의 소통**

1. 통계조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목표 집단과 접근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도달 취약그룹과의 소통은 기술과 교육이 있음. 급속한 기술의 발달이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1) 부모에 접근하기 위해 자녀 교육 2) 소수자 미디어와 작업 3) 다양한 언어 정보와 해석 제공 4) 지역, 특수 그룹과 파트너가 해결책에 포함 될 수 있음
2. 통계 조직간 지속적인 경험 공유에 의해 훌륭한 경험과 사례를 인지 하여야 함

#### **E. 통계 해독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통계 해독 개선은 사용자 이해 증대와 통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직면한 이슈에 대한 통계조직 내 지식 향상을 위한 사용자 그룹과 개발전략에 의존. 통계조직은 설명을 개선하고 전문가 및 국민에게 정의 제공, 공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상이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이동은 통계조직에 다양한 수준의 통계를 제공해야하는 압력 증가에 기여
3. 공중 교육과 직원 훈련에 대한 전략과 이슈는 아래를 포함
  - 1) 직원에게 미디어가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전문 언론인 초빙
  - 2) 통계이해 제고를 위해 언론인과 합동 회의

- 3)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과 공저를 위한 교육자와 파트너
- 4) 웹 개설
- 5) 사용자 웹 화면 및 기능을 맞춤화 하는 것을 허용
- 6) 라디오 및 TV와 소통
- 7) 교육시스템과 체계적으로 교류
- 8) 교육 경험자 채용
- 9) 도달을 위한 시간 투자와 사용자와 관계형성

## **F. 통계에 대한 국제 접근 라이선스 개발**

1.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범위와 빈도가 인터넷 사용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공식통계에 대한 일반접근면허 채택은 자료요구 증가에 국가를 넘어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한 응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2. 호주통계청은 많은 양의 자료 재사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였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임
3. 다른 수준의 사용자를 특정하여 내용을 부여할 수 있는 6가지 창조적 일반 라이선스가 있음. 1) 비상업적 및 비가공 2) 비상업적 공유 유사 3) 비상업적 4) 비가공 5) 공유 유사 6) 완전부여
4. 국제적으로 인정된 라이선서 제도의 채택은 통계정보 사용자 관리에 일관성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시각성, 통계정보의 잠정적 재사용,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성 향상,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최소화를 개선시켜야 함

## **G. 국제 자료 공표**

1. 국제기구에 자료제공은 통계청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국제기구는 해당 공표시스템으로부터 직접자료 수집. 그러나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기준이 널리 시행되기까지는 통계청이 자료제공을 하는 부담을 관리하여야 함
2. 국제수준의 자료생산은 제한된 비교성, 방법 상이, 국제기준 부족, 품질 문제, 자료 이용성 부족을 포함하는 복잡성을 나타냄. 국제기구에 의해 발간된 통합통계를 단일 DB 또는 포털에 수록하고자 하는 시도는 복잡성을 더 증가시켰음.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는 통합이 불필요한 차이와 증가하는 압력을 드러내 조화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3. 이러한 이슈에 대한 사례는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향한 진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공표에서 명백. MDGs 전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 자료 차이, 불일치가 존재하였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개선이 가장 이루어진 분야에 집중한다면 불일치의 상당부분 감소는 가능
4. MDG 자료 공표는 국제 기구간 전문가 그룹(IAEG)을 통하여 조정됨

## **H. 검색성 향상과 학술 네트워크에 자료 연계**

1. 자료는 학술적 분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더 많게, 자주 출판됨. 저자, 출판자는 어떻게 자료원을 연계해야할 지 명백하게 알지 못함. 자료가 어떻게 연계되고 분류되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공인된 시스템은 없음. 저자의 연계, 출판관리, 도서 분류를 돕기 위한 문헌 시스템이 필요
2. 많은 자료가 update 되고 때로는 과거자료 전체를 대체하는 전체 자료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음. 모든 이러한 변화는 기록되고 메타데이터에 설명됨. 그러나 연계의 경우 저자가 생산한 시점과 사용자의 이용시점이 달라 자료에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 중대한 과제를 부과. OECD가 연계와 문헌관리에 관한 일부 표준을 제안하는 백서를 발간

## 통계 연구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자료통합 비밀보호 원칙 및 가이드라인

### □ 개 요

- 유럽 공식통계 기본원칙 제 6항은 '통계작성 목적으로 통계기관이 수집한 개별 데이터는, 자연인/법인에 관계없이 엄격히 비밀보호 되어야 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국가통계기관이 실시하는 자료통합사업에도 적용
- 비밀보호 원칙 관련용어 정의
  - 종합(또는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 통합으로 생성된 단위 데이터
  - 비밀보호 정보 제공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 자료 통합 2개 이상의 자료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조합하는 과정
  - 자료 매칭(matching); 공통 특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자료원천의 마이크로 데이터 연계
  - 자료 제공자 데이터/마이크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통계/비통계 원천에서 자료파일제공자를 통칭하나 통계조사 개별 응답자는 제외
  - 자연인/법인 범률이 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공식통계 국가통계체계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통계활동
  - 프라이버시 정보 소유자가 정보 관련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통계활동 통계정보 수집/저장/변형/배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
  - 통계목적 공식통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가 공식통계 산출에 이용될 경우
- 자료의 통합이라 함은 정확한 매칭, 확률적 매칭, 통계적 매칭 모두 포함
- 통합 자료 셋의 장점
  - 새로운/개선된 통계 산출
  - 정확한 자료의 소재파악을 위해 보다 분화된(more disaggregated) 정보 산출

- 광범위한 변수의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 기존 자료원천 검증 또는 개선
  - 응답부담 경감
- 첨부된 비밀보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공식통계 기본원칙 제 6항이 확장된 것으로,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통합 자료셋을 이용/작성함에 있어, 입법적/기타 목적의 비밀보호 방식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틀 제공
  - 공식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조사실시 보다 행정기록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자료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비밀보호에 관한 명확한 입법 틀과 법률을 갖추고 있으나, 대다수 국가에게는 수개의 자료원천을 이용한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 작성이 생소하므로 국가별 틀 작성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공
- 통합 통계자료 비밀보호 원칙 및 가이드라인
- 원칙 1; 자료 통합은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가통계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자연인(그리고 입법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체와 같은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표는 법으로 제한됨
  - 가이드라인
    - . 원칙 1은 통계법, 자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부기관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 입법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관은 자연인/법인 관련 자료통합은 중지한다
    - . 법률이 달리 명시하지 않을 경우,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가통계기관이 행정 및 통계자료 원천으로부터 수집하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 개인 혹은 법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 아님
  - 원칙 2; 국가통계기관은 표준승인절차 완료 후 공식통계 규정에 따라

자료통합 활동을 실시함

- 가이드라인

- . 국가통계기관 관련 규정이 통계/연구조사 목적을 넘어, 자연인에 대한 행정 및 규제 목적의 데이터 이용을 포함하는 경우, 법률 또는 국가통계기관 이외 정부기관의 허락 없이는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의 자료통합은 금지됨
- . 새로운 통계조사 실시 전에 반드시 자료통합이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고려
- . 모든 자료통합은 표준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첨부된 Business Case Outline을 참조할 수 있으나, 개별 국가는 국가별 자료통합 승인 절차를 구축하도록 함

○ 원칙 3; 자료통합의 이익은(자료통합이 끼칠 수 있는) 공식통계 일관성에 대한 위협성이나 자료이용으로 인한 비밀보호/프라이버시 노출 위험보다 커야 함

- 가이드라인

- . 자료통합은 안전한 환경에서 공식통계체계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됨
- . 입법 또는 표준승인절차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통합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식별자(identifier)는 자료통합 종료 후 즉시 제거
- . 국가통계기관은 자료통합의 이익, 비밀보호 및 관련위험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을 확인하고, 표준승인절차 관련기관으로 간주하여 자문을 구함
- . 몇몇 국가는 표준승인절차에 프라이버시 침해 평가가 포함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자료 제공자로부터 실질적인 동의를 얻도록 규정

○ 원칙 4; 자료통합과 같은 행위를 배제하겠다고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사전 약속한 경우, 자료 통합은 금지

- 가이드라인

- . 표준승인절차 시, 자료이용 목적 관련 사항을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

하도록 하며, 통계기관장은 자료통합이 자료이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료통합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 원칙 5; 통합 자료는 승인된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승인된 목적이외 이용의 경우, 새로운 승인절차를 밟도록 함
  - 가이드라인
  - .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자료원천의 변동 및 추가, 자료 특성 및 단위 변동, 통합 방법 변경(예를 들어, 통계 매칭에서 정확한 매칭으로), 자료 셋이 다른 통계/연구조사 목적으로 이용 시 등, 새로운 승인절차를 밟음
  
- 원칙 6; 연결자료 셋에 포함되는 단위 레코드 및 자료변수 개수는 승인된 목적을 위한 필요 범위를 넘지 않는다
  - 가이드라인
  - . 승인된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자료변수와 최소한의 단위 레코드 수를 일컬음
  
- 원칙 7; 국가통계기관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자료통합을 실시함
  - 가이드라인
  - . 자료 통합과 관련된 국가통계기관 정책과 사업 개요는 책자로 출간
  - . 자료 통합으로 인한 주요 통계성과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자료통합으로 공식통계가 개선된 경우에도 결과를 공개
  - .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자료 제공자에게 그들의 정보가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함
  
- 원칙 8; 자료 통합으로 생성된 복합 자료 (단, 확인자(identifier)가 없는 경우) 접근은 국가통계기관 소속의 권한을 가진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및 표준 승인절차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료 이용 또한 승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가이드라인
- . 자료통합으로 생성된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는 다른 공식통계 생산자가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법에 정함이 있을 경우, 범 국가적으로 이용이 가능
- . 국가통계기관은 자료 제공자가 행정적 규제 목적으로 통합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자료 변수에 관한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 (통합 자료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책임 사항은 계약으로 명시하며 비밀보호 규정 위반사항은 가능한 포괄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하도록 함

## 국제 인구이동 자료 제공 및 이용 가이드라인 : 송출국가 인구이동 자료 개선 목적

### □ 개요

의장단은 CES를 대신하여, 전입국(또는 인구유입국) 자료를(2005. 10) 활용한 해외이주자 통계 작성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고 관련 개념/정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지시. 2009년 2월 회의에서 의장단은 태스크포스 결과물인 국제인구이동 자료제공과 이용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CES 회원국 의견 수렴 및 2009 총회 승인 상정 요청

### □ 출국유형 및 자료에 대한 다양한 수요

#### ○ 이동인구 분류

- 국적/시민권에 따른 내국인/외국인 분류
- 출생국가에 따른 국내/국외 출생 분류
- 체류기간에 따른 장기(1년 이상)/단기(3개월 이상 - 1년 미만) 이주 분류
- 법적 체류 근거에 따라 정규/비정규 이주자

#### ○ 출국자료 수요

- 인구 추계 출국자 비중이 큰 국가 경우 출국자 성별/연령과 같은 인구특성 파악 필요
- 이민자 출국 역이민/순환이민/일시체류 증가로 국가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필요
- 내국인 출국 및 재외국민 세계화로 국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적/시민권/주민등록 발행/해외 송금 관련 통계 필요
- 특정 해외이주 집단 고 숙련노동자 및 두뇌집단의 해외 이주로 인한 잠재적 경제손실 파악 필요
- 단기 출국 법적/계절적 요인으로 단기출국 증가

□ 출국 자료 원천

- 훌륭한 인구이동 통계를 갖춘 국가들도 출국자들의 (국내) 부재로 인해 출국자 관련 통계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
- 개인별 출국정보가 기록된 주민 등록부
- 외국인 행정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 외국인/난민/망명/체류허가 등록부
- 여행객 조사, 국경 출입
- 출국관련 질문이 포함된 가구표본조사
- 출국자 조사 : 출국자 대상 가구조사, 출국자 주거에 관한 질문 포함된 경우 등
- 인구 총조사 : 일시 국외거주자 또는 국외 이주자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 등

□ (전입 국가의) 입국자료 활용을 통한 출국자료 개선

\* 전입 국가- receiving country, 전출 국가 - sending country

- 입국자료 원천 및 출국 자료와 연관성
  - 인구 총조사 출생 국가/국적취득 국가/전거주 국가 등 인구이동 관련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부모 출생 국가/출생당시 국적(또는 시민권)/다중시민권과 같은 항목을 질문지에 포함시킬 경우, 국제인구 이동에 관한 부가정보 취합이 가능.
- \* 한계 매 5-10년마다 실시되므로 현 상황 파악이 불가
- 가구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주인구 규모와 흐름 파악에 유용\* 한계 신규 출입국 반영을 위한 주기적 표본갱신 필요, 표본설계 시 이주인구 특성을 띠는 지역과 인구집단 고려, 표본크기는 이주인구 규모/흐름 추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도록 커야.
- 국경(지역) 표본조사
- 주민 등록부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개인별 정보 원천이나, 단기 체류자 및 출국자의 경우 변동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 체류허가 기록부는 입국 외국인 규모 및 흐름(특히 유입측면에서) 파악에 유용

- 외국인 등록부는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등록부 관리
- (입국) 신고서
- (전입 국가의) 입국자료 활용 시 문제점
  - 입국기록 범위 한계
  - 국가별로 상이한 국제인구이동 정의
  - 자료 정확성
  - 출발지/목적지 자료 이용 한계
  - 메타 데이터 이용 한계
- 전출/입 국가간 출/입국 자료 일치  
 (인구) 전출 국가가 전입 국가(receiving country)의 입국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활용

참조 표2

전입 국가 자료 원천	전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료						
	총 인구 추계	이민자	내국인		고 숙련노동자		단기
출국 구분	유량	유량	유량	저량	유량	저량	유량
인구센서스							
가구표본조사							
국경(지역)표본 조사							
주민 등록부							
체류허가서							
외국인 등록부							
입국 신고서							

□ 국제 인구이동 자료 접근성/품질/이용가능성 개선 (전출 국가 인구 이동 추계/ 개선 목적)

○ 자료 생산 측면

- 국제 인구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 국제이동 통계 작성 필요
- 진출/입 국가간 출/입국 통계 제공하는 등 상호 지원

- 국외 이주자 흐름(유량, flow) 통계 개선을 위해,

- . 행정기록 이전 거주 국가, 출생국가 정보 수록 및 활용
- . 가구표본조사 주기적 표본갱신, 이민인구 특성을 보이는 지역과 인구집단을 표본에 포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 크기
- . 인구 총조사 (자료) 연속성이 낮아 유량 통계작성에 활용도는 낮으나, 이전 거주지 정보 활용 필요.

\* CES는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해외 거주 및 국내 도착 연도'를 질문지에 포함토록 권고

- 국외 이주자 규모(저량, stock) 통계 개선을 위해,

- . 행정기록 내/외국인의 해외거주정보, 출생 시 국적 및 부모 국적/시민권 자료 활용
- . 가구표본조사 질문지에 부모 출생 국가, 출생 시 국적, 다중 국적/시민권 등 포함
- . 인구 총조사 이동 인구 저량 파악에 유용 (출생 시 국적/시민권, 국적 취득연도 등)\* CES는 비교 가능한 국제 인구이동 통계 작성을 위해 인구 총조사 자료 적극 활용 권장

○ 자료 접근성 측면

- 진출/입국간 출/입국 자료 접근성 향상시켜야.
- 진출/입국간 표준 테이블을 통한 자료 교환/비교성 향상 표 1-7 참조

\* 위 표준 테이블은 국제인구이동 통계 조사(UNSD/Eurostat/UNEE/ILO 공통)에 수록

- 국제기구의 자료 수집과 제공 측면
  - 본 가이드라인은 양자간 자료 교환을 원활히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나, 국가 수준의 인구 이동 통계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는,
    - . 주기적으로 적시성 있는 국가 표준 테이블 제공
    - . 진출/입국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테이블 작성
    - . 수집된 국제 인구이동 통계의 비교/검증 기관(clearing house) 설립

## 범죄 피해자조사 매뉴얼 : UNECE-UN 마약 및 범죄국

### 요 약

사무국은 2005년 범죄피해자 조사를 검토하고 방법론을 향상시키며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TF를 발족. 2009년 2월 사무국은 매뉴얼을 검토하고 전자자문과 2009년 CES 총회의 역사적인 추인을 받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 보고서는 매뉴얼 준비과정 개관이며 매뉴얼은 이 문서 부록에 제공.

### I. 배 경

1. 2004년 11월 UNECE와 UN 마약 및 범죄국(UNODC)이 범죄 통계 회의 개최. 회의는 범죄피해자 조사를 시행 또는 시행할 계획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여 사용된 방법의 일치성과 차이 분석, 추천할 기준과 정의에 적합한 분야 인식,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조사에 대한 TF 창설을 제안. TF 사업의 최종 성과는 국가별 범죄 피해 조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 받아 조사결과의 비교성을 증대시키는 것
2. 2005년 2월 CES 사무국은 제안을 승인하여 TF 창설. 매뉴얼 작성을 위한 사업은 2006년, 2007년 2008년 UNCES 통계 프로그램에 포함

## II. 매뉴얼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과 과정

1. 2005년 CES 국가가 수행한 조사에 대한 세부 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는 처리되어 범죄 조사 목록 작성에 사용. 목록을 사용하여 조사에 채택된 내용과 방법론의 일치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많은 보고서를 준비
2. 보고서는 2006년 합동회의에서 토론에서 조사를 설계하는 국가를 돕기 위한 매뉴얼 준비 사업 착수에 합의. 2006년 전반 세부 개관을 작성하여 코멘트와 하반기 활동을 위해 회원국에게 제출
3. 2007년 봄에 매뉴얼 초안을 준비하여 6월 회의에서 토론. 7월 회의에서 새로운 초안을 검토하여 일부 중대 개정과 교정 작업이 필요함을 인식. 자문단의 공헌과 함께 TF는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상기하여 개정 초안 작성하여 2008년 10월 회의에서 토론. 회의는 개정안이 포괄적이며 매우 정보적이라고 동의. 또한 개정안은 각국의 조사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대표
4. 2008년 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2009년 1월 개정안 준비, 2월 검토를 위해 CES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은 개정안이 뛰어난 전문가와 각국의 자문을 거친 4년간의 역작임을 인식하고 Eurostat이 최종 영문 교정을 위해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기록. 사무국은 전자적 자문과 2009년 총회에 제출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

### A. 범죄피해자 조사에 대한 Eurostat TF 사업과의 관계

1. Eurostat TF는 범죄피해에 대한 유럽조사 기본단위를 개발할 목적으로 2007년 발족. 그때부터 Eurostat TF와 CES TF는 중복 방지와 두 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 물론 자료와 전문가의 상호 교환도 있었음

2. CES TF의 매뉴얼은 Eurostat의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대한 도구가 될 것임. 또한 EU 참여국에 대한 안내 도구가 될 것임

## **B. 매뉴얼 최종화 계획**

1. 현재안은 2009년 4월 자문을 위하여 CES 회원국에 송부. 현재안 역시 영문 교정이 필요함. 받은 코멘트는 요약되어 2009년 총회에 기록으로 제출될 예정
2. 전자적 자문을 거친 후에 코멘트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종화 할 예정. 자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따라 위원회가 추인 예정. 추인 후 최대한 빨리 매뉴얼을 출판할 계획이며 러시아판 출판을 위해 번역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유럽통계기관장 의장단 회의 보고서 (2009. 2. 2-3)

### □ 통계분야별 결과보고

#### ○ 주택통계

-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핀란드, 라트비아, UNECE가 관련 보고서 제출
- 주택조사 자료를 제외한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부재 및 사안의 국지성으로 인해 국제표준 개발보다는 모범 사례 수집에 초점을 맞춰야.
- 에너지/물가/생활표준과 연계성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외한 국제 권고안 부재
- 주택 가격/건설/이용 및 부 등 현 위기를 반영할 자료 생산 필요
- 기존 주택통계와 빈곤/에너지/공간통계 연계 필요
- 의장단은 폴란드 통계청에 보고서를 보완하여 2009 CES 총회 보고 요청하고 국제수준에서의 우선사업 점검을 위한 CES 참가국 설문조사 예정

#### ○ 농업통계

- 워싱턴 농업통계 전문가회의(2008. 10)는 농업통계 태스크포스 구성, 농업통계 글로벌 전략,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강화 등 도출
- CES 회원국들은 국제수준의 농업통계 협력을 강조하고, SDMX, DDI 기반의 농업총조사 자료 제공 가능성 확인
- 국제수준의 농업통계 CES 세미나 개최 (2011) 제안

#### ○ 소득, 빈곤 그리고 생활여건

- 가구소득조사 캔버라그룹 핸드북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캔버라 그룹 핸드북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는 국민계정과 가구조사간 가구소득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용성 있는 자료원천 확인
- 캐나다, 유엔통계청과 함께 소득/지출/부의 통합 틀 구축을 위한 시티그룹 설립 논의

- 노동 비용

- OECD는 국가별 견해를 반영한 수정 보고서를 2009 CES 총회 제출 토록 요청

- 기타

- 의장단은 통계 작성/제공/출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UNECE 사무국에 협조요청

- 자료 통합과 비밀보호 및 프라이버시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의 자료통합 시 비밀보호 원칙과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Annex 1에 수록된 2개 원칙 삭제 및 기타 문맥을 보정하여 회원국에 전자 배포. 2009 총회에 최종 승인을 위해 상정할 계획

- 지속가능발전 측정 태스크포스 업무규약

- Eurostat, OECD, 캐나다/네덜란드 통계청 자문 결과를 반영한 개정 업무규약 승인
  - 15-25명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는 국가통계기관 및 국제기구의 인적 자본 및 사회자본 전문가 초빙 계획. (2009. 9. 1차 회의 개최 예정)

- 통계기관의 정보통신기술 관리

- MSIS(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문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오픈 소스 활용 권고
- 전자정부정책과 국가통계기관 시스템 개발 연관성
- BPM(업무프로세스모델)은 표준화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서비스기반의 모듈로 구성되어야
-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 메타 데이터 관리 및 툴 개발 필요

- 통계 소프트웨어 공유

- EU 외 지역, 통계기관이외 관련 기관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 통계 시각화 툴 개발을 위한 국제 사업과 일관성이 있어야
- 2009. 5월 개최될 MSIS 회의에서 (통계소프트웨어) 공유자문위원회 설립 논의 예정

□ 2009 CES 총회 준비

- '정책 관련성 높은 자료 생산, 직업 자율성 그리고 신뢰 간 균형 원칙' 세미나
  -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이 통계기관이외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공식 통계/자료 조정
  - 국가기관과 국제기구 공식통계간 모순
  - 공식통계와 견해조사 자료 간 경계, 청소년 대상 통계 수집 등
- '기업통계 전략이슈' 세미나
  - Eurostat 기업가정신 통계 등
- 2009 총회 준비
  - 주택통계, 농업통계 노동비용통계에 관한 심층 검토/논의 등

□ CES 산하 전문가 팀 활동

- 인구이동통계 가이드라인
  - '국제인구이동 자료 제공과 이용 가이드라인'에 의장단 회원국 견해를 반영하여 개정 요청. 개정 가이드라인은 승인을 위해 총회 상정계획
- 범죄피해조사 매뉴얼
  - CES 회원국에 전자 배포 예정이며, 승인을 위해 총회 상정 계획
  - 통계 목적의 범죄 분류 사업범위 승인 요청 등
- 품질측정 틀
  - 고용의 질(또는 일자리 질) 측정 태스크 포스는 기본 틀을 확정하고, 의장단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 선별 후

## 2010 CES 상정 계획

- 사회통계 이슈; 가족, 가구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측정
  - 관련 태스크포스는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9년 말 최종 보고 계획
  
- 통계기관의 인적자원관리
  - 조사방법론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 국가통계기관의 인적자원관리와 훈련 워크샵 (2010) 개최 논의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미국, 세계은행 등 참가 희망
  - 세계은행, 통계능력구축 전자학습과정 제공 및 재정 지원
  
- 국제노동기구 통계활동
  - 국제노동기구의 통계활동은 통계기준 작성, 통계능력 구축, 노동통계 / 지표 작성과 제공, 통계 분석, 통계 서비스 제공 및 노동통계협정 (LSC) 이행 감독
  - 향후 경제인구 구조변화, 비공식 고용, 생산성, 국민계정 관련성, 미성년 노동, 노동통계 틀, 노동력 저활용, 근로이민(또는 노동이민) 등으로 활동 확대
  
- 2008 유럽경제위원회 통계 프로그램 결과보고
  
- 기타 정보
  - 국제통계활동 데이터베이스 (2009 개정) 공개
  
- 다음 의장단 회의 일정 및 기타
  - 의장단 회의 개최 시기 조정; CES 총회 후 개최, CES 총회와 연계 개최, 유엔통계위원회와 연계 개최 등
  - 매뉴얼, 가이드라인 승인 절차 문서화
  - 총회 기간 중 2007-2009 의장단 오찬회의 (2009. 6. 9) 개최

- 2009 의장단 회의; 2009. 10. 15-16, 러시아 통계위원회 주관
  
- 기후변화 관련
  - UNECE, 기후변화와 운송/에너지/산림/주택통계를 연계한 통계활동 구상
  - 통계전문가들은 온실가스배출 통계 방법론보다 관련 자료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 공식통계 영역이 아닌 온실가스 관련 통계의 의사결정 시 활용 문제
  - 2009 유엔통계위원회 논의에 근거하여, CES 총회기간 중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통계기관이 기후변화 관련활동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제57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CES 의장단 선출

### □ 현 의장단 임기 만료

- 2009. 6. 10 2009 총회를 끝으로 현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바, 2009.6 - 2011.6 2년 임기의 차기 의장단 선출 예정
- CES 참가국 모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며, 후보는 규정(제 5항)에 따라 'UNECE 통계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가의 통계기관장'에 한함
- 의장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은 UNECE 지역 국가에서 반드시 선출하며, 2명은 UNECE 이외 지역 국가에서 선출 가능
- 현 의장단 구성
  - 의장; H.Jeskanen-Sundstrom (핀란드)
  - 부의장; B.Pink(오스트레일리아), P. Hackl(오스트리아), E.Pereira Nunes (브라질), G.O'Hanlon(아일랜드), A.Zigure(라트비아), V.Sokolin(러시아), K.Wallman(미국)
- 의장단은 4회 연임할 수 있으며, 비 의장단으로서 최소 2년 경과 후 재선출 가능

## 유럽 통계위원회 사무국 회의보고서 (2008년 10월)

### 요 약

이 보고서는 위원회 업무 규칙에 따라 제출. 규칙에 의하면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체로서 활동. 사무국 회의는 통상 매년 2월과 10월에 개최. 보고서는 2008년 10월 사무국 회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포함.

### I. 소 개

1. 2008/2009 첫 사무국 회의는 세계은행의 초청으로 2008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

### II. 채택된 통계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1. 사무국은 농림어업통계와 노동비용 측정에 관한 통계 분야 심층검토. 다음에는 환경과 문화통계, 삶의 질과 빈곤을 포함한 소득에 관한 통계를 연구할 예정

#### A. 농림어업통계

1. 사무국은 Eurostat 문서와 UNECE 코멘트에 바탕을 두고 심층 검토. FAO 대표단과 미국 농업부가 토론에 참여
2. FAO는 국제농업통계에 대한 최고 기구. UNECE는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FAO의 통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활동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도출. 사업에 대한 최우선은 무엇보다도 각국의 능력형성일 것임. FAO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 선출을 제안. FAO DB는 계속 새로운 방법론을 공표하며 통계도 계속 Update 됨

### 3. 다음은 토론 결과임

- 곡물가 상승,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식량위기 때문에 농업통계에 대한 검토는 시의 적절. 현 위기는 농업통계가 보다 주목을 받고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농업통계는 전통적으로 자기 제한적. 진전하는 방법은 타 도메인과의 링크, 농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 관찰, 환경과 기후변화와의 연계가 있음
- 각국의 통계 생산 능력과 품질이 최근 감소. 자원감소에 적절한 대응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업 수행임
- 농업통계의 대부분은 공급 측면으로 수요측면과 농산품의 비식용 사용에 대한 정보도 많이 필요
- 농장은 사업체 등록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의 표본틀 구성에 문제
- CIS 국가는 농업통계를 국민계정과 결합하여 일부 문제 야기
- 국제수준의 농업통계 체제 개선이 필요. 핵심 농업 이슈에 집중할 새로운 작업반 창설이 필요
- 국제기구와 각국은 FAO가 농업통계에 대한 주도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국제수준에서 핵심은 능력 형성임. 우선은 품질과 비용의 효율적인 개선이며 나아가 소통과 협력 및 조정활동 개선과 타 통계와 통합도 있음
- 현재 이슈를 토론할 포럼이 없음
- 활력을 회복하는 2가지 방안은 1) 환경, 가격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영역 확장 2) 핵심농업통계에만 집중으로 나왔지만 1)안은 방만해질 우려가 있어 2)안을 채택. 그러나 환경과 물, 에너지, 국토이용, 자연 자원 등 타 통계와도 연계를 인식하여야 함

## 결론

4. Eurostat이 사무국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층 검토 문서를 update 할 것임. CIS-STAT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 할 것임. update 된 문서는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
5. 농업통계는 2010년 CES 세미나의 잠정적 의제로 인식
6. 향후 사업은 2008년 10월 전문가 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번 회의 결과와 2009년 2월 회의의 새로운 작업반 권한에 대해 Eurostat 이 보고할 예정

## B. 노동 비용 측정

1. 사무국은 OECD 문서와 UNECE 코멘트에 기초하여 노동비용통계를 심층 검토
  - OECD 국가의 노동비용지수 산출을 위한 골격 형성을 위한 많은 사업 수행. 지수는 생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아주 세부분야 자료가 매우 유용
  - 단위노동비용 산출을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장기 사업이 될 것임
  - 근로시간 측정 개선이 보다 우선
  - 임금과 소득 통계에 관한 활동은 많지 않았음
  - 임금조사는 조사기구 차이와 국가 노동시장 조사의 차이로 통합되지 않았음

## 결론

2. 사무국은 OECD에 문서로 된 세부 코멘트를 제공하기로 동의. 갱신판은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 CIS-STAT은 노동비용 측정에 관한 영문판 연간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

### C. 환경통계의 심층 검토에 대한 follow up

1. 사무국은 2008년 2월 작성된 심층 검토에 대해 토론
  - 환경-경제 계정과 환경통계에 대한 UN 전문가 위원회에 환경통계의 국제 조정기구의 포함을 제안. 환경-경제 계정 시스템 개정 작업은 최고의 우선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환경통계와 타 통계 분야 간 갈등이 있었음.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

### D. 문화통계의 심층 검토에 대한 follow up

1. 사무국은 2008년 2월 문화통계를 심층 검토. Eurostat은 문화통계에 대한 사업을 재착수. 2009년 발족을 위한 문화에 대한 유럽 통계 시스템 네트워크(ESSnet) 창설 제안
2. 사무국은 문화통계 발전을 위해 계속 follow up할 것이며 ESSnet 출범을 위해 국제회의를 2009년 말로 연기할 것을 제안

### E. 삶의 질, 소득 및 빈곤통계의 심층 검토에 대한 follow up

1. 2007년 10월 사무국은 삶의 질, 소득 및 빈곤 통계를 심층 검토. 토론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과 같음
  - 빈곤은 일반의 주요 관심사. 출판된 자료는 현실과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념의 명확화, 소득통계의 비용 측면과 소득분배 측면의 통합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자료를 위해서 유용하며 비교성도 증대
  - 통계청은 반드시 중앙은행과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와 같은 사업과 협조하여 작업을 해야 함. ECB는 EU국의 부에 관한 조사를 계획. 많은 국가가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사무국은 공식통계 관점에서 접근 타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소득은 국민계정과 가구조사간 많은 차이. 지출조사의 조정과 마이크로 및 메크로 자료간 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
- IMF는 분야별 대차대조표 특히 가구분야와 부의 측정에 관심. 사업은 실용적이며 개념이 아닌 자료 지향적이어야 함
- CIS-STAT은 빈고 보고서를 발간. 소득, 소비, 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가 다양한 자료원 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비교 가능. 또한 소득분배와 부에 관한 국제 사업에 참여에 관심
- 사업은 켄버라 그룹 핸드북을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둔 범위 축소와 소득, 지출과 부의 통합을 향한 범위 확장의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켄버라 그룹 핸드북의 가이드라인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은 유사 소득, 자본 소득 및 손실과 같은 특정분야의 소득측정에 대한 진전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범위 확장은 UN 산하에 가능한 시티그룹 창설을 고려 가능. 캐나다가 OECD와 제안을 검토하여 2009년 2월 사무국에 보고할 예정이며 미국도 참여에 관심

### Ⅲ. 사무국 심층 검토 과정 - 새로운 방법의 평가

1. 사무국은 2007년 2월 합의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2개의 심층 검토 수행. 사무국은 접근법을 평가하고 CES총회 세션에 보고 방법을 고려.
  - 검토 결과는 총회에서 많은 국가의 참여와 기여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함. 총회 전 코멘트 요청은 각국에 이슈 검토 기회를 제공할 것임
2. 사무국은 사무국 회의 토론에 우선하여 총회에서 사무국이 심층검토 주제로 선정한 의제를 토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결론. 이 접근법은 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차기 총회에서 통계 공표에 대한 의제에서 점검할 예정
3. 비서실에서 사무국 코멘트를 고려하여 캐나다 통계청과 사업의 세부

제한 사항과 개요를 준비할 예정. 문서는 Eurostat, OECD와 먼저 토론을 거쳐 전자적으로 모든 사무국 회원과 토론을 할 예정

## V. 2009년 UNECE 통계 프로그램

1. 사무국은 2009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년과 달라진 활동에 초점을 두고 토론

### A. 환경 통계

1. UNECE 비서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통계 특별히 UN 기후변화 회의 (UNFCCC)가 유지하는 오염 배출 목록을 다룰 새로운 활동 제안. 아래 사항을 코멘트
  - 공식통계 관점에서 배출 목록을 편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해양 및 항공 운송 배출이 제외되었으며 연료 판매량으로 계산하여 국경을 넘어 구입하는 국가는 수치가 과다 계상 되는 문제점
  - 가이드라인 검토 완료는 기술적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매우 야심 찬 목표임
  - 목록에서 사용된 분류가 통계분류와 다름. UNFCCC는 자료가 통계 기구로 교환될 수 있도록 통계분류를 채택하면 유용
  - 향후 사업은 기후변화 회의 결과, 진전, 공식 통계의 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 사무국은 사업을 지원하나 활동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 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가져야 하며 한정된 시간 내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를 생산하여야 함. 비서실은 사무국의 코멘트를 고려하기 위해 활동 내역을 재형성 할 예정. 사무국은 200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의제가 토론된 후에 사업의 정확한 내역을 결정 할 예정

## C. 이민 통계

1. 사무국은 이민통계에 대한 조정 그룹과 출국자 측정에 대한 TF의 향후 활동 계획을 검토 후 아래의 사항을 코멘트
  - 통계인은 행정자료처럼 체류기간의 일반적인 정의를 할 수 없음. 각국별 정의의 영향은 정책결정자에게 주요한 이슈. 통계출처의 통합은 비교성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음
  - 12개월 체류가 이민통계와 타 통계의 일반적 정의로 장기이민 정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 국별 거주 정의가 달라 측정에 곤란.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이 여러국가 거주민이 될 수 있음
  -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법은 스톡 측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흐름 측정을 위해서는 노동력 조사와 센서스를 이용하는 것임
  - 이민의 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단기이민 정의가 필요
2. 사무국은 TF의 다양한 체류기간을 사용하여 작성한 국제이민추계의 분석 권한을 추인. Eurostat이 TF 참여에 관심
3. TF의 가이드라인은 회의 후 전자적으로 사무국의 자문을 받을 예정. 결과는 2009년 2월 회의에 제출되고 최종안은 6월 회의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할 예정

## D. 인구 추계

1. 인구추계 작성에 있어 문서화된 경험 수집을 개발하기 위한 TF의 목록안이 2008년 2월 토론. 1개국만 참가의사를 나타내 참가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사무국은 참가 제안이 적어 TF 설치를 취소

## E. 건강 통계

1. 사무국은 장애통계에 대한 워싱턴 그룹, 건강상태에 대한 UNECE/WHO/Eurostat의 성과를 포괄하는 보고서에 바탕을 둔 건강통계 조정을 토론했다. 조정과 워싱턴 그룹의 활동과 부다페스트 사업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 UNESCAP이 부다페스트 사업 참여에 관심

## F. 통계정보 시스템 관리

1. 활동 8.1 : SP2009에 있는 통계정보관리 시스템(MSIS)은 국가 및 국제적 통계 SW 공유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포함. 단기과제는 SW 도구에 대한 정보와 소재를 제공하는 것임. 장기과제를 위해서는 공동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 아래의 사항이 토론했다
  - 포털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관리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 포털을 통하여 SW를 이용가능하게 한 기부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포털이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하면 상향식 접근법의 성공적인 사례가 포털에 보일 수 있음. 비판도 성공을 위해 중요
  - SW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개발과 지원, 훈련이 필요
  - 새로운 IT 설계 개발은 효율적인 SW공유를 위해 표준도구와 메타데이터 환경 사용이 필요
  - 일부 국가는 부처간 공통 정보 설계를 창출
2. 사무국은 통계 SW 관리와 공유는 전략적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경영자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 또한 조정 그룹에 통계청 IT 관리 과제란 주제로 2009년 2월 회의에 제출 할 보고서 작성을 요청. 조정 그룹의 의장은 회의에 초빙될 예정. 그룹의 권한은 토론 후 개정될 수도 있음

## G. UNECE의 UN DB 포털에 대한 기여

1. 사무국은 UNData로 알려진 UN 포털에 대한 UNECE 기여와 관련하여

제안된 활동을 토론

- 계획은 현대기술을 고려하여야 함. 모든 국제자료와 메타자료를 단일 DB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
- 온라인 DB 유지에 타 국제기구, 자료원인 통계청와의 연계로 사업은 대규모로 토론되어야 함

## H. 기술 협력

1. 2006년 2월 사무국은 비서실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계의 기술적 협력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 비서실은 2008년 2차 조사결과를 제출
  - EU기구의 기술지원에 관한 문서 오류. Eurostat은 기술지원활동의 기부자가 아니라 타 EC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조언 제공자
  - 아제르바이잔은 EU 인접국으로 기술적 활동이 EU에 의해 조정되므로 조사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의문
  - 정기조사 수요는 Paris21이 전 세계를 포함하면 중지될 예정
2. 향후에는 세부적이며 방대한 문서보다는 조사결과 분석요약이 토론 되면 충분

## VI. 56차 총회의 평가 : 세미나 조직을 추천

1. 2008 총회 평가결과는 정보를 위해 공개. 사무국은 갱신된 세미나 조직에 대해 토의

## VII. 2009 총회 준비

### A. 사업체 통계 분야의 전략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요

1. 캐나다와 Eurostat이 준비한 개요에 대해 토론

- 세션 1은 전문가가 아닌 청장간 전략적 이슈에 초점, 세션 2는 사업체로부터 수집한 통계에만 집중
- 세션은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현 금융/경제 위기를 다룰 수도 있음
- 세션간 중복 방지가 중요

## 2. 세미나에서 다음을 제안

- OECD : 기업체 자료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공식 및 비공식 자료원간의 경쟁 관련 이슈
- OECD : 혁신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
- 핀란드 : 사업체 등록 자료와 행정자료 이용으로 응답자부담 조절

## **B. 세미나 개요 : 전문적 자치권과 책임 원칙과 정책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권한과의 조화**

### 1. 사무국은 아일랜드가 준비한 개요에 대해 토론

- 유럽 이외 지역의 일부 전문가와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이 중요
- 공식통계의 경계 확정에 대해서도 토론 예정

### 2. OECD가 통계 토론에 시민과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정보의 사용과 소통기술도구에 대한 문서 제출을 제안. Eurostat이 세션1에 공정성 프로토콜과 경험에 대한 문서 제출을 제안

## **C. 2009 CES 공식 세션 준비, 아젠다**

### 1. 비서실은 총회 토론의 바탕이 될 공표에 대한 문서를 준비할 저자를 구함. 심층 검토 결과는 2월 전 모든 회원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자문을 받을 예정

### 2. 사무국 회원의 선출이 아젠다에 추가될 예정

## VIII. 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사생활 보호 측면

1. 사무국은 기본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검토. 기준은 인준을 위해 2009 총회에 제출될 예정
2. TF는 코멘트를 고려하여 2009 2월 회의에 새로운 버전을 준비. 제출 전에 모든 CES 회원의 자문을 받아야 함

## IX. 통계청의 성과 측정에 대한 경험

1. 라트비아가 2008년 초 실시된 조사에 대한 follow up을 사무국에 통지. 이 주제에 대한 사업의 지속에 관심이 있으며 워크숍 조직도 가능
2. Eurostat이 품질 틀 아래 여러 활동을 수행. EU 지역외의 UNECE국은 통계청 성과 측정에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음. CIS국가 관심 표명

## X. CIS 국가의 통계 활동 소개

1. CIS-STAT이 위원회 구성과 통계활동에 대해 소개. CIS-STAT의 주 업무는 CIS국 통계활동의 조정, 통계의 개선신장, 기준과 권고안 개발, 통계정보의 공표와 교환, 사회-경제 과정 분석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통계와 회계를 개선 필요
2. 2006년에는 단기 및 중기 주요 거시경제지표 예측 업무를 부여 받았음. 또한 통계 DB와 웹사이트를 운영

## 제6차 OECD통계위원회 등 참가 결과보고(요약)

### □ 제 6차 OECD 통계위원회 회의개요

- 기간 및 장소 : 2009. 6. 10 ~ 11, 제네바 유엔유럽본부
  - 6. 8(월) OECD대표부 대사 면담
    - ※ 유럽통계기관장회의(6. 8. ~ 6. 10.) 옴저버 참가
- 회의주제 : 경제사회 통계분야 9개 의제
  - 주요의제 :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한눈에 본 정부, 사회진보측정 글로벌프로젝트 등
- 대표단 : 이인실 통계청장외 4명

### □ 주요 국제 통계협력 활동

- **OECD 통계국장(Enrico Giovanini)과 면담**
  -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년 10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UNDP, ILO, Wordbank 등 국제기구, 외국주재 한국대사, TV 등 언론매체, 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협조 및 참여유도
  - 주요 인사(예, 스페인 총리, 요르단여왕 등) 참여유도
  -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되는 월드뱅크의 40만불 실행 방안 모색(회의참가를 위한 여행경비지원, 훈련 및 연구수행 등)
- **OECD대표부 대사(김중수) 및 제네바대표부 대사(이성주) 면담**
  -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의 통계인프라 강화 방안 등 논의

○ 호주,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각국 청장들과 면담

- 양국간 통계적 국제협력 증진 방안 논의
- 특히 프랑스와는 경제 분석 관련 협력 방안 논의

○ OECD의장단 회의 참석

- "한눈에 본 정부"의 발간과 관련 의견 조율 등

□ 주요 회의 참석

○ "한 눈에 본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발간

- OECD사무국은 2009년에 발간하여 정부활동을 수량화하여 비교하고자 하나 각 국가에서는 처한 상황이 상이 각국정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의 어려움 토의
- 대중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 필요성에 대한 우리측 입장 표명

○ 사회진행측정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 "통계, 지식 및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 소개

○ 아동복지측정 : OECD보고서

- 각국은 유용한 자료임을 인정하고, 유아에 대하여도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 보고서에 미수록 된 한국자료를 실제로는 통계청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